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50

2026. 6

CONTENTS

Territory and Local Governanc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Ko, Sang-Hyeok

Construction Techniques and Developmental Patterns of Baekje Wooden Pagoda
So, Jae-Yun

Maritim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Port citie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4th-6th Centuries CE
Kwon, Oh-Young·Choi, Young-Eun·Park, So-Y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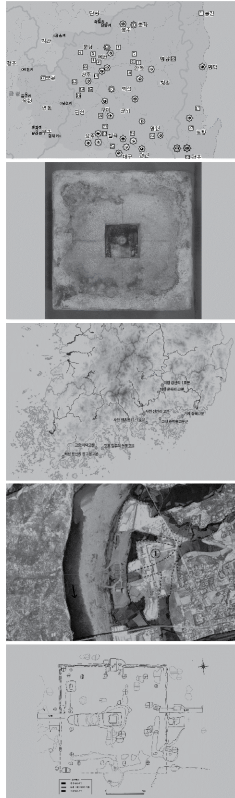
Methodological Improvements in Surface Survey of Buried Cultural Heritage
Kim, Do-Heon

中央考古研究

第50號 | 2026. 6

연구논문

-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 고상혁
백제 목탑 축조기법과 변천양상 연구 | 소재윤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와 향시의 발전 | 권오영·최영은·박소열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의 개선 방안 | 김도현



中央考古研究

第 50 號 | 20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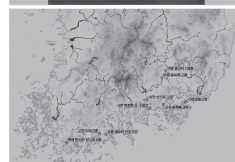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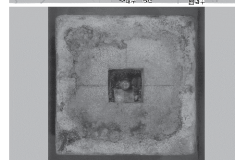
연구논문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 고상혁

백제 목탑 축조기법과 변천양상 연구 | 소재운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와 향시의 발전 | 권오영·최영은·박소열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의 개선 방안 | 김도현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 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 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 사 오준혁(중앙문화유산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유산연구원)

中央考古研究 - 第 50 號 -

인쇄일 2026년 6월 25일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 행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인쇄처 현대옵셋인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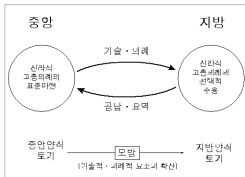
주 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분원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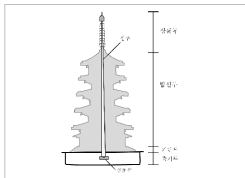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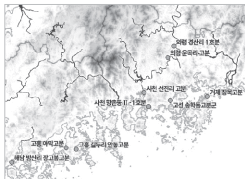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1

고 상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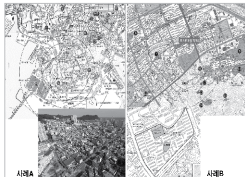
백제 목탑 축조기법과 변천양상 연구 35

소 재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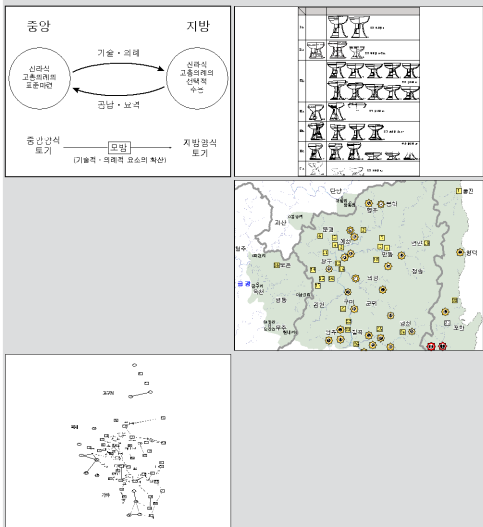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와 항시의 발전 61

권 오 영 · 최 영 은 · 박 소 열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의 개선 방안 85

김 도 현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Territory and Local Governanc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고상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특별연구원

- I. 머리말
- II. 신라양식 토기의 개념
- III. 신라의 영역
- IV. 신라의 지방조직
- V. 맺음말

국문요약

신라양식 토기는 신라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로, 그 지속 분포 범위는 곧 신라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마립간기 신라의 서·북 경계는 창원-창녕-대구-성주-무주-영동-옥천-청원-괴산-단양-정선-양양을 잇는 선으로 파악되며, 동·남쪽은 바다가 자연 경계를 이룬다.

이 영역 안에서 확인되는 고총은 중앙과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은 지방 정치체 수장의 상징적 기념물로, 일정한 규율 아래 축조되었다. 특히 직경 20m 이상의 고총은 최고급 위신제가 부장된 점에서 당시 행정 단위인 성·촌을 반영하는 고고학적 지표로 볼 수 있다. 그 수가 50여 개소로 파악되어 중국 『양서』 신라전에 기록된 “52읍록”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는 6세기 초 신라 지방행정 체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총은 주로 낙동강 유역과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소백산맥 이북 지역, 동해안 북부, 그리고 금관가야 중심지였던 김해 일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총이 축조된 지역에서는 지방관 파견, 외위 수여, 역역동원 등 상당한 수준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에 반해, 고총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통제 장치를 통한 낮은 수준의 간접지배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의 지방통치가 지역별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신라양식 토기와 고총 분포를 통해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고총의 수와 분포는 당시 신라의 지방행정 체계와 차등적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주제어 : 신라, 마립간, 토기, 고총, 지방조직

I . 머리말

마립간기에 이르면 진한 소국 중 하나에 불과하였던 사로는 주변 소국을 아우르는 광역정치체인 신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신라’라는 명칭은 구성원 간의 상하관계는 물론 영토의식의 형성, 간접지배를 기반으로 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의 제도화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주보돈 1996). 고고학적으로도 이 때를 전후하여 신라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념물과 상징물이 등장하는데, 신라양식 토기와 착장장신구, 그리고 고총·성과 같은 건축물이 대표적이다(이희준 2007; 김용성 2015). 이러한 물질 문화의 출현과 분포는 신라의 성장 과정을 반영하며, 그 지속 분포 범위는 곧 신라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표(김용성 2016)로 인정된다.

그러나 착장장신구는 신분을 상징하는 위신재로서 대형 고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영역을 세밀하게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묘제 역시 적석목곽묘가 신라 중앙 지배층을 강하게 반영하는 데 그치며, 석곽묘와 같이 신라와 가야가 공유하는 묘제는 상호 구분이 쉽지 않다. 고총과 성 또한 주변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외형만으로는 그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토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물질 자료로서 신라의 영역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 신라에서 토기는 매장 의례에(이성주 2020: 159) 사용되는 예기로 제작되었으며(고상혁 2024: 1), 국가 차원에서 토기 제작과 사용 방식을 일정하게 규범화함으로써 구성원 간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반영(李元太 2022: 201)된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부장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다양한 규모의 무덤에 널리 부장되었고, 형식 변화에 따른 세밀한 편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범위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와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면 신라의 강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글은 신라의 지방조직을 고찰하고자 한다. 4세기 중엽은 사로가 고대왕권국가로 성장한 시기이며, 6세기 중엽에는 율령반포를 통해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성·촌을 기본 단위로 하는 지방통치체제는 이미 마립간기에 시행되고 있었으나(이수훈 2016: 104), 이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기를 기준으로 신라의 강역을 설정하고, 사회 집단의 기념물인 고총(이성주 2012; 김대환 2012)을 지방 거점의 지표로 삼아 토기의 확산과정과 그에 따른 연결망 형성을 분석함으로써 마립간기 신라 지방조직의 실체를 복원하고자 한다.

Ⅱ . 신라양식 토기의 개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신라양식 토기가 지닌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점에서 신라양식 토기가 신라 영역 추적의 근거가 되는지 그와 관련된 신라양식 토기 전반의 이해를 높여보고자 한다.

신라양식 토기의 대표 기종은 상하교호하는 장방형 투창을 지닌 이단투창고배와 직선적인 경부를 가진 장경호이며, 이러한 기종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련의 토기군을 신라양식 토기라 한다. 그 존속 시기는 대체로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에 이르며(최병현 2022), 이 기간에 토기 양식은 몇 차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이는 국가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신라양식 토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적석목곽분이라는 새로운 묘제가 출현하고, 대형 봉토를 갖춘 고총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수지형 관으로 대표되는 신라 특유의 금공장신구가 성행하였으며, 등자를 포함한 기승용 마구의 등장과 부장은 내세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¹⁾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방계 고분 문화의 유입과 맞물리며, 신라 사회가 새로운 정치·의례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월성으로 대표되는 궁성이 축조되고, 김씨의 왕위세습이 정립되며, ‘마립간’이라는 왕호가 사용된 시기와의 맞물린다는 점에서 신라양식 토기는 마립간기 신라국가의 성립과 위상 변화를 반영하는 물질 자료로 이해된다. 이는 신라양식 토기가 단순한 고고학적 양식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과도 대응하여 국가의 정치 제도 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신라양식 토기는 과거 낙동강 동안양식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분포는 영남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낙동강 이서지역, 충청 내륙, 동해안 일대까지 점차 확산한다. 이러한 확산양상은 신라국가의 영역 확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신라 강역의 변동과 토기 분포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이희준 2007). 즉, 신라양식 토기의 지속 분포 범위는 곧 신라의 영역을 반영하는 지표이다(김용성 2016: 10). 따라서 신라양식 토기는 한반도 동남부의 유력 정치체였던 신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물질 자료로서, 단순한 토기

1) 마구에서는 편비가 나타나고, 등자, 안고도 이 시점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기승문화의 출현은 내세로 향하는 수단이 수레에서 직접 말에 탑승하는 기승으로 변화하였음을 말해준다(고상혁 2024: 18).

의 양식 변화를 넘어 신라국가의 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서사를 반영한다.

삼국시대는 한반도 역사상 대형무덤이 가장 활발하게 축조되는 시기로,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에는 적석목곽을 묘제로 하는 거대한 봉토를 갖춘 고총이 조성되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무덤에 다량의 토기를 부장하는 후장(厚葬)이 성행하였으며,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용 토기는 기종이 다양하고 기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성형과 장식기법 또한 훨씬 정교하게 이루어졌다(이성주 2020: 159). 더욱이 이러한 토기는 고화도에서 환원염으로 소성되어 일상 용기로 사용하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견고하며, 표면의 색조와 질감 역시 금속기나 자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라양식 토기는 실용적 용도보다는 매장 의례를 위해 제작된 예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라양식 토기의 기종 구성과 기형적 특징은 중앙 의례의 법식과 절차에 맞추어 규정되었으며(이희준 2007), 이 과정에서 선호된 일부 기종은 왕도 외곽의 생산시설에서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반복적인 제작 공정을 거치며 높은 유사성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경주 일대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지닌 토기군은 신라의 예법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된 ‘중앙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라양식 토기는 이러한 중앙양식과 더불어 유사양식 및 변형양식이 병존한다. 중앙양식은 경주에서 직접 생산되었거나 동일한 생산체계를 공유한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변형양식은 중앙양식에 대한 모방의 정도를 달리한 채 지방에서 생산된 토기로 이해된다. 이는 토기가 원거리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 사회가 중앙으로부터 토기를 공급받기보다는 자체 생산을 선택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 중앙 토기에 대한 모방행위는 단순한 양식 수용을 넘어 신라에 대한 정치적 복속을 표상하는 성격을 지니며, 각 지방 수장층이 중앙의 고총 의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이해된다(李盛周 2009). 신라 중앙은 지방 유력자의 정치·경제적 권한을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대신 촌간으로 불린 지방의 유력자는²⁾ 중앙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복속의례³⁾를 행하는 수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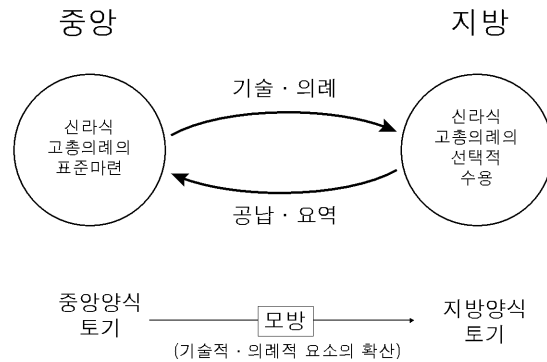
2) 지방의 유력자들은 촌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간을 지급받았으며, 초기에 그들은 ‘촌간村干’과 같은 형식으로 불리었다. 촌간이라 칭해진 유력자는 중앙정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급부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주보돈 2016: 190).

3) 복속의례에는 지역 특산물 납부 외에도 여러 형식과 절차가 있었다. 피복속 정치체의 각급 수장들이 신라 국왕에게 정기적으로 정치체 내부의 사안을 보고하는 일, 제의에 참석하는 일, 그리고 하사품과 정치·군사상의 지침을 수령해오는 일 등이다(김창석 2016: 207). 따라서 신라 중앙정부가 복속지로부터 공납을 받은 것은 수취입과 동시에 복속의례의 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지배권을 인정받는 상호 관계를 형성하였다(주보돈 2016: 190). 이 과정에서 고총 및 성곽의 축조 기술, 금공 장신구와 토기 생산기술 등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방 수장이 중앙으로 상수(上收)하거나(주보돈 2007; 이희준 2007), 감찰 또는 군사 지휘의 목적하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가 파견되기도 하며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신라가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통치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앙양식 토기가 지방 사회로 확산되는 매개가 되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신라식 고총 의례의 일부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독자적 지역성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토기 생산기술과 제의 체계가 지방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확산양상은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그림 1). 즉, 신라양식 토기의 확산은 신라의



[그림 1] 신라양식 토기의 확산 원리 개념도(고상혁 2024: 20)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이루어진 복속의례가 매커니즘으로 작동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신라양식 토기는 복수의 생산시설에서 제작되었으며, 지방의 토기 생산기술 역시 단일한 계보가 아니라 다양한 전통 위에서 형성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통양식 토기나 가야양식 토기의 제작 전통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중앙과의 양식적 유사성이 높은 지역도 존재하는가 하면, 그와 다르게 기존 제작 전통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생산 기반의 다양성은 신라양식 토기 내부에 필연적인 지역적 차별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방에서 신라양식 토기의 생산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지리적 조건 또한 중앙과의 양식적 유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기능하였다. 경주 인접 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유행하는 기형 정보와 제작 기술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양식에 근접한 토기가 제작되었다. 반면 중앙과의 교류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기형과 기종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토기가 생산되었다. 대체로 동해안 지역은 중앙양식과의 유사성이 높지만, 낙동강 유역은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유사

양식과 변형양식 토기는 유사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기본적으로 모두 신라양식 토기의 범주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양식 토기의 형성은 신라가 광역정치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복수의 거점을 설치한 것과도 관련된다. 중앙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에서도 대량의 토기를 부장한 고총이 축조되었다. 또한 경주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고상혁 2026: 192), 지방 거점의 외곽에는 경산 옥산동 사례와 같이 고총에 부장할 대량의 토기를 생산하기 위한 요장은 물론, 연료 공급을 위한 탄요 등 각종 수공업 생산시설이 함께 조성되었다. 이는 금공품의 지방 생산 가능성(이희준 2005; 이한상 2009)과 마찬가지로,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차중심지 기능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신라식 왕도 개발 모델’의 지방 거점 설치 과정에서의 적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토기 생산시설은 신라식 의례 수행의 필수 요소로서 각 지방 거점에 설치되었고, 그 결과 지방 거점은 개별 지방양식 토기의 중심이자 생산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양식 토기의 출현은 고총 및 지방 거점의 존재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또한 복수의 생산 거점에서 제작된 토기는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유통되었기 때문에 공간적 중복이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방양식 토기는 일정한 권역 단위로 소비·분포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분포권은 지방 고유의 묘제 분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곧 지방양식 토기의 공간적 분포 양상이 당시 지방의 구조적 조직 형태를 추론하는 중요한 분석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신라양식 토기 수용은 신라 왕실의 입장에서는 의례를 통해 지방 세력의 복속 여부를 확인하는 통치적 장치였다면, 지방 수장에게는 신라 중앙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삼아 현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신라의 영역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는 단속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할 때 훨씬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지만, 이를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면 실제 영향권은 보다 제한된다. 본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계를 기준으로 선택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양식 토기는 중앙과 지방 간에 형태적 차별성을 보이므로 중앙과의 차이가 뚜렷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양식 토기가 동반되는 유구를 중심으로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 기종은 가장 세밀한 편년이 가능한 이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하여 필요에 따라 기타 기종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편년안은 고상혁(2024)을 참고하여 I~IV단계로 대분하며, 절대연대는 I 단계가 4세기 중엽, II 단계가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III 단계가 5세기 중엽~후엽, IV 단계가 5세기 말~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각 단계는 다시 2~3기의 세부 소기로 구분된다.

1. 낙동강 하류

1) 김해⁴⁾·창원⁵⁾

김해에서 가장 빠른 신라양식 토기는 우계리 2호분에서 확인된다. 배신부에 2조의 돌대가 확인되는 사단각고배와 삼단각고배가 동반하여 출토되어 I B단계에 해당한다. 김해 우계리 2호분에서 출토된 사단각고배는 배신부에 2조의 돌대가 간격을 두고 배치된 것이 특징으로 경주에서 이러한 돌대는 경주 월성로 가-5호분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대각 투창의 구획방식이 돌대가 아닌 침선이라는 점에서 현지에서 생산된 모방품으로 추정된다. 김해 망덕리 II-89호 목곽묘의 이단각고배(그림 2-3)는 II A단계에 해당하는데 형태적 특징에 있어 중앙양식과의 차별성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경주 중앙의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량이 많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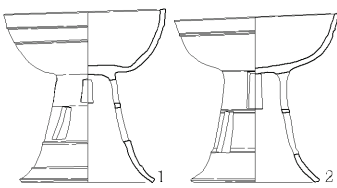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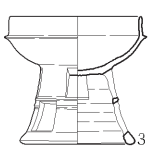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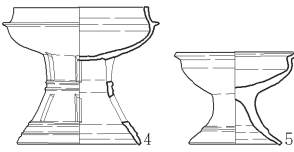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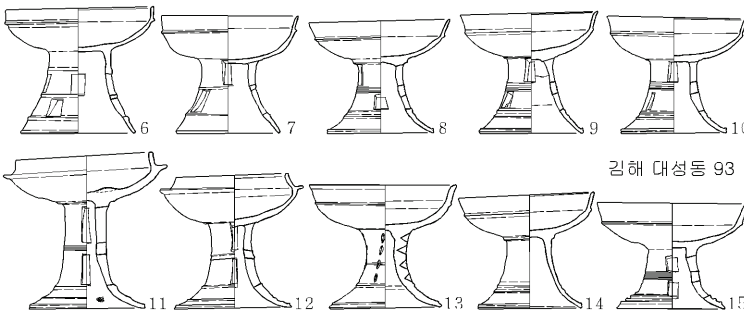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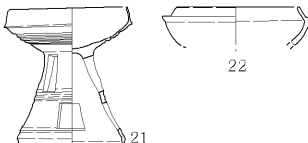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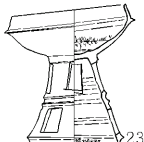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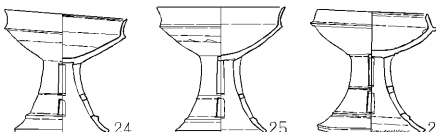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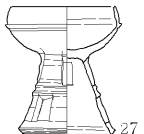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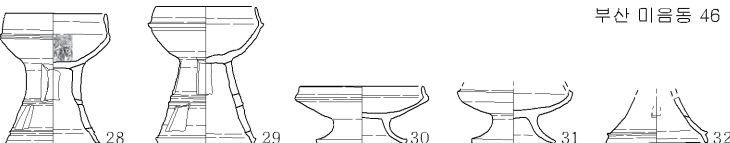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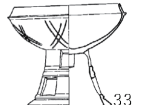
김해에서 본격적으로 신라양식 토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II B단계에 들어서이다. 수량 자체도 증가하며, 창원에서도 이때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이때까지는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비중이 높고 소가야양식 토기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III B단계가 되면 신라양식 토기 그중에서도 창녕양식 토기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주용 2007: 80).⁶⁾

김해·창원에서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III C단계부터 신라양식 토기의 비중이

4) 현재 행정구역은 부산이지만 낙동강 서쪽에 위치하는 미음동·생곡동은 김해로 분류하였다.

5) 마산만 동쪽 일대는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권역에 해당하므로 이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도계동:함안계 57%, 신라·창녕계 22%, 소가야계 3%, 천선동:토착계 36%, 신라·창녕계 36%, 함안계·소가야계 14%

	경주	김해
I B		 김해 우계리 2
II A		 김해 망덕리 II-쪽89
II B		 김해 대성동 93
III A		 김해 대성동 90
III B		 김해 퇴래리 산8 27
III C		 부산 미음동 46
IV A		 김해 예안리 54

[그림 2] 김해토기(1/10)

감소한다는 점이다. 대신 창원을 중심으로 대가야양식 토기가 증가하는데 실제로 창원 중동에서는 대가야양식 토기를 생산한 토기가마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김해에서는 김해양식 토기로 분류되는 단각의 고배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그림 2-30~32, 34·35). 동시대 신라양식 토기도 단각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굽에 가까운 단각은 대가야양식 고배의 특징이지만 그보다도 급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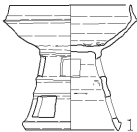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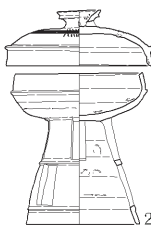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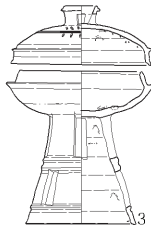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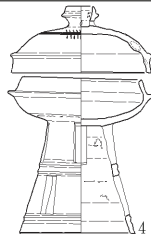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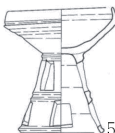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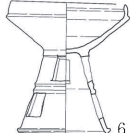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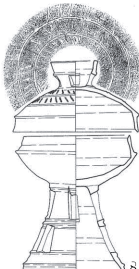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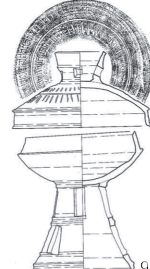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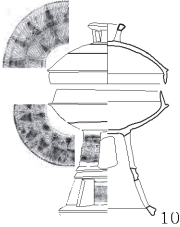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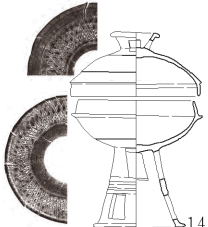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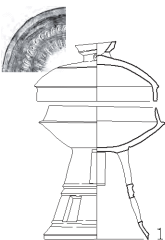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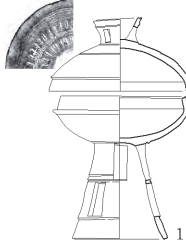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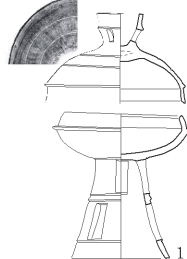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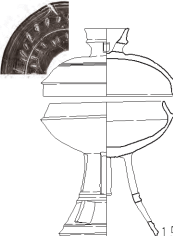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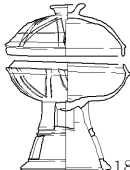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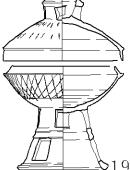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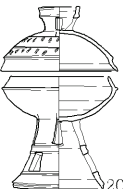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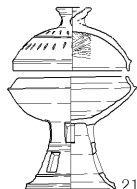
즉 김해에서는 4세기 후엽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일부 모방 생산되었는데 그러다 4세기 말, 적어도 5세기 전엽이되면 김해의 중심인 대성동 고분군에 대형분의 축조가 단절됨과 동시에 신라양식 토기의 수량이 급증한다. 창원에서도 이때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라가야와 소가야토기의 유입은 중단되지 않는다.

2) 창녕

창녕은 지역색이 강한 토기가 생산된 곳으로 가장 이른 시기 중앙양식와 창녕양식 이단투창고배가 동반되는 무덤은 특이하게도 포항에 존재한다. 포항 남성리 I-34호분에서는 내경하는 구연에 폭이 넓은 이단각고배가 출토되었는데(그림 3-1)ⅢA단계로 설정된다. 동반되는 창녕양식 고배는 대각이 중형이며 뚜껑받이턱이 짧은 것(그림 3-2), 대각이 제형이고 뚜껑받이턱이 길게 돌출된 것이 확인된다(그림 3-3·4). 동반되는 개는 높이가 낮고 투공이나 투창이 없는 것(그림 3-2), 대각축소형꼭지(그림 3-3), 타원형 투공이 있고 단부가 강조된 것(그림 3-4)이 확인된다. 배신은 전체적으로 낮고 다치구를 이용한 점열문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형은 창녕 동리 1호 석곽묘⁷⁾와 대비되는데 상하일렬투창 통형고배와 동반되고 있어 창녕양식 토기가 가야양식에서 신라양식으로 변화하는 전환기로 생각된다. 이때부터 창녕에서 가야양식 토기는 사실상 사라지고 신라양식 토기로 전환된다.

창녕 교동 1호분의 이단각고배는 배신이 직선적이고 각단이 작게 제작되어(그림 3-5·6) 중앙양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각기부에 돌대가 있는 폭이 좁은 이단각고배라는 점에서 ⅢB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동반되는 고배는 제형의 삼단각, 낮은 배신, 뚜껑이 두드러지고 구연단이 각진 것이다. 무엇보다 돌대로 구획된 개의 꼭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점이 창녕양식 고배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다.

7) 가야양식에서 신라양식으로의 전환은 창녕 동리 5호 석곽묘가 거론(김두철 2014: 178)되며, 창녕 동리 1호 석곽묘는 그 직후 단계(최병현 2022: 419)로 설정되기도 한다.

	경주	창녕		
ⅢA	포항 남성리 1-34 			
ⅢB	창녕 교동 1  			
ⅢC	창녕 교동 88  창녕 교동 주차장 조성부지 			 
ⅣA	 			창녕 계성리(두) 2

[그림 3] 창녕토기(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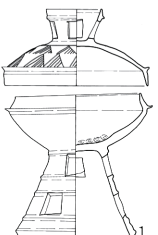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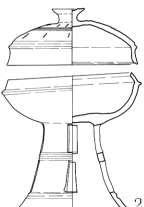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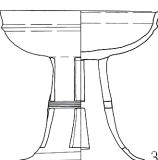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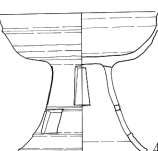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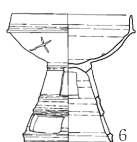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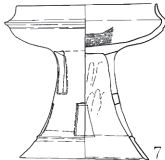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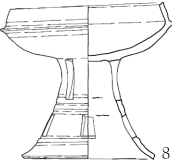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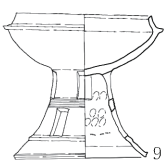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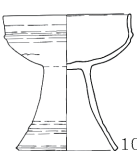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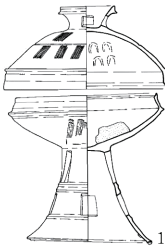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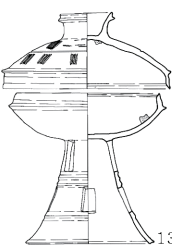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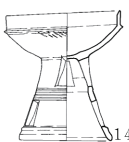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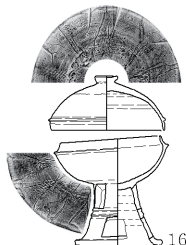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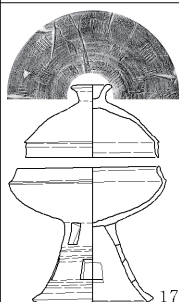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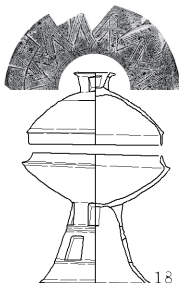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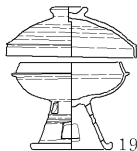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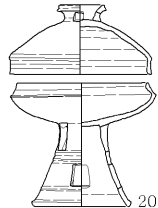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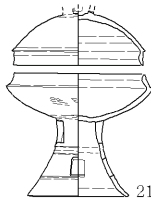
2. 낙동강 중류

1) 대구

대구 본리리 I-1호 석곽묘에서는 내경하는 구연부, 중앙의 벌어진 돌대에 의해 사단으로 구획된 고배(그림 4-1)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단각고배는 I 단계의 사단각고배와 혼동될 수 있으나 이것이 대각도치형꼭지가 부착되고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개와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IIIA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경산에서 다수 확인되어 경산산일 가능성이 크다.

동반되는 고배 중에는 낮은 배신부에 외반하는 구연을 가진 나팔형 삼단각고배(그림 4-3·4)와 내경하며 돌대형 뚜껑받이턱을 가진 것(그림 4-2), 'C'자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크게 내경하는 구연과 뚜껑받이턱을 가진(그림 4-2) 유개식도 확인된다. 투창은 세장방형이 상하일렬로 배치된 것(그림 4-2·3·5)과 상단은 길고 하단은 짧은 것이 교호하여 배치된 것(그림 4-4)이 확인된다. 대각 중앙의 구획은 다조침선(그림 4-2·3)과 1조 침선(그림 4-4·5)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시기 낙동강 하류와 유사한데 높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대각에 상하일렬투창이 배치된 고배는 IIIA단계 이전 대구 고배의 주요 특징이다.

III단계에 대구 문산리 3-5호분에서 출토된 기부에 돌대가 있고, 대각은 제형이며, 단면 'V'자형 각단을 가진 이단각고배(그림 4-6)는 중앙양식으로 추정되나 횡으로 긴 하단투창은 다소 이질적이다. 이와 동반되는 고배를 보았을 때 대구에서는 구연단이 뾰족하고, 구연부가 'C'자형으로 크게 내경하는 것(그림 4-7), 직선적이며 구연단이 평평한 것(그림 4-8)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편평하지만, 길이가 짧고 뚜껑받이턱으로의 연결이 완만하여 'C'자형으로 보이는 것(그림 4-9)도 확인된다. 배신은 반타원형으로 중앙과의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각 중앙의 돌대는 구획이 없는 것(그림 4-7), 이조연접돌대(그림 4-8), 다조 침선(그림 4-9)이 확인된다. 투창은 대체로 상하의 높이가 유사하고 세장방형을 이루지만 장방형의 것(그림 4-9)들도 확인된다. 'C'자형으로 곡선을 이르며 크게 내경하는 구연과 길게 돌출된 뚜껑받이턱과 나팔형 대각은 IC단계에 유행한 것이지만 대각의 폭이 좁다는 점은 IIA단계의 요소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대구양식의 큰 특징으로 이후 지속된다.

	경주	대구				
ⅢA		대구 본리리 1-1석				
						
ⅢB		대구 운산리 3-5				
						
ⅢC		대구 운산리 1				
						
ⅣA		대구 운양리 14-1				
						
ⅣB		대구 운양리 111				
						

[그림 4] 대구토기(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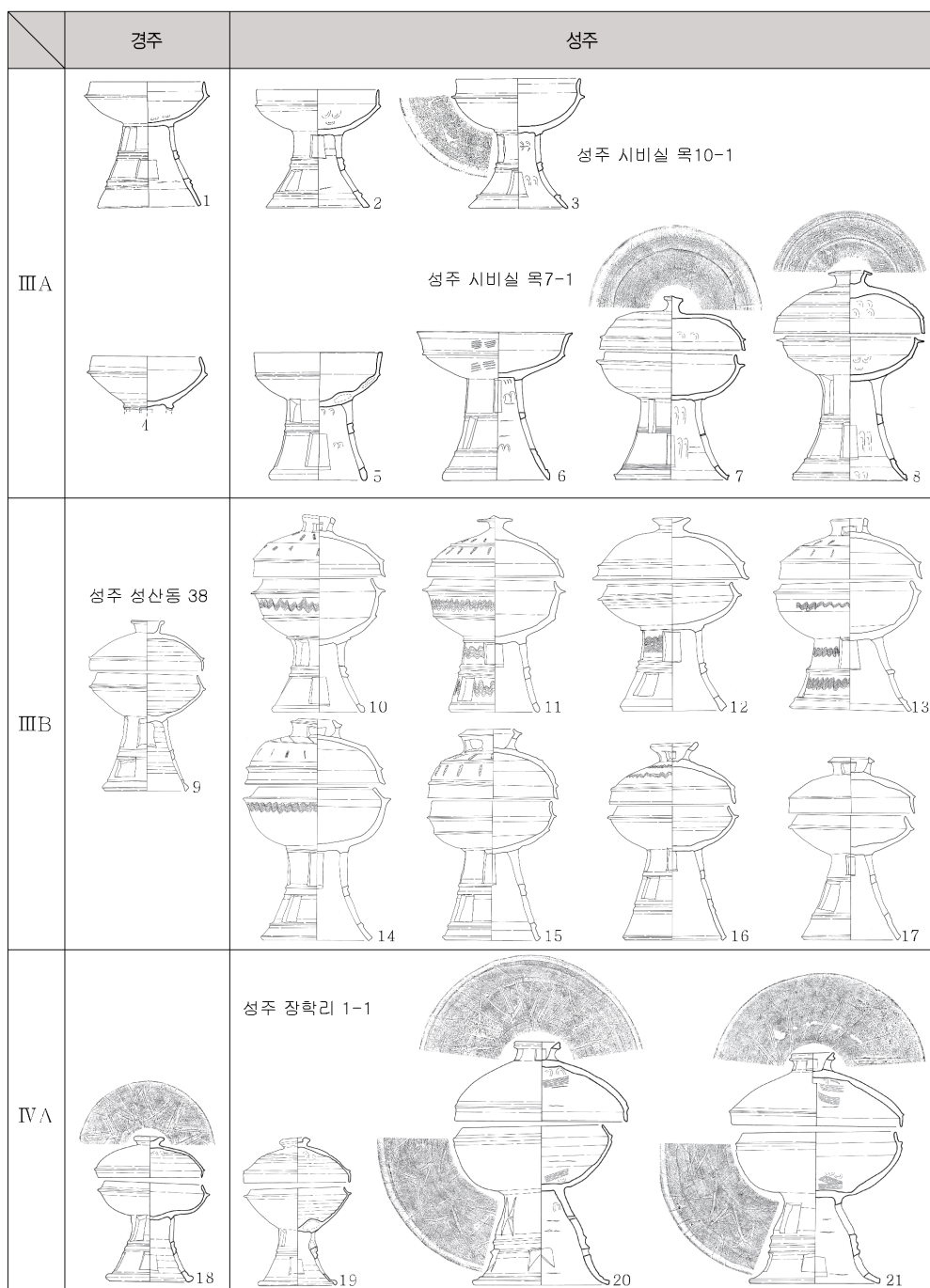
2) 성주

성주에서는 성주 시비실 1-1, 8-1, 24호 목곽묘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주 시비실 8-1호 목곽묘에서는 유개식 대부장경호가 확인되어 ⅡB단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으며, 성주 시비실 24호 목곽묘는 대부장경호가 출토되어 ⅡA단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 무엇보다 1-1·8-1호 목곽묘는 대각축소형꼭지가 부착된 개가 출토되어 ⅢA단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 24호분과 같이 낮고 투창이 없는 굽 형태의 꼭지가 부착된 개가 최근 경주 황남동 120호분 하층 1호 목곽묘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무덤은 ⅡB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주의 신라양식 토기는 ⅡB단계에서 ⅢA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출현하였다.

성주에서 직접 비교가 가능한 중앙양식이 확인되는 것은 성주 시비실 10-1호 목곽묘이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삼단각고배 중 1점은 내경하는 구연, 돌대형 뚜껑받이턱 폭이 넓은 제형 대각(그림 5-1)으로 인해 ⅢA단계로 편년할 수 있다. 이와 동반되는 것은 나팔상의 대각을 한 삼단각으로 1점은 직립하는 대각에 돌대형 뚜껑받이턱(그림 5-2)이고, 1점은 'C'자형 구연에 길게 돌출된 구연을 가지고 있다(그림 5-3).

ⅢA단계에 확인되는 성주지역 토기는 대구, 의성, 구미에서 보이는 특징이 혼재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성주 시비실 7-1호 목곽묘에서는 비록 대각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내경하는 구연, 각기부에 돌대가 있는 고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연 형태로 인해 성주양식 토기와 구분 명확하다.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단계 추정이 명확한데 각기부의 폭으로 보아 ⅢA단계에 해당한다(그림 5-4).

성주양식 토기의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시점은 성주 성산동 38호분으로 대표되는 ⅢB단계부터이다. 성주 성산동 38호분에서는 뾰족한 구연단이 대부분이지만 평평한 것(그림 5-14)도 확인된다. 돌출된 뚜껑받이턱과 크게 내경하는 구연의 비율이 높다. 배신부가 깊고 외면 중앙에 돌대가 있는 것 이외에 배신부가 깊지만 돌대가 없는 것(그림 5-13·14), 배신부가 얇은 것도 확인된다(그림 5-16·17). 대각은 이단각과 삼단각이 확인되는데 이·삼단각 모두 제형(그림 5-11, 13, 15, 16, 17)인 것과 대각 중앙 돌대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 각기부 보다도 대각 중앙의 폭이 좁은 것(그림 5-10·14), 대각 상단은 수직으로 일정한 폭을 유지하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것(그림 5-12)이 확인된다. 투창은 장방형에 상하의 폭이 일정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단에 비해 하단의 높이가 높은 것(그림 5-16·17)도 확인된다. 대각 중위의 돌대는 이조연접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1조만이 배치된 것(그림 5-13·16·17)도 다수 확인된다.



[그림 5] 성주 토기(1/10)

3. 낙동강 상류

1) 상주·문경

상주와 문경은 마한의 문물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었는데 ⅡB단계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청리 C-33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그림 6-1·2) 중 구연 상단이 크게 각을 이르며 외반하는 것은 경주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대구 등 낙동강 중류에서 유행하는 형태이다. 특히 하단에 삼각형 투창을 배치하고 상단에 점열문을 배치하는 것은 소가야양식 토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청리 C-59호분에서는 무투창고배(그림 6-4)가 확인되는데 무투창고배는 낙동강 연안에서 폭넓게 분포하지만, 낙동강 중류의 대구와 낙동강 하류의 김해·부산에서 많은 수량이 확인된다. 상주 신흥리 나-28호분의 나팔형 대각의 이단투창고배(그림 6-5)는 지방에서 형식이 지체된 사단각고배로 볼 수 있다(고상혁 2026: 200). 이들 유물은 ⅡB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상주 현신동380-1 49호 목곽묘 출토 이단투창고배(그림 6-6)는 전형적인 중앙양식 고배로 대각이 넓어 ⅢA단계로 설정된다. 현신동 61호분(그림 6-6), 현신동 71호분 출토품(그림 6-7)은 대각의 폭이 넓고 구연부가 직립하고 구연단이 편평한 이단투창고배 중앙의 직립구연이단투창고배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주에서는 이 단계에는 직립구연이단투창고배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신동 71호분에서 대각 중위에 다조횡집선문이 배치된 이단투창고배(그림 6-9)는 직립하는 구연과 짧고 넓은 대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대구의 토기로 추정된다. 이때부터는 가야양식 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신라양식 토기 일변으로 변화한다.

ⅢB단계가 되면 현신동 39호분 출토품과 같이 직립하거나 외경하는 구연과 대각 중위에 3조 이상의 돌대가 특징적인 의성양식 토기(그림 6-11·12)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상주에는 다수의 의성양식 토기가 도입되는데 성동리 6호(그림 6-22~25)나 신상리 1호(그림 6-27~30)와 같이 IV단계에 이르러서도 상주에서는 중앙양식 토기 및 약간의 재지 생산 토기와 더불어 의성양식 토기가 동반되는 양상이 지속된다.

문경에서는 이른 시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그 양상을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신현리의 상황을 본다면 IV단계에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하였는데 고묘산성의 축조 시기나 지정학적 정세를 볼 때 문경 역시 상주와 같은 시기에 신라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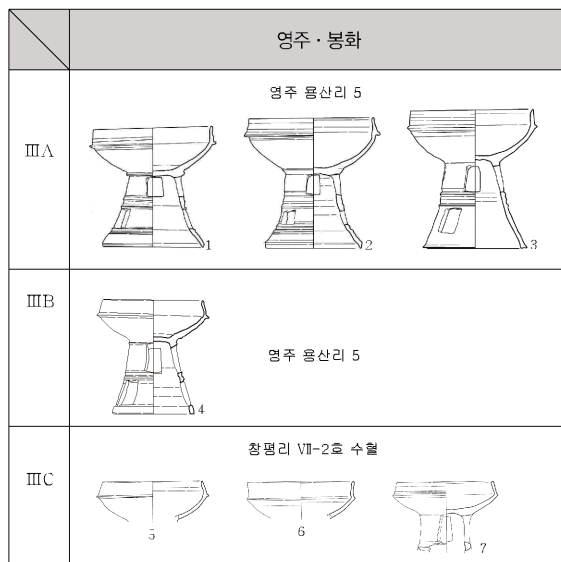
	경주	상주
II B		 청리 C-33 청리 C-59 신촌리 나-28
III A	 현신동 380-1 목49	 현신동 61 현신동 71
III B	 10	 11 현신동 39 12
III C	 13 16	 14 현신동 48 15 17 18 19 병성동 4-1 20
IV A	 21	 22 23 24 성동리 6 25
IV B	 26	 27 28 29 신상리 1 30

[그림 6] 상주토기(1/10)

토기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영주·봉화

영주 용산리 5호분 출토 삼단각고배(그림 7-1·2)는 각기 부에 돌대가 있고 대각의 폭은 넓지 않으며, 뚜껑받이턱은 돌대형인데 구연은 내경하고 있어 ⅢA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연부 끝부분이 약하게 외반하고 있어 전형의 중앙양식 토기는 아니다. 단면 삼각형의 구연부는 일부 의성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다른 한점은 이단각고배인데(그림 7-3) 벌어진 돌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영주·봉화 토기(1/10)

영주 태장리 5호분 출토 이단각고배(그림 7-4)는 ⅢA단계 중앙양식 토기로 볼 수 있으나 장방형에 가까운 각단부의 단면이 다소 이질적이다. 이후 태장리에서는 다수의 Ⅳ단계 무덤이 조사되었으나 이단투창고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기종들이 모두 신라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대체로 중앙양식에 대한 모방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봉화에는 Ⅳ단계 이전의 고분은 확인되지 않는데 다만 봉화 창평리유적 VII-2·4호 수혈에서 출토된 고배를 통해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뿐이다. 대각이 훼손되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ⅢC단계로 추정된다. 이중 구연단이 편평한 것(그림 7-7)은 동시대 경주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직립하는 'C'자형 구연을 가진 고배(그림 7-6)는 의성양식 토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화도 중앙양식과 의성양식이 혼재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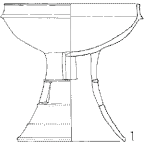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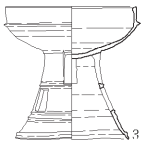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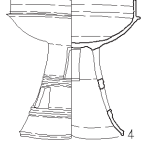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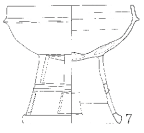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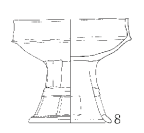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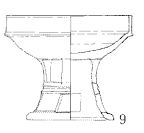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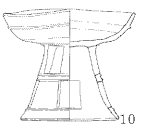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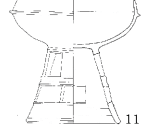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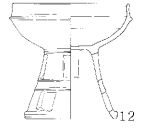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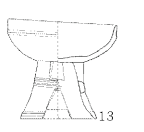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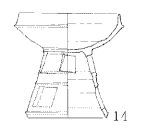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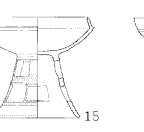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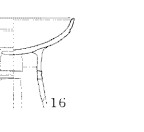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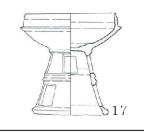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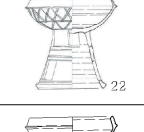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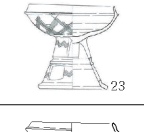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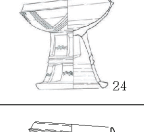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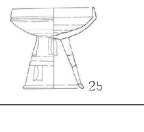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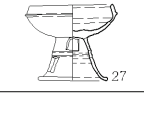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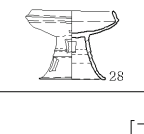
영주 반구리에서는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하여 영주도 상주와 마찬가지로 마한 또는 예맥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5세기 중엽의 이른 시점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유입되는데 적어도 5세기 후엽부터

는 의성양식 토기도 유입되었다.

4. 동해안유역

1) 강릉·양양

강릉은 신라조기 말까지만 하여도 예의 고지이다. 강릉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라양식 토기는 강릉 안현동 20호분으로 이 무덤에서 출토된 사단각고배(그림 8-1)

	강릉·양양				
I B	 강릉 안현동 20 1				
II A	     강릉 초당동 271-9 2 2 3 4 5 6				
II B	     강릉 안현동 4 7 8 9 10 11				
III A	     강릉 안현동 17 강릉 안현동 1 12 13 14 15 16				
III B	     양양 흰포리 5 17 18 19 20 21				
IV A	     강릉 영진리 B-1 22 23 24 25 26				
IV B	   양양 후포매리 1 27 28 29				

[그림 8] 강릉·양양토기(1/10)

는 중앙과의 유사도가 높는데 IB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강릉 안현동과 초당동에서는 신라조기의 늦은 시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여 이보다 이른 시점부터 신라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초당동290-1유적 4호분(그림 8-2~6)에서 출토된 삼단각고배와 같이 강릉의 토기는 중앙과의 차이가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안현동에서는 외반하는 구연부와 다수의 세장방형 투창을 배치한 것이 특징적인 이단각고배가 수습되었는데 이는 김해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이외에 IIIB단계에 해당하는 병산동 16호분에서는 외경하는 구연과 대각 중위 3조 돌대를 특징으로 하는 의성양식 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즉 강릉은 대부분 중앙과 차별성이 없는 토기가 확인되고 일부 김해나 의성과 관련된 토기들이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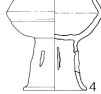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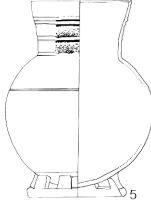
양양 남부의 현남면 일대도 신라양식 토기 분포권에 해당하는데 원포리 5호분(그림 8-22~26)으로 보아 신라의 북쪽 경계는 IIIB단계부터 이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5. 금강유역

금강유역에서는 보은, 영동, 옥천, 청원에서 신라양식 토기가 확인된다. 보은 삼년산성 554호 수습품(그림 9-1)은 뚜껑받이턱이 길게 돌출되고 완만하게 구연부로 이어지는 점이 중앙양식과 다른 점이다. 이 고배에는 기부에 돌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앙에서는 IIIB단계 이후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원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구는 미천리 가-5호분으로 구연부가 직립하고 구연단 단면이 사각형인 대부장경호이다. 경주에서는 III C단계에 구연부가 약하게 외경하고 구연단이 삼각형으로 변화하므로 청원 미천리 가-5호분은 III B단계에 해당한다. 청원 미천리 가-5호분의 연질 일단투창고배(그림 9-4)는 뚜껑받이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연단이 편평하며, 각단부의 단면이 장방형의 형태를 보여 의성양식 토기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연질로 소성된 고배는 낙동강 중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금강 유역의 옥천과 무주에서도 이러한 연질제 일단투창고배가 확인되는데 이는 금강유역의 지역적 특징으로 보인다.

영동에서는 무덤에서 토기가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토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동 남성리에서 시기 추정이 가능한 이단투창고배(그림 9-3)가 출토되었다.

	보은·영동·옥천·청원			
ⅢB	 보은 상년산성 554 수습 1			
ⅢC	 보은 상년산성 356 수습 2	 영동 남성리 수습 3	 청원 미천리 가-5 4	 무주 당산리 5
ⅣA	 보은 상년산성 794 수습 6	 옥천 금구리 나-4 7	 청원 미천리 나-2 8	 무주 당산리 3-10 9
ⅣB	 보은 상년산성 172 10	 옥천 금구리 나-2 11	 청원 미천리 나-5 12	 무주 대차리 7 13

[그림 9] 보은·영동·옥천·청원 토기(고배:1/10, 장경호:1/15)

이를 보면 장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진 각단의 형태로 보아 ⅢC단계로 추정된다.

옥천에서는 금구리 나-4호분(그림 9-5)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데 아직 장각을 이루고 있지만 낮은 구연부와 발달한 뚜껑받이턱은 ⅣA단계의 특징이다. 옥천의 이단각고배는 중앙과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일단투창고배에서 뚜껑받이턱이 밋밋하고 각단의 제작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의성양식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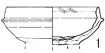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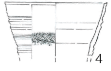
무주에서 확인되는 토기도 중앙과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차리, 당산리(그림 9-7), 현내리에서 ⅣA단계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확인된다. ⅣA단계를 세분화여 볼 때 장각의 형태가 잔존하는 보은, 옥천, 청원이 5세기 말로 편년된다면, 단각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무주는 이보다 약간 늦은 6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양식 토기는 5세기 중엽 보은과 청원을 시작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금강 상류로 진출하며, 이후 5세기 후엽에는 영동, 5세기 말에는 옥천, 6세기 초에는 무주로 확산한다.

6. 남한강 유역

괴산에서는 시기 추정이 명확한 완전한 형태의 이단투창고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각이 훼손된 검승리 6호 석곽묘의 고배(그림 10-1)는 다소 단면이 두텁게 제작된 점은 있지만 중앙과의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각기부의 폭으로 보아 ⅡB단계에

설정된다. 이외에 검승리 9호 석곽묘의 개(그림 10-5)는 ⅢC단계에 해당하는데 괴산 검승리의 경우 출토유물이 빈약하지만, 검승리 4호에서는 ⅢB단계로 볼 수 있는 대부장경호와 파배가 출토되어 괴산에서 일정 기간 신라양식 토기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괴산은 신라의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IV단계에도 신라의 영역으로 지속되었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괴산·정선·단양	
ⅡB		괴산 검승리 6
ⅢA		정선 아우라지 주거지 8
ⅢB	 	정선 임계리 채집 정선 송계리 채집
ⅢC	  	괴산 검승리 9 정선 아우라지 채집 단양 당동리 7
ⅣA	 	정선 임계리 4 정선 고성리 채집 9
ⅣB		 단양 하방리 4

[그림 10] 괴산·정선·단양 토기(1/10)

정선에서는 아우라지 유적의 8호 주거지 출토 고배(그림 10-2)가 가장 이른 시기의 신라양식 토기로 추정된다. 대각의 폭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일 가능성도 존재하나 동반되는 대부완으로 볼 때 ⅢA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선 임계리 채집품 중에는 각기부의 돌대가 있는 것(그림 10-3)이 확인되는데 각기부의 폭이 좁아 ⅢB단계에 해당한다. 임계리와 인접한 송계리에서도 구연단이 편평한 장경호(그림 10-4)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ⅢB단계까지 잔존하는 것이다. 아우라지 유적에서도 ⅢB단계이거나 그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장경호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외에 아우라지에서는 ⅢC단계의 소형고배도 출토되었다(그림 10-6). 가장 서쪽의 고성리산성에서도 IV단계의 신라양식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그중 대각도치형꼭지가 부착된 개(그림 10-9)는 이전단계로 소급될 여지가 있다. 신월리에서는 고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일부 부가구연장경호는 IV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단양 당동리에서는 삼단각고배(그림 10-7)가 확인된다. 각기부가 가늘고 각거부는 짧으며 구연부가 짧은 것으로 보아 ⅢC단계에 해당한다. 단양 하방리 4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그림 10-10)는 단각화가 진전된 IVB단계의 이단각고배이다.

즉 남한강 상류에서는 5세기 전엽 괴산으로 신라양식 토기가 확산하였다. 이후 동해안에 인접한 정선에 5세기 중엽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진출하였고, 단양에서는 5세기 후엽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확인한다.

Ⅳ. 신라의 지방조직

신라 마립간기 말, 즉 6세기 전엽에 이르면 신라의 영역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광역 범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남쪽 경계는 김해와 창원 일대로 설정되며, 북상하면 낙동강을 따라 창녕과 대구로 이어진다. 대구 이후에는 다시 낙동강을 횡단하여 성주로 확장되고,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무주·영동·옥천·청원에 이르는 내륙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후 영역은 동쪽으로 전환되어 수계를 달리 하며 남한강 상류권으로 연결되고, 괴산·단양·정선을 거쳐 태백산맥을 횡단한 뒤 동해안의 양양 남부에까지 도달한다.

김해와 창원 지역의 정치적 성격은 5세기 전·중엽과 후엽을 기점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5세기 전·중엽에는 신라문화가 강하게 반영되며 신라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5세기 후엽 이후에는 대가야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신라양식 토기의 출토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지역이 곧바로 신라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창원의 경우 대가야양식 토기의 직접적 유입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어 신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김해는 여전히 신라양식 요소와 자체 토기 양식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며 중립적 성격의 지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김해는 외교권이나 대외 교역권(주보돈 1996: 36~37), 나아가 군사적 통제력(고상혁 2024: 252)까지는 상당 부분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례적 공납 등을 통해 신라에 대한 형식적 복속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자치성이 인정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추정된 신라의 경계를 기존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보면, 김해·창원(조효식 2008: 165~198), 단양·괴산(김태식 2008: 7~56), 영월·평창(이수훈 2016: 39) 등의 포함 여부에서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의 정치적 성격과 신라의 지배 방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해 · 창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세기대에 가야계 토기의 분포가 확인되지만, 이는 신라 영향권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자율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단양과 괴산은 신라가 일부 영역만을 점유하여 교통 및 군사적 교두보로 활용한 지역으로 해석되며, 그 기능적 성격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월과 평창은 단양과 정선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신라의 영향권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마립간기 신라를 직접 반영하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를 통해 복원된 신라의 영역을 『삼국사기』지리지의 군현과 대조해 보면, 마립간기 신라 영역 내에는 총 116개(김해 · 창원 제외 시 112개)의 군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이는 통일신라 및 고려 시기 행정구역이 세분된 결과가 누적된 수치로서 마립간기 단계의 실질적 지방지배 단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통치는 이보다 적은 수의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중국 『양서(梁書)』 신라전의 기록이다.⁸⁾ 해당 기록에는 신라의 행정 단위로 “6탁평 52읍류”가 언급되며, 이는 신라의 거점체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6탁평’은 왕경 주변의 6부, ‘52읍류’은 왕경 외곽의 52개 읍 단위 또는 행정성 · 촌 단위의 지방 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주보돈 1996: 42), 이 기록은 마립간기 말기인 6세기 초의 신라 지방지배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수훈 2016: 99~100).

즉 마립간기 말기에 이르면 신라 지방에는 약 52개 내외의 행정적 성격을 지닌 성 · 촌 단위 거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지방 거점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층의 위계와 수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라 고층 가운데 최고 위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창녕 교동 · 송현동고분군, 대구 달성고분군, 양산 북정동고분군, 경산 임당동 · 조영동고분군, 의성 금성산고분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들 고분군은 금 · 은제 착장장신구, 고급 용기류, 무구류 등 고위신분을 반영하는 부장품의 구성과 더불어 대형 고층의 축조 양상을 통해 지방지배층의 위상을

8) 그 읍속에 왕성을 건모라라 부르며 그 읍이 건모라의 안에 있는 것을 탁평이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을 읍류이라 하니, 이것은 중국의 군현과 같은 말이다. 나라 안에는 6군데의 탁평과 52군데의 읍류가 있었다. :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啄評 五十二邑勒 (양서 권 제54, 25장 앞쪽, 열전 48 제이동이 신라본기)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평가된다.

신라에서 금·은제 착장장신구가 무덤 부장품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은 4세기 후엽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사여를 매개로 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종류는 금장성시구, 장식대도, 세환이식 등 비교적 단순한 구성으로 제한된다. 이후 5세기 중엽에 이르면 사여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금구, 관모, 천, 지환, 식리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식리, 유리장식이 부착된 지환, 각목장식이 적용된 천 등은 금동제 비갑이나 청동용기와 함께 지방 고층에서 확인되는 최고 위계의 위신재로 이해되며, 당시 지방 지배층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핵심 표상물로 평가된다(고상혁 2024: 238~240).

다양한 착장장신구가 본격적으로 확대·도입되는 5세기 중엽에는 이른바 고층으로 분류되는 대형 고분들이 신라 영역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다. 현재 발굴조사로 확인된 지방 최대 규모의 고분은 창녕 계성 2호분으로, 봉토 직경은 약 36m에 이른다. 이는 지방 고층의 상한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이해된다. 봉토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서는 경주에서 확인되는 직경 40m 이상의 초대형 고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성과 성주지역에도 직경 40m에 이르는 고층의 존재가 알려진 바 있으나, 창녕 계성 2호분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실제 발굴조사를 해본다면 기존 추정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성 및 성주지역의 고층 또한 실제 규모는 40m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지방 최고 위계로 평가되는 경산, 대구, 양산 일대의 최대형 고분은 봉토 직경이 약 22~30m 수준으로 확인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10m 후반~20m 초반 규모의 고분에서도 식리 등 최상위 위계의 착장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이는 봉토 직경 약 20m 내외의 고분만으로도 신라 지방 사회에서 최고 위계를 충분히 표상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는 약 26개소 정도의 고분군이 고층으로 분류되어 왔으나(김용성 1997: 220; 이희준 2007: 85), 봉토 규모를 고분군 별로 재검토한 결과 실제 고층(20m급 이상)이 존재하는 고분군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봉토 직경 20m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마립간기 고층을 포함하는 고분군은 총 76개소에 이르며, 신라후기 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규모의 고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고분군은 대부분 신라전기, 즉 마립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간상 별도로 구분된 고분군이라 하더라도 산지나 하천 등 자연 지형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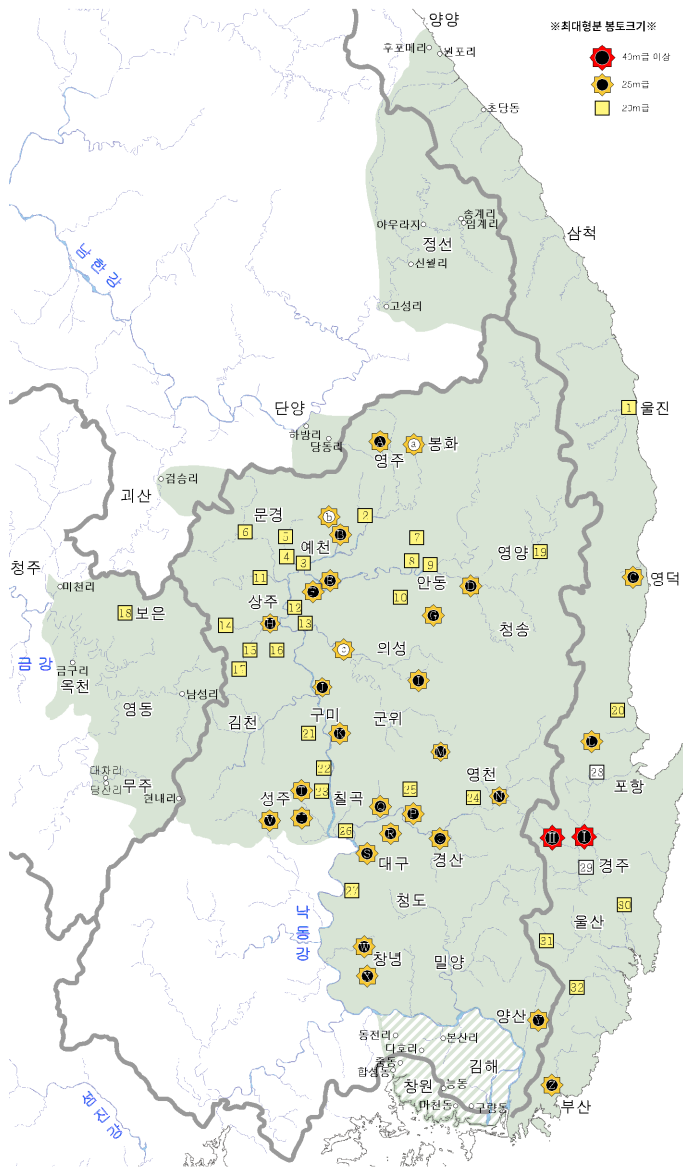
해 명확히 단절되지 않고 상호 가시권 내에 조성된 경우에는 동일 권역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총 관련 고분군은 61개소로 축소된다. 그중 봉화도촌리, 예천 성현리, 의성 미천리는 여타 고분군과 달리 복수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한·두기의 대형분만이 조성되었는데⁹⁾ 봉분의 형태가 비상식적으로 타원형인 경우도 있어 고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주 이조리·용장리의 고총은 통일기 석실묘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고총을 통해 확인되는 신라의 거점은 58개소인데 이를 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 11]이다.

신라 지방 행정조직인 52읍락과 앞서 검토한 고총 분포를 결합해 보면, 경주 월성북고분군과 금척리고분군과 같은 초대형분이 존재하는 곳은 신라 중앙의 6탁평에 해당하는 핵심 권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월성북고분군은 복수의 부가 공동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장기명 2024), 금척리고분군은 모량부 수장층의 중심 고분군으로 특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주지역에는 다수의 20m급 고총이 분포하며, 안계리고분군 역시 그 대표 사례로서 6탁평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이희준 2007: 192~194; 최병현 2021: 94).

이러한 구분을 적용할 경우, 지방 거점으로 기능한 고총고분군은 총 55개소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25m급 고분은 고총고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지만, 20m급의 경우에는 봉토 직경이 18m 내외에 그친 사례(상주 북장리, 상주 상현리, 대구 신용동)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별도의 지역단위로 묶일 수 있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총고분군의 수는 52개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확정하지는 않겠다.

기록과 금석문을 통해 확인되는 신라 마립간기의 행정조직은 성·촌으로 지칭되는 지방통치 목적의 행정 단위를 기본 구조로 하며, 이들 가운데 3개의 성·촌이 군명 없이 형식적으로 군에 편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성과 촌의 구분은 성곽 시설의 존재 여부에 따른 공간적·기능적 구분에 해당하며(이수훈 2016: 101~109), 이를 곧바로 상하관계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정치·경제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각 지역 집단 간 일정한 위계적 차이나 영향력의 편차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9) 이들은 신라후기 석실묘일 가능성도 있지만 고총 축조가 끝나가는 시점 고총고분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한·두기만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5m급 이상 고분】

*중앙
I:경주 월성북고분군
II:경주(건천) 금척리

- *지방
A:영주(순흥) 읍내리·내죽리
B:예천(영해) 발영리
C:영덕(영해) 발영리
D:안동(임하) 임하리
E:예천(지보) 도화리
F:의성(다인) 양서리·덕미리
G:의성(점곡) 송내리
H:상주 병풍산고분군
I:의성(금성) 금성산고분군
J:구미(해평) 낙산리
K:구미 황상동
L:포항(신광) 흥곡리·냉수리
M:영천(신녕) 화남리
N:영천 완산동
O:경산 임당동·조영동·부적리
P:대구(동구) 불로동
Q:대구(북구) 구암동
R:대구(서구·남구) 비산동·대명동
S:대구(화원) 성산리
T:성주(월향) 용각리
U:성주 성산리
V:성주(금수) 명천리
W:창녕 교동·송현동
X:창녕(계성) 계성리
Y:양산 북정동
Z:부산(연제) 연산동

a:봉화 도촌리
b:예천(용문) 성현리
c:의성(구천) 미천리

【20m급 고분】

1:울진 읍내리, 2:예천(감천) 포리, 3:예천(용궁) 향석리, 4:문경(영순) 왕태리, 5:문경(산양) 현리, 6:문경(마성) 신현리, 7:안동(서후) 저전리, 8:안동(동산) 회곡리·막곡리, 9:안동 태화동, 10:안동(일직) 조팔리, 11:상주(함창·이안) 신흥리·이안리, 12:상주(중동) 회상리, 13:상주(중동) 우물리, 14:상주(내서) 북장리, 15:상주(청리) 청하리·월로리·원장리, 16:상주(낙동) 유곡리, 17:상주(공성) 산현리, 18:보은 대야리, 19:영양(입암) 신구리, 20:포항(청하) 고현리, 21:구미 도량동, 22:칠곡(약목) 북성리, 23:칠곡(기산) 영리, 24:영천(청통) 대평리, 25:대구(북구) 신흥동, 26::대구(다사) 문산리·죽곡리, 27:대구(현풍·유가) 성하리·양리, 28:경주(강동) 안계리, 29:경주(내남) 이조리·용장리, 30:울산(북구) 중산동, 31:울산(상북) 천전리, 32:울산(웅촌) 대대리

[그림 11] 토기를 통해 본 신라(6세기 전엽)의 영역과 지방 거점(성·촌)

당시 지방 유력자의 위상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역역의 부담 수준(주보돈 2007: 157~158)과 중앙에서 파견된 군지휘관의 역할 및 권한 범위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남혜민 2024: 73~98).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라의 군 단위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기능과 위상에 따라 일정한 수준 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군 단위 최상위 고분군 간에도 위계적 차등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군 내부에서는 유사한 위상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인접한 두 유력집단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정치적 운영 방식(주보돈 1996: 34)의 실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라 지방에는 의성, 성주, 창녕과 같이 봉토 직경이 40m에 육박하는 대형 고총이 확인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의성은 후대에 최초의 소경이 설치된 지역이며, 창녕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방 거점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어 이후 주로 승격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방양식 토기 분포권과 비교할 때 보다 광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며, 단순한 지방 거점을 넘어 상위 단계의 중핵적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조직은 단일 구조가 아니라 최소 3단계 이상의 중층적 위계 구조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후대 행정구역 체계에서 상주(의성), 양주(창녕), 한주(성주)로 정리되는 핵심 지역들에 최고 위계의 고총이 집중적으로 축조된 점은, 이들 지역이 지방통치 구조 내에서도 상위 단계의 거점 기능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마립간기 신라의 거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확인된다. 첫째, 접경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거점이 거의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둘째, 대다수의 고총고분이 낙동강 본류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분 규모 기준을 약 15m급으로 설정하고 주요 교통로를 기준으로 연결망을 구성해 보면(그림 12)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신라의 지방 거점은 단순한 균등 분포가 아니라 핵심 하천 교통축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보이며, 접경지보다는 내륙 수운망을 따라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에서 확인되듯이 신라 영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김해 일대와 그 주변, 그리고 금강·한강 유역에서는 고총으로 대표되는 지방 거점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신라의 지방통치 방식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주보돈 1996: 29~31).

즉 해당 지역들은 형식적인 공납을 통해 신라에 신속된 상태였거나, 기존 유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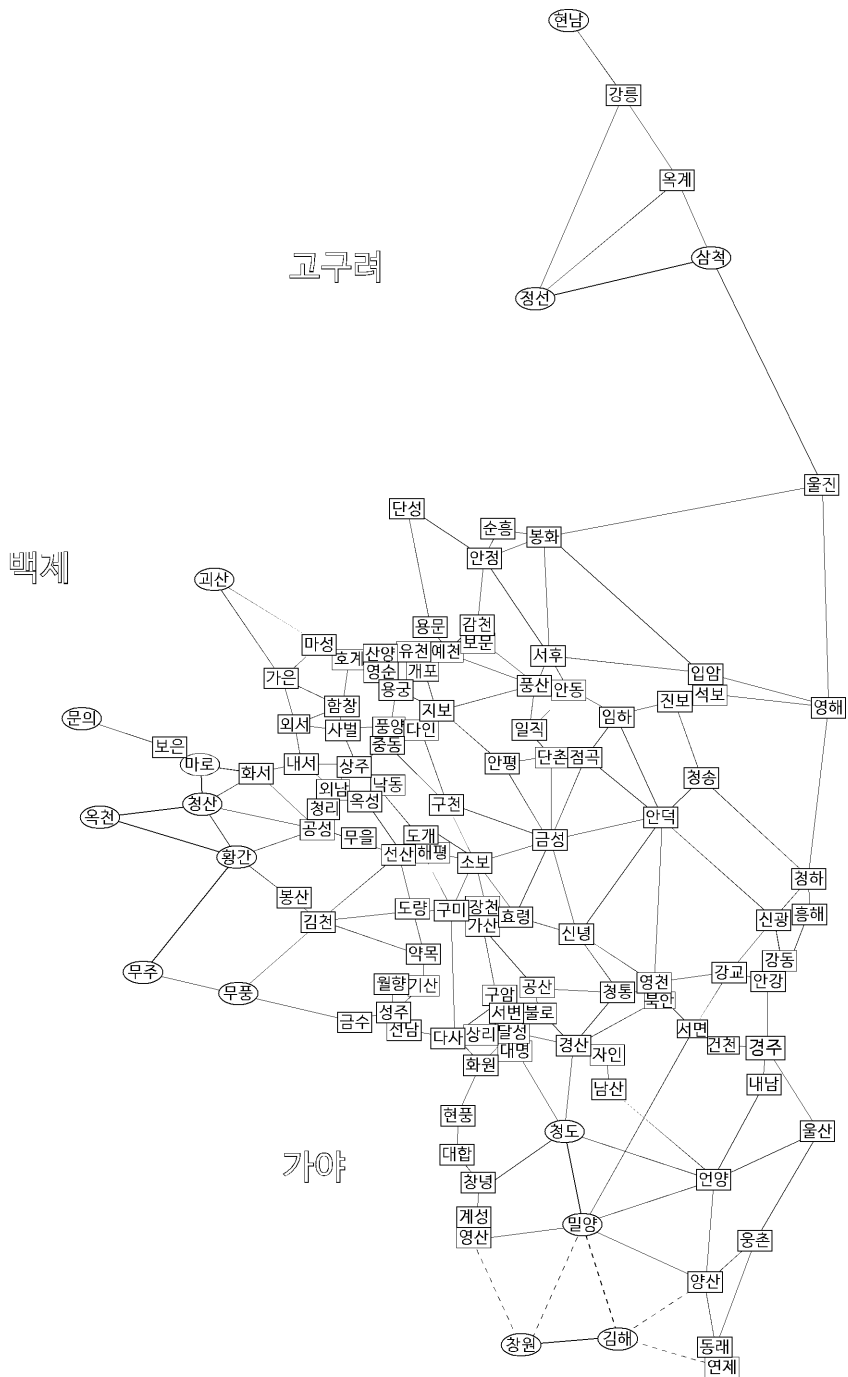
력이 중앙에 의해 재편되었거나, 유력집단이 중앙으로 이주 되었거나, 혹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군관이 직접 상주하는 방식으로 통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 금관가야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일정한 정체성이 유지된 김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었으나 고층이 축조되지 못한 밀양과 청도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유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고구려와의 접경에 위치한 금강 및 남한강 일대와 동해안 북부 일대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마지막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에서 고층이 축조되지 않은 배경에는 해당 공간이 신라의 ‘지방(민)’이라기보다 ‘피복속지(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거리감과 적대적 인식이 중앙 지배층 내부에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주보돈 1996: 29). 특히 동해안 북부와 금강·남한강 일대는 마한 또는 예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던 지역으로, 진한계 소국들과도 장기간 다른 문화권을 형성해 온 탓에 신라의 지방 질서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층이 축조되는 지역은 신라의 지방민으로서의 의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된 영역으로, 5세기 후반 이후에는 중앙에서 도사(道使)가 파견되고, 해당 행정 성·촌의 촌간에게 외위(外位)가 수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주보돈 1996: 46). 또한 이들 지역은 토산물 공납을 넘어 성곽 축조를 위한 역역이 부과되는 등 보다 직접적인 통치 행위가 적용된 공간으로 이해된다.

반면 고층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은 다양한 통제장치를 통해 간접 지배가 이루어진 영역으로, 신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의 관리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주보돈 1996: 34). 이처럼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간접지배와 초보적 직접지배가 병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결국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개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는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를 통해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구조와 연결망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앙의 표준화된 의례 체계가 지방으로 확산



[그림 12] 마립간기 신라의 연결망

(□:봉토 지름 15m 이상 고분이 확인되는 동면, ○:봉토 지름 15m 이하 고분이 최대형분인 시군)

하는 과정에서 토기 생산·고총 축조·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적 네트워크 기반의 차등적 통합 정치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신라 영역 인식 및 고총 활용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라양식 토기는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에 걸쳐 중앙의 의례 및 생산 규범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핵심 물질 자료로 이해된다. 분포 양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낙동강 하류에서 시작하여 상류, 중류 및 나아가 소백산맥 넘어 남한강·금강 유역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전개를 보인다.

특히 5세기 중엽은 낙동강 본류의 통합적 지배가 확립되는 전환기로, 이후 수운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재편과 함께 지방 거점의 형성, 고총 축조, 토기 생산체계의 표준화가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중앙양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통과 결합한 다양한 변형양식을 지속해서 생산하며 선택적 통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고총 분포 분석에 따르면 마립간기 신라는 단일 중심 체제가 아닌 다층적 위계를 지닌 광역정치체로 이해되며, 『양서』의 “6탁평 52읍록”으로 표현된 지방 52개의 지방 거점 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직경 20m 이상의 고총이 조성된 고분군의 수가 이와 대체로 부합함이 확인되어, 지방 거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지배는 다양한 방식이 차등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토기 생산, 고총 축조, 의례 체계,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네트워크 구조로 이해되며, 단일 체제가 아닌 다층적 통합 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토기 분포라는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연결망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총과 생산체계,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거점의 위계 구조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신라 마립간기 지방조직을 물질 문화의 표준화와 의례 체계 확산을 통한 정치 통합 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투고일 2026. 4. 29 | 심사완료일 2026. 5. 22 | 게재확정일 2026. 5. 27

- 고상혁, 2022, 「신라토기 경주양식 분포권과 교통로」, 『한국상고사학보』117,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3, 「4~6세기 영남지역 저상부장묘(低床副葬墓)의 고고학적 함의」, 『영남고고학』 97,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4, 「신라양식 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6, 「신라국가의 기념물로서 신라양식 토기의 출현과 분포 배경: 사단각고배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132, 한국상고사학회.
- 김대환, 2012,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과 신라 토기의 확산」, 『中央考古研究』11,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두철, 2014, 「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 김용성, 1997, 『대구·경산지역 고총고분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신라 고분 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_____, 2016, 「마립간 시기Ⅱ-지방-」,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자료집3, 경상북도.
- 김주용, 2007, 『昌原地域 古墳의 推移와 性格』,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김창석, 2016, 「신라의 산업과 경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연구총서 10, 경상북도.
- 김태식·조효식 외, 2008,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남혜민, 2024, 『麻立干期 신라의 지방통치 강화 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文學博士學位論文.
- 李盛周,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72, 韓國考古學會.
- 이성주, 2012, 「마을(村落)과 都市에 관한 考古學의 論議」, 『고고학』11-2, 중부고고학회.
- _____, 2020, 「신라토기의 성립과 부장토기의 선택」,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이수훈, 2016,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연구총서3, 경상북도.
- 李元太, 2022, 『嶺南地域 原三國時代 土器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현상, 2009, 「金工品으로 본 5~6世紀 昌寧地域의 政治的 動向 -金屬製 裝身具의 分析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창녕군
- 이희준, 2005, 「4-5세기 창녕 지역 정치체제의 읍락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37,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장기명, 2024, 「월성북고분군의 변천과 마립간기 6부의 내부 조직」, 『한국고고학보』132, 한국고고학회.
- 주보돈, 1996, 「敵立千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嶺南考古學』19,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7,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 _____, 2016,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연구총서2, 경상북도.
- 최병현,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_____, 2022, 『신라토기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高橋美久二, 1998, 「古代の交通」, 『古代史の論點』3:都市と工業と流通, 小學館.

Territory and Local Governanc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Ko, Sang-Hyeok (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illa-style pottery is a key archaeological indicator that most clearly reflects the identity of the Silla state, and its continuous distribution range can be understood as corresponding to the extent of Silla's territory. Based on this, the western and northern boundaries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are identified as a line connecting Changwon – Changnyeong – Daegu – Seongju – Muju – Yeongdong – Okcheon – Cheongwon – Goesan – Danyang – Jeongseon – Ya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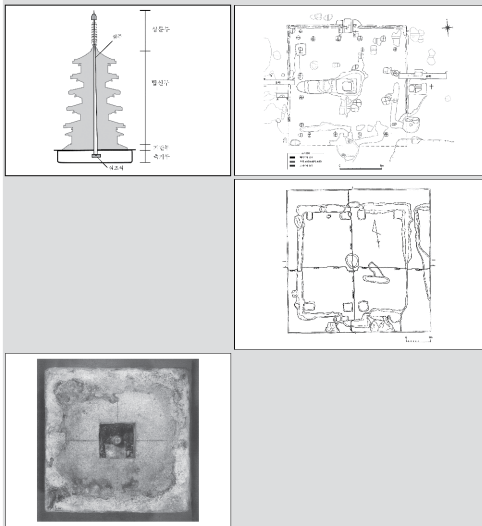
The High-mound Tomb found within Silla's territory were symbolic monuments of the leaders of local political entities that maintained close political ties with the central authority during the Maripgan period, and they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strict regulations. Therefore, tombs with a diameter of over 20 meters, in which the highest-grade prestige goods were buried in provincial Silla, can be regarded as archaeological indicators of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seong(城) and chon(村). Their total number is 51, which appears to correspond to the 52 local administrative units recorded as “eupneuk(邑勒)” in the Chinese text Liangshu(梁書), thus reflecting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Silla in the early 6th century.

High-mound tombs are not evenly distributed. Regions where such tombs were built likely experienced substantial direct governance, including the stationing of local officials, the granting of woewui(外位), and the mobilization of labor. In contrast, regions without such tombs were governed indirectly through various control

mechanisms. Thus, governance in Silla's provinces was carried out in a differentiated manner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In this way, the distribution of Silla-style pottery and High-mound Tombs allows us to understand the territorial extent and local governance structur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Key words : Silla, Maripgan, pottery, High-mound Tomb, Local Organization



백제 목탑 축조기법과 변천양상 연구

Construction Techniques and Developmental Patterns of Baekje Wooden Pagoda

소재 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장

I. 머리말

II. 백제와 주변국 목탑지 비교검토

III. 백제 목탑지 축기부와 심초석 변천양상

IV. 맺음말

국문요약

목탑은 고대 사찰 건축물 연구에서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연구 대상이다. 특히 한국 목탑 중 이른 시기부터 축조되어 건축적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단연 백제 목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 목탑은 목조건축의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유실되고 그 터만 잔존하기에 편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화사적 해석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과 재분석을 위해 목탑지 변화의 속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목탑 축기부와 심초석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그 변화양상을 유추하였다.

백제 목탑 축기부는 구축방법에 따라 지상삭토형, 지상성토형, 굴광판축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부여 능산리사지 등 대부분은 굴광판축형에 포함된다. 지상성토형과 지상삭토형은 부여 군수리사지와 부소산폐사지의 목탑지 유형으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지상성토형은 군수리사지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지상삭토형인 부소산폐사지 목탑지는 엄밀히 보면 지상성토형과 별반 차이가 없어 이를 별도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초석은 시설 위치에 따라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는데, 목탑 내 사도 설치 여부도 이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심초석 위치 변화는 사리기를 안치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초기에는 심초석 주변 혹은 별도의 사리함에 매납되다가 왕흥사지 축조 전후한 시기에는 별도의 사리공이 마련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아스카데라(飛鳥寺) 목탑이 건립될 무렵에는 심주 바로 아래인 심초석 중앙으로 사리공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처럼 심초석이 변화하게 된 주요 이유는 목탑 건축기술의 변화로 심초석이 지상에 위치하게 되면서, 목탑의 건립 목적인 사리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목탑 축조기술의 유형 분류를 통해 분석하면, 심초석이 확인되지 않은 용정리사지나 심초석 구덩이만 확인된 금강사지, 부소산폐사지 목탑지는 기존에 제시된 축조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심초석만 확인된 전 구아리사지 목탑지는 본 연구의 유형 분석에 따르면 늦어도 7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 백제, 목탑지, 축기부, 심초석, 사리공, 축조기법

I . 머리말

사찰에서 목탑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찰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건축물이다. 비록 백제 사찰 중 부여 동남리사지와 같이 탑지가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찰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당과 중문 사이 중심에 목탑 혹은 석탑이 자리한다. 대체로 백제 석탑은 부여 정림사지와 익산 미륵사지를 보면 사비기 후기에 조성되는 점으로 미루어 목탑보다 후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목탑은 삼국시대에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 점차 석탑으로 발전되어 가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축조되는 사찰의 중심 건축물이기도 하다.

백제 목탑지는 사찰에서 중요한 건축요소로서 다뤄진다. 그러나 목탑지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을 보면 탑 평면배치 등을 통한 건축적 복원 연구 혹은 가람배치 연구 등에 편중되어 온 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부여지역에 왕흥사지 등 목탑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목탑지의 건축학적 연구에 더해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이 가미된 시론적 연구(정자영·탁경백 2007; 조원창 2008)들이 뒤이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각 유적별 축기부 축조기법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축조기법에 따른 전반적인 추이를 알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제 목탑 축조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목탑지에 대한 편년연구는 기와 연구 등을 통한 사찰 편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단독연구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경향도 있어 축조기법에 따른 고고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방법처럼 기년명 자료와 연화문수막새 등 유물을 중심으로 편년을 구할 것이나, 더불어 심초석의 형태적 특징도 살펴 백제 목탑 축기부와 심초석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제 목탑지로 평가되는 유적의 사례와 함께 신라와 일본 등 동시기 목탑지 조사 사례를 통해 축조기법을 비교하여 그 기술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고대 목탑지는 발굴조사에서 기단부 혹은 지하 축기부만 확인되기 때문에 상부 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연유로 현재 잔존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양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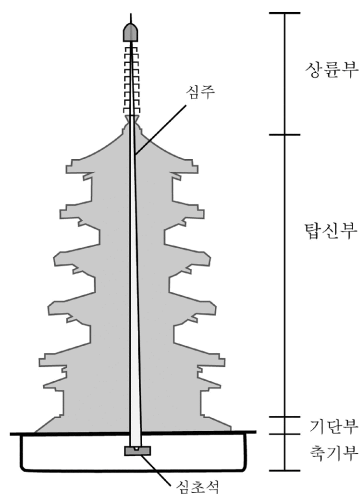
Ⅱ. 백제와 주변국 목탑지 비교검토

1. 백제 사비기 목탑지

『三國史記』에 의하면 불교가 백제에 전래된(384년) 후 한산에 불사가 창건되면서 본격적인 사찰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한성기에 해당하는 사찰유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예제건축물로 추정되는 지상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을 뿐이다(소재운 2023). 또한 웅진 천도 후에는 대통사 및 흥륜사, 수원사 등이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사비 천도 후 부여 일대에서 조성된 사찰 등을 통해 백제 건축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시기는 사비기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탑 구조는 크게 상부의 상륜부와 탑신부,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하부의 기단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단부는 상부에 노출된 기단과 지하에 기단토를 조성한 축기부(軸基部)를 합하여 총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부 속성별 변화를 유추하기 위해 초석 혹은 지상식 심초석이 위치한 기단 상면에서 지면까지를 목탑 기단부로, 지면에서 굴착된 지하 바닥면까지를 축기부로 구분하고, 이 축기부와 심초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축조기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단부와 축기부의 분리는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 토층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3). 이는 목탑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토제를 기준으로 성토양상의 차이가 드러나 대지조성 단계별 축조공정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다.

사비기 건물지 기단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기존에 건축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단 외장재료에 일차적 기준을 세우고 재분류하면서 이루어졌다(趙原昌 2002, 소재운 2004), 이후 사찰 기단 연구사례(김혜정 2010)에서는 기단토 구축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굴광판축형과 지상성토형, 지상삭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림 1] 목탑 구조 모식도

축기부 형식분류가 비로소 세부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뒤이어 진행된 연구(정자영·탁경백 2007)는 목탑지 축기부 구축방법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지상성토형, 굴광관축형, 지상삭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1]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백제 목탑지를 속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목록이다. 먼저 목탑지 축기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백제 사찰 축기부는 굴광관축형으로 축조되었고, 부여 군수리사지와 부소산폐사지만 상이한 축조방법을 보인다. 굴광관축형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깊이가 0.6~3.43m 사이로 잔존양상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가장 깊게 잘 남아 있는 굴광관축형은 익산 미륵사지 중원 목탑지와 부여 용정리사지 목탑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목탑 기반은 굴광된 기초부 내부에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차하면서 관축한 결과 단단한 지반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굴광관축형은 굴착방법에 따라 계단식 굴광방법, 비대칭 굴광방법, 모서리계단 굴광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배병선 2016). 계단식 굴광방법은 지하 터파기를 위해 계단상의 굴착방법에 따라 굴착 후 관축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부여 용정리사지 등을 들 수 있다. 비대칭 굴광방법은 한쪽 측면과 맞은 편 측면의 굴착 각도가 각각 다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미륵사지 중원 목탑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중원 목탑지 뿐만 아니라 서원과 동원 석탑 기초부에서도 확인되어 유적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 시공방법이다. 모서리계단 굴광방법은 익산 제석사지 목탑지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사례로 목탑지 모서리에 경사진 작업통로를 마련하여 굴광한 방법이다.

특히 익산 미륵사지 중원 목탑지는 최근 발굴조사를 토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양한 토목기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탑지는 대지조성 전 1차 비대칭 굴광과 대지조성 후 2차 성토 및 기단부 관축이 이루어졌는데, 1차 굴광선 가장자리에 토제(土堤)가 확인되어 산성과 고분에서 확인되는 토목공법이 미륵사지에도 사용되었다. 기초부 바닥은 사역 내부를 관통하는 암거시설과 할석층이 설치되었다.

지상삭토형으로 분류된 유형은 부소산폐사지가 유일하다. 이 유형은 목탑지 기초부 조성을 위해 풍화암반을 일부 삭토하였지만 성토됐던 기단부 조성까지 감안한다면 지상성토형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조성방법은 단단한 고토양 혹은 풍화암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굴착 공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백제 목탑지 축기부를 지상성토형과 굴광관축형으로 단순 분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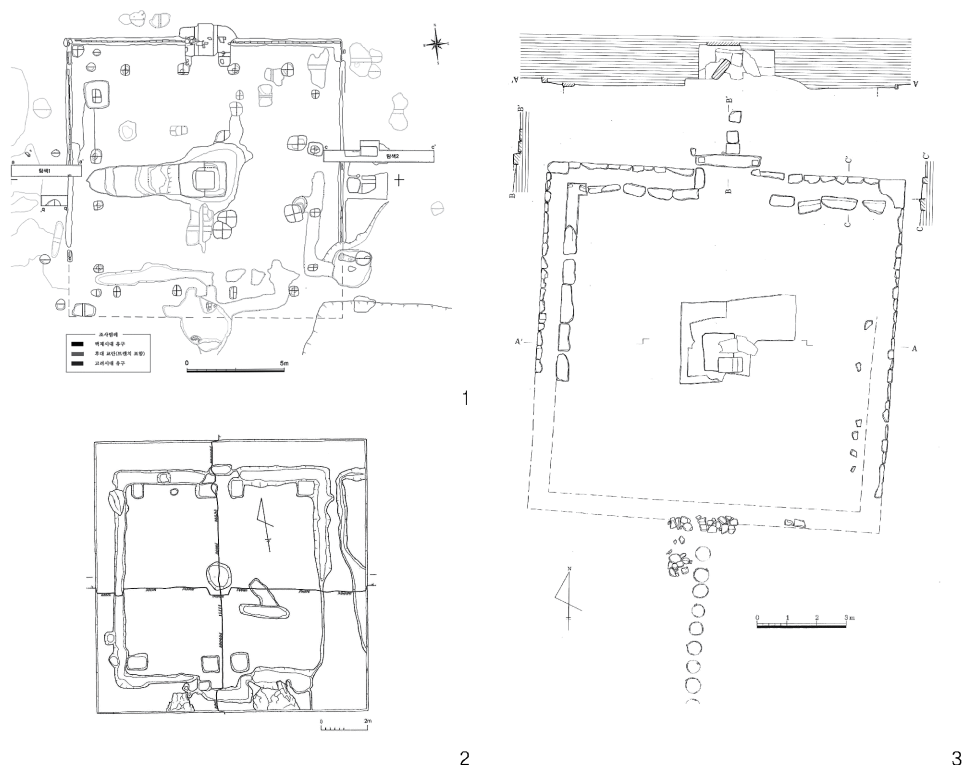
[표 1] 백제 사비기 목탑지 현황

연번	유적명	기단	기단규모 (m/하층)	축기부 (m/굴광깊이)	심초석(m)	심초석 주변 출토유물
1	부여 군수리사지	전축— 단층	14,14×14,14	지상성토형	방형 (0,94×0,94×0,45)/ 지하/사도	금동미륵보살입상, 칠지상철기, 석조여래좌상, 금고리, 소옥류 등
2	부여 금강사지	석축— 이층?	14×14	굴광판축형 (0,6)	지상추정/심초석공?/ 사도?	나뭇가지 상자용기
3	부여 능산리사지	석축— 이층	11,7×11,7	굴광판축형	장방형 (1,3×1×0,5) /지하/ 사도추정(교란)	석조사리감, 금사, 소조불상, 문양금동판, 금은장식, 유리구슬 등
4	부여 부소산 폐사지	석축— 단층	8×8	지상성토형	반지하 혹은 지상 추정— 심초석공?	금동제과대장식
5	부여 용정리사지	유실— 이층?	18,5×18,5	굴광판축형 (2,0)	지상추정	—
6	부여 왕흥사지	석축— 단층?	14×14	굴광판축형 (0,6)	방형 (1,1×1×0,45)심초석— 지하/ 사리공(16×12×16cm/ 장방형)/사도	청동제사리합, 은제사리호, 금제사리병, 금은동제 장신구, 관모장식들 등 다수
7	익산 미륵사지	석축— 이층	19,4×19,4	굴광판축형 (3,4)	지상추정	—
8	익산 제석사지	석축— 이층?	21,2×21,2	굴광판축형 (1,3)	(방형)/지상/ 사리공(장방형)/ 작업통로	불사리, 수정병, 금강바야경, 목칠함(관세음응험기)
9	익산 대관사지	유실	(15×15)	굴광판축형 (0,3)	지상추정	—
10	부여 전 구아리사지	—	—	—	방형/사리공(방형)	심초석만 잔존

한편 익산 대관사지(왕궁리유적) 목탑지는 그 성격이나 위치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보고서 기준에 따라 대상에 포함하였고, 부여 전 구아리사지도 사찰 건물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초석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현황 목록에 포함하였다.

목탑지 기단은 대부분 석재를 이용한 석축기단이며, 부여 군수리사지에서만 예외적으로 전돌을 사용한 전축기단이 사용되었다. 군수리사지의 금당지는 암키와를 사용한 평적식, 합장식, 수직횡렬식 등 거의 모든 와적기단 축조방식이 보인다. 그러나 목탑지에서는 전돌을 일렬로 세운 수직횡렬식만 확인되어, 기단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사지의 목탑지는 모두 석축기단으로 조성되었는데 상부의 구조물이 대부분 유실되어 단층인지 이층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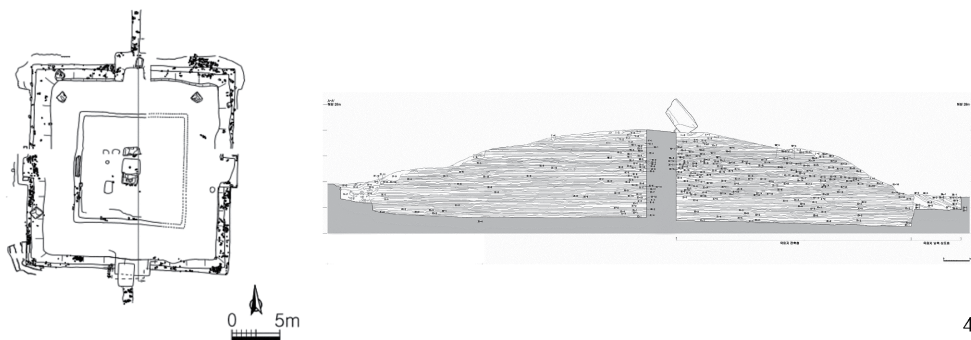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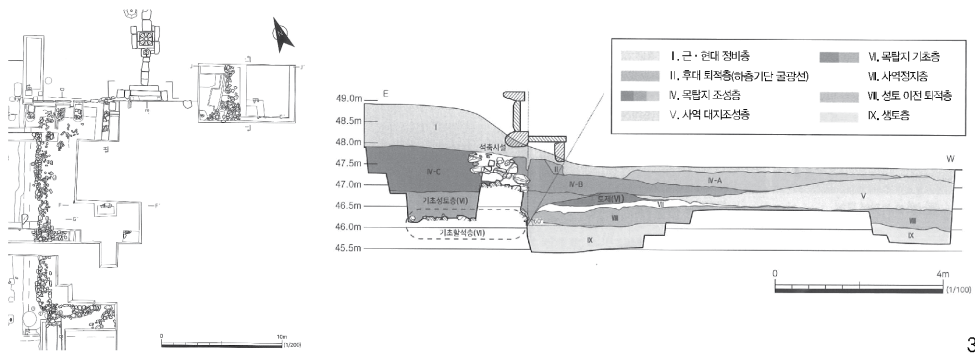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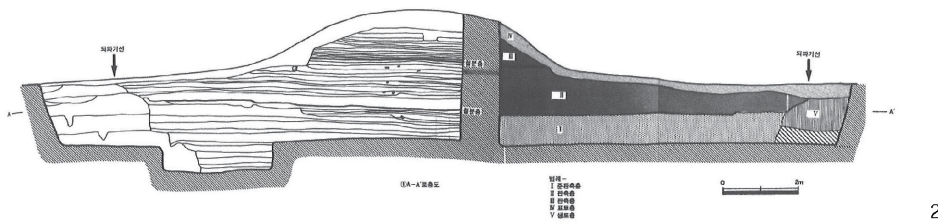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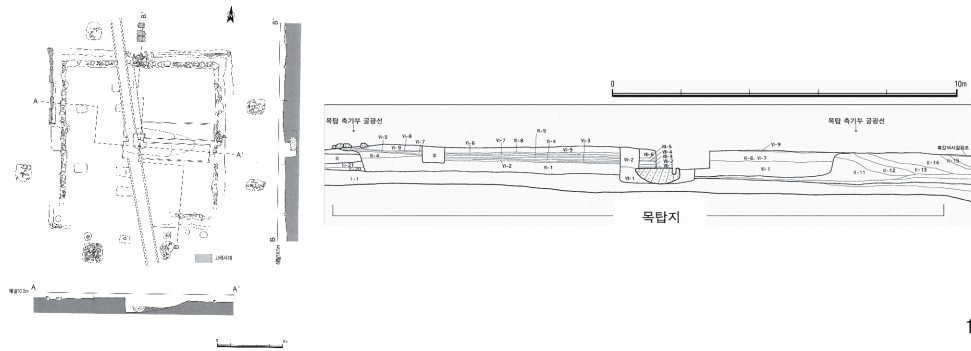
사지 목탑지 역시 기단석은 유실되었으나 잔존 기단토 높이와 계단지, 동서 석탑 등을 통해 이중기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 부여지역 백제 목탑지 평단면도(1. 군수리사지, 2. 부소산폐사지, 3. 능산리사지)

심초석은 목탑의 중심 기둥인 심주를 받치고 사리기를 보호하는 초석으로써 석재 가공 형태에 따라 정방형, 장방형, 팔각형, 원형, 부정형 등 다양한 편이다. 백제 심초석은 그중에서 윗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정방형 평면이 대부분으로, 이곳에 심주와 사리함 등이 놓이게 된다. 심주가 위치한 자리에는 황룡사지처럼 주좌흔이 잔존한 경우도 있다. 심초석 내 마련된 깊은 홈은 사리기를 안치하기 위한 사리공으로 불리고 있다. 보통 심주와 사리공이 하나의 석재에 자리하고 있어 ‘심초석 겸 공양석’으로 칭하기도 한다(조원창 2018). 사리공은 윗면 안쪽에 이중 턱을 두어 사리공에 사리함을 안치한 후 뚜껑돌을 얹도록 한 경우도 있다.

심초석은 설치 위치에 따라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류형균 2012), 반지하식 대신 지표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정수 2004). 설치 위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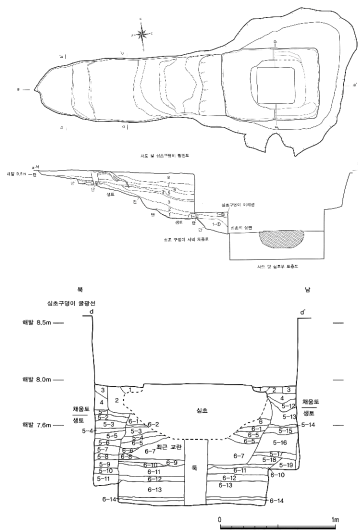
[그림 3] 부여와 익산지역 백제 목탑지 평단면도
(1. 부여 왕흥사지, 2. 부여 용정리사지, 3. 익산 미륵사지, 4. 익산 제석사지)

해 부연하면, 지하식은 말 그대로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한 유형이고, 반지하식은 기단토 하부 구지표면에 심초석이 설치된 유형이다. 두 유형 모두 땅 속에 묻혀 있어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유형이다. 반면 지상식은 심초석이 기단 상면에 놓여 지상으로 노출된 유형이다. 이렇게 분류된 심초석은 유적에 따라 (반)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보이므로, 관련 연구(김정수 2004; 정자영·탁정백 2007)는 이에 따라 심주 위치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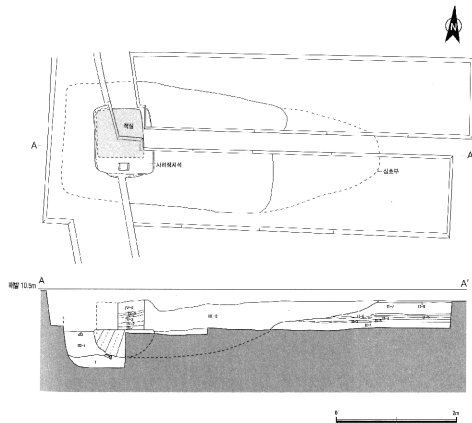
지하식 심초석은 부여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설치하기 위해 사도(斜道) 혹은 심초구덩이를 만든 사례가 확인된다(그림 4). 사도 방향은 각각 서편 혹은 동편 측면에서 경사져 내려가는 양상이다. 사도(斜道)라는 용어는 심초석을 놓기 위한 경사진 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군수리사지 조사 사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를 보면 크고 작은 단이 7단 정도 마련되면서 깊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범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능산리사지는 심초석이 목탑지 중앙부 기단토 상면에서 1.14m 깊이에 위치하여 어떤 방향에서든 사도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굴조사 보고서(國立扶餘博物館 2000)에 의하면 교란된 구덩이만 기단토 상면에서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한편 군수리사지에서는 사도와 별도로 심초구덩이가 설치되기도 한다. 왕흥사지 심초석은 사도 바닥에 그대로 안치되었지만, 군수리사지는 심초자리만 깊게 재굴착된 상태에서 성토다짐 후 심초석을 안치한 양상이 토층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의 백제 심초석 하부에는 적심이 따로 보이지 않고 상부에도 별도의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왕흥사지는 심초석 상면에 적심토로 사용되었을 법한 $0.8 \times 0.8\text{m}$ 크기의 정방형 점토가 깔려 있어 그 상부에 또다른 심주 초석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b). 이 점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중앙에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심주석과 이를 받치는 심초석이 위치하고 이를 각각 구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이 경우에도 심초석 하부에 별도의 적심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익산 미륵사지 동서탑과 금당지 또는 익산 왕궁리유적 금당지와 강당지 등에서 토석혼축의 적심시설 혹은 기단토가 확인된다. 보통 이러한 적심시설 및 기단토 양상은 경주 황룡사지 등 신라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백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드문 편이기 때문에 후대 개축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 축기부 하층 등에서 통일신라 이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토석혼축의



1



2

[그림 4] 백제 목탑지 내 사도(斜道)와 심초석(1. 부여 군수리사지, 2. 부여 왕흥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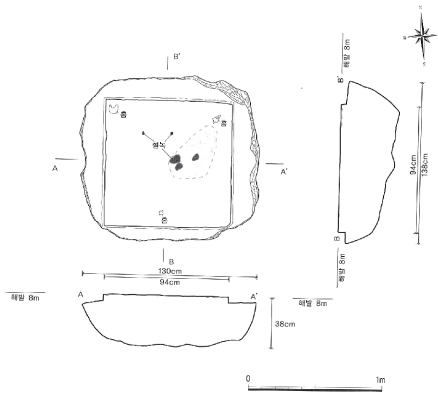
다짐층 조성방법은 이 시기에 백제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연구자들은 부여 금강사지를 지하식 심초석 유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탑지 중앙에 심초석공과 사도로 추정되는 굴착흔만 확인되었다. 관련 연구(국립부여박물관 2023)에 의하면 금강사지 심주는 심초석공이 좁고 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굴립주 방식으로 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본의 닌지하이(尼寺廢寺) 심주 설치방식을 유사사례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부여 군수리사지 등과 비교해 볼 때 심초석을 안치하기 위한 사도로 보기에는 급경사인 점과 백제에 이와 유사사례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추정은 무리라 판단하였다. 금강사지에 심초석이 존재했었다면, 축기부 형태는 사도가 없는 전형적인 굴광관축형이기 때문에 심초석은 기단토 상면인 지상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금강사지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재건과 개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어, 해당 흔적은 후대에 심주 교체로 인한 굴착흔 혹은 축조방식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에 반지하식 심초석은 단단한 지반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단토 중간에 설치된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이 유형으로 분류된 백제 목탑지는 부여 부소산폐사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부소산폐사지 심초석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목탑지 중앙 기단토에 구덩이가 확인되었고, 이를 심초석이 빠진 자리로 조사자들이 인식하면서

반지하식으로 분류하게 되었다(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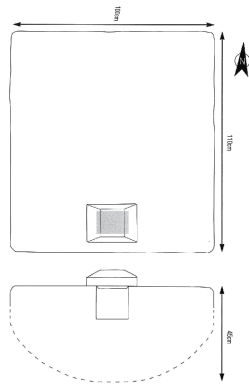
지상식 심초석은 기단 상면에 심초석을 안치한 유형이다. 백제에서는 익산 제석사지와 미륵사지, 부여 용정리사지를 지상식 심초석이 사용된 유적으로 추정(卓京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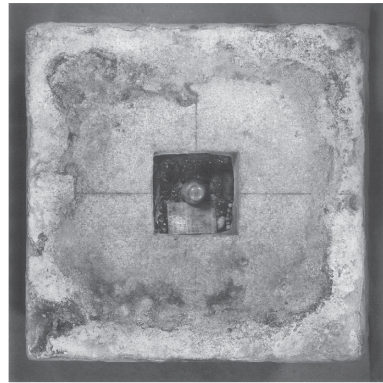
1



2



3



4



5



6

[그림 5] 부여와 익산지역 백제 각종 심초석

(1. 부여 군수리사지, 2. 부여 능산리사지, 3. 부여 왕흥사지, 4. 익산 미륵사지 서탑, 5. 익산 제석사지, 6. 부여 전 구아리사지)

2011)하고 있으나 심초석이 기단 상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예는 제석사지에 불과하다. 지상식 심초석은 노출된 위치 특성상 유실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해당 유형의 목탑지에서는 심초석과 사리기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초석 상면에는 심주자리 외에 사리공을 만들기도 한다. 보통 사리공에는 목탑의 정수인 사리기를 안치하는데, 이것이 사리공을 만드는 목적이기도 하다. 부여 왕흥사지는 여기에서 금제사리병과 은제사리호, 청동제사리합 등이 발견되었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사리공에서도 화려한 사리장엄구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부여 군수리사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심초석의 정확한 양상을 알기 어려우나 조사기록(朝鮮古蹟研究會 1937)에 의하면 심초구덩이에서 깊이에 따라 석조여래좌상과 금동보살입상 및 금환, 소옥, 토기, 칠지상 철기 등이 수습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부여 금강사지처럼 사도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심초석이나 공양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지상식 심초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사리공은 심초석 중앙에 위치한 심주와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심주자리와 동일한 자리에 마련되기도 한다. 별도의 사리함을 설치한 사례는 부여 능산리사지가 유일하며, 심초석 중앙의 심주 옆에 ‘창왕명석조사리감(昌王銘石造舍利龕)’을 안치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는 돌을 파서 함을 안치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리공 평면은 대체로 장방형이다. 부여 전 구아리사지 목탑지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지는 심초석은 중앙에 평면 방형의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국립부여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2. 백제 주변국 목탑지

보통 사비기에 축조된 백제 목탑지와 비교하기 위해 주변국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유적은 경주 황룡사지와 일본의 아스카데라이다. 두 사찰 모두 백제에서 직접 파견된 공인이 조영한 건축물인 관계로 백제 목탑의 원형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건축물들은 후대에 계속해서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초창기의 특징을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단연 목탑지라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백제 사찰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사된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비교자료로써 고구려 자료는 제외하였다.

다만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구려 사지는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청암리사지 등이 건립되었고, 목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둘러싼 1탑 2금당 혹은 3금당의 독특한 가람배치를 갖추었다. 또한 고구려 목탑지는 평면 팔각형의 기단을 갖추고 있어 축조 기법에서도 백제와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 황룡사지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원래 진흥왕이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다가 사찰로 변경한 건축물로 선덕여왕의 요청에 의해 백제에서 파견된 아비지에 의해 목탑이 645년(선덕여왕 14년)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진 신라 사찰이다. 황룡사지는 1탑 3금당의 가람배치를 갖추고 있고, 고구려와 달리 일직선상에 남문지-중문지-목탑지-금당지-강당지 순으로 배치된 양상이다. 하지만 과거 트렌치 조사를 통해 선대 건물지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창건기 가람배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金有城 2023). 그럼에도 현재 노출된 목탑지는 역사기록에 백제와의 관련성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 목탑지와 비교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황룡사지 원지반은 1979년 조사를 통해 습지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연지형은 이후에 축조된 백제 미륵사지와도 상통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익산 미륵사지도 습지였던 곳에 대규모 성토를 통한 대지조성으로 사찰 터가 마련되었음이 과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미륵사지 창건과 관련된 기록에는 무왕과 왕비가 사자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던 중 연못가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나 왕비의 청에 의해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반면에 황룡사지는 왕이 월성 동쪽에 신궁을 건축하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나 불사로 개조하고 절의 이름을 '황룡'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삼국사기』에서 전해지는 황룡사 기록에는 연못이나 습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실제 습지가 조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쩌면 왕이 신궁 조성과정에서 지반에 습지를 발견하고 사찰로 전환한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만한 대목이다. 이렇듯 황룡사지 목탑지는 백제 공인에 의한 주도적인 축조가 이루어진 점에서 미륵사지와 건축적인 부분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황룡사지 목탑지는 평면 32×30m 규모로 굴광판축형의 축기부가 구축되었고, 토석혼축 방식을 적용하여 흙으로만 켜켜이 판축하는 백제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초 조성방식은 목탑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당지 등 주요 건물지 기초 하부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이어서 자연환경에 기반한 지역적 특징이 클 것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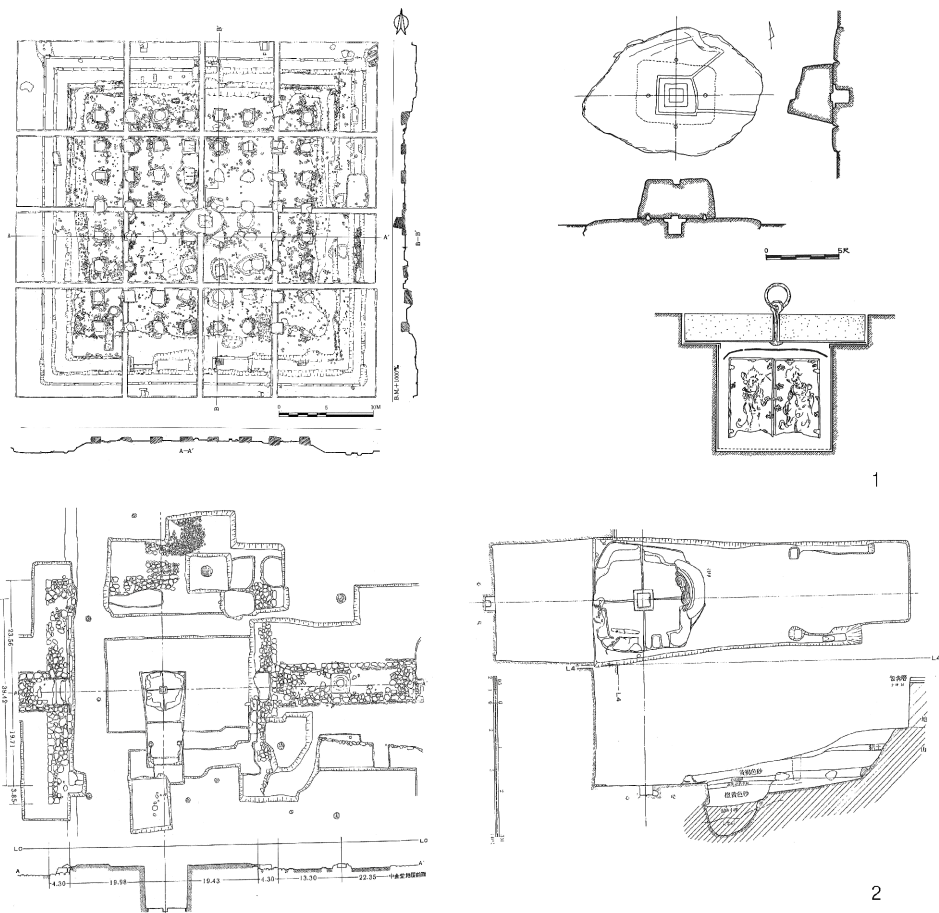
정된다. 기단은 이보다 작은 29.5×29.1m 규모이고, 높이는 약 1.36m인 돌출된 양상이며, 외장은 석조로 마감되었다. 초석이 자리할 곳은 기단토를 되파기 후 적심석을 놓고 그 상부에 초석을 놓는 방식을 취하였다. 목탑 계단지는 특이하게 남면에 3개, 나머지 면에 각 1개소씩 설치되었다.

심초석은 기단 상부인 지상에 위치한다.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4.3×3m의 평면 크기에 1.2m 내외의 두께를 가졌다. 상면 중앙에는 뚜껑돌을 덮을 수 있도록 2단의 홈이 마련된 방형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사리공 외곽으로는 홈(주구)을 돌려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심초 주구 밖으로 원형의 구멍을 마련하여 철제축을 통해 대석괴와 심초 상면이 맞물리도록 하였다. 심초 중심에는 원형 심주의 주좌가 마련된 흔적이 확인된다.

심초와 관련된 공양구는 심초석 하부 적심석과 그 아래 기단토에서 은제고리, 동물형 장식구, 청동거울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심초석에 매납된 사리구는 경문왕 9세 기대에 재매납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심초석에 주좌흔 등으로 미루어 심초석 상부에 놓인 대석괴는 후대에 추가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발굴보고서(문화재연구소 1984: 369)에 따르면 이 대석괴는 고려말 몽골에 의한 목탑 화재 후 사리구를 보호하기 위한 돌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아스카데라(飛鳥寺) 목탑은 『日本書紀』에 따르면 593~596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스카데라(飛鳥寺)는 위덕왕대에 백제에서 파견된 공인에 의하여 세워진 사찰이고, 이와 비견되는 왕흥사지는 사리기를 통해 위덕왕이 정유년(577년)에 죽은 백제 왕자를 기리기 위해 탑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록된 연대에 따르면 왕흥사 목탑 축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카데라 목탑이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스카데라는 1탑 3금당의 가람배치를 가지고 있어 백제보다 고구려에 가까운 가람배치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기록에는 백제의 직접적인 공인 파견을 명시하고 있고, 기와의 제작양상도 부여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스카데라 목탑지도 백제 목탑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아스카데라 목탑지는 사방을 11m 폭으로 터파기하여 굴광판축하였다. 기단은 한 변 길이 약 12m 폭으로 돌출된 석축기단을 구축했다.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일부가 잔존하여 단층기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단지는 남쪽과 북쪽 2개소만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창건시 심초석을 설치하기 위한 사도는 명확하게 확



[그림 6] 백제 주변국 목탑지와 심초석(1. 경주 황룡사, 2. 일본 아스카데라)

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재건과정에서 사리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용 사도의 흔적은 확인되었다(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58). 그러나 심초석 설치 구덩이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창건시에도 심초석 안치를 위한 사도는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초석은 목탑 중앙에 심초 구덩이를 파낸 후 지하에 위치하게 된다. 심초석을 설치한 후 심주를 세우고 불사리를 매납하였음이 기록에 남아 있고, 실제 심초석 상면에는 찰갑 1벌 외에도 사행철기, 금환 등 금동철제품과 유리소옥 등이 다수 출토된 바 있어 기록과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한 아스카데라 목탑은 『日本書紀』에 의하면 건구(建久) 7년(1196년)에 소실된 후 사리구를 재매납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실제 발굴

과정에서 심초석으로부터 1.8m 높이에 화강암 2매로 사리를 매납한 석함이 발견되기도 하여 이와히 연관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심초석은 평면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갖췄고, 상면 중앙에 방형 사리공이 위치하며 그 주변으로 물빠짐을 위한 홈이 마련되었다. 심초석 크기는 2.6×2.4m이고, 두께는 0.5m이다. 심초석이 설치된 후 그 주변은 여러 모래층을 켜켜이 다져 충전된 양상이다.

Ⅲ. 백제 목탑지 축기부와 심초석 변화양상

백제 목탑지 축기부는 풍화암반 등 기반토를 일정 깊이까지 굴착한 뒤, 그 내부에 사질토와 점토를 번갈아 가며 다진 양상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라 초기 목탑의 축조 기법과도 유사하지만 성토 재료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군수리사지 등 목탑지처럼 축기부 조성을 위한 굴착은 최소한으로 하되 단단한 원지반을 기반으로 지상관측한 사례도 극히 예외적으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백제 사비기 목탑지에서 보이는 특성들은 백제 주변국 목탑지 특성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 기재된 유적의 순서는 역사기록에서 목탑 축조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자료가 확인된 유적¹⁾과 목탑 심초부 등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선 배치하고 축기부 등 각 속성별 유무를 표시하였다. 이는 순서배열법에 따라 유적을 배치하여 유사 속성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술적·형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군수리사지와 부소

[표 2] 목탑 속성별 순서배열에 의한 유적 현황표

	군수	능산	왕흥	아스카	용정	금강	미륵	제석	대관	황룡	구아	부소
축기부	○	●	●	●	●	●	●	●	●	●		△
심초석위치	▽	▽	▽	▽	▲	▲?	▲	▲	▲	▲		▼?
사리공	□	□	■	■				■		■	■	
사도	◇	◇?	◇			?						

※ 범례: 지상성토형○, 지상삭토형△, 굴광관측형●, 심초석지하▽, 심초석반지하▼, 심초석지상▲, 사도有◇, 사리공有■, 사리공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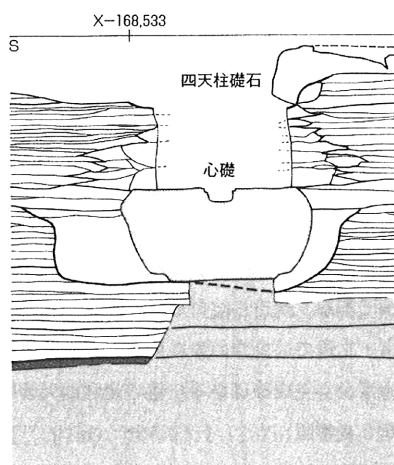
1) 목탑 축조 관련 연대 : 능산리사지 567년(사리감), 왕흥사지 577년(사리기), 아스카테라 593~596년, 미륵사지(600년/639년 서탑 사리봉안), 제석사지 639년(소실), 황룡사지 645년

산폐사지와 같이 특이한 유형은 기존에 제시된 편년을 감안하여 양 끝으로 배치했고, 구아리사지처럼 심초석만 확인되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맨 끝으로 위치를 조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순서를 토대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목탑지의 연대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변화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의 [표 2]와 같이 기술적 유사성에 주안점을 두고 단순 배열한 결과 백제, 신라, 일본의 초기 목탑 축기부는 대체로 굴광관축 방식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축조방식은 백제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초창기 축조기술 아니면 종말기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여 부소산폐사지 목탑지를 지상식토형의 유일한 사례로 제시(김혜정 2010)하기도 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기단석 자리에 국한하여 굴착된 지상성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목탑지 심초석 구덩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당식 대장식구는 형식에 따른 편년상 8세기대로 추정(崔正凡 2022)하고 있어 부소산폐사지 목탑지 건축양식은 금당지 등 다른 건물과 다르게 백제 패망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어 축조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반면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하는지, 지상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목탑 초기에는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부여 용정리사지 이후 사비기 후반에 이르면 익산 제석사지와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 등에서 모두 지상식 심초석이 나타난다. 이는 백제 목탑지의 심초석 위치가 축조시기에 따라 지하에서 점차 지상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자영·탁경백 2007). 또한 이보다 후대에 축조된 고려시대 남원 실상사, 하남 천왕사지 목탑지가 지상식 심초석인 점은 이러한 변화가 결국 지상식 심초석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부여 부소산폐사지 목탑지에서 확인된 중앙 구덩이 자리에 심초석이 사용되었다면, 지상 기단 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하와 지상 중간단계인 반지하식 심초석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으나 백제에 이와 유사사례가 없으



[그림 7] 아마다데라 목탑지 심초석

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강사지 목탑지 경우, 일부에서는 굴립주 설치방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소산폐사지와 금강사지에서 심초석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백제에서 반지하식 심초석 또는 굴립주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일본에서 반지하식 심초석은 7세기 중반 이후에 창건된 야마다데라(山田寺), 코마데라(高麗寺), 닌지하이지(尼寺廢寺)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참고가 된다(그림 7).

결론적으로 부여 금강사지 목탑지는 연화문수막새 형식, 축기부 구조, 지상식 심초석으로 추정, 가구식 기단을 갖춘 형태 등으로 미루어 7세기 초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능산리사지나 왕흥사지 사례를 보면 백제 목탑지의 심초석과 심주가 6세기 후반대까지 지하에 위치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심초석이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전환된 시점은 6세기 4/4분기 이후로 판단된다.

익산 제석사지 목탑지는 사비기 말기에 조영되어 백제 마지막 단계인 목탑의 구조적인 특징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 이곳은 지상으로 돌출된 기단부 상면에 심초석이 올려진 형태여서 주변의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의 대관사지 목탑지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목탑 지상식 심초석에 심주석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미륵사지 서탑 사례를 보면 그 전후한 시기부터 지상식 심초석에 사리공을 마련하고 그 상면을 덮는 심주석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된다.

심초석 위치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여부는 목탑 축기부 구축방식보다 사도(斜道) 설치 여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하식 심초석은 지상성토형 혹은 굴광판축형 축기부 모두에서 확인되지만, 그중 사도가 설치된 경우에만 지하식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업공정상 지반 공정 후 심초석을 안치하기 때문에 이를 깊은 땅속에 매설하기 위해서는 경사진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할 수 있다. 반대로 목탑지에 심초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돌출된 기단이 잔존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보면, 사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심초석이 지상에 위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심초석이 매립된 초기 양식 중에 심초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은 부여 왕흥사지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영된 군수리사지나 능산리사지에서는 심초석에 마련된 사리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왕흥사지 목탑지가 들어서는 577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심초석에 사리공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조원창 2018). 왕흥사지 심초석은 평면 방형에 사리공을 가장자리에 두었고, 심초석을 매납하기 위한 사도의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흥사지는 사도와 사리공

이 같이 보이기 시작한 유적이면서, 이 유적을 끝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사도가 조성되지 않는 경향도 확인된다.

심초석은 사리공이 마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리공이 없는 유형은 부여 군수리사지와 능산리사지를 들 수 있다. 군수리사지 심초석은 사도를 통해 지하에 안치되었고, 그 중앙에 심주를 올려 목탑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심초석 상부에서 불상 2점 등 공양구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제강점기(1935년)에 조사된 관계로 관련 기록이 부실하여 정확한 출토맥락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목탑 중앙에 일반적으로 사리기가 매납되는 사례로 미루어 군수리사지에도 능산리사지와 같은 별도의 사리감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리공이 없는 심초석은 사리기가 들어 있는 함과 공양구들을 심주 주변에 배치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복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부여 능산리사지 목탑지에서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별도의 사리장치 확인된다. 능산리사지 심초석에는 별도의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심주와 함께 덮개가 유실된 화강암제 사리감이 발견되었다. 이 사리감을 통해 567년경에 목탑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심초석 위에서 다양한 공양구도 확인되어 수습된 바 있다. 이렇게 매납된 공양구들은 심초석을 지하에 시설하면서 같이 매납하였고, 그 상부에 다시 흙으로 덮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비기 초기 목탑에는 심초석 중앙에 심주를 세우고 그 주변에 공양구를 매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심초석에 사리공을 마련함으로 공양구와 별도로 사리기만 매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사리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조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공이 심초석 가장자리에 위치한 데 비해, 익산 제석사에서 확인된 사리공이 심초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사리공 위치 변화에 따른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형태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심주와 사리기 위치를 구분하는 전통에서 양자를 중앙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리기 도굴을 방지하려는 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심초석이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변화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기는 심초석을 지중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리기를 안전하게 봉안하는데 큰 난관이 없었으나, 건축술의 변화로 심초석이 기단 상부로 올라오면서 도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주는 일반적으로 목탑 상륜을 지지하는 부재로 인식되어 있지만(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9a: 280),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목탑 설계자는 노출 위험이 큰 심주 주변보다 밀폐된 심주 하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사리공 위치 및 심초석 구조에 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리공이 심초석 중앙에 위치하게 된 시점은 일본의 아스카데라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사찰의 목탑 축기부는 사도 조성 후 중앙에 심초석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부여 왕흥사지와 유사하고, 심초석 상면에 다양한 공양구가 출토되는 양상도 동일하다. 그러나 사리공의 위치는 심초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심초석 가장자리에 사리공을 마련한 왕흥사지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사리공 배치의 차이는 왕흥사지 축조 이후에 목탑 축조방식 및 공양 의례가 일부 변화하였을 가능성과 과도기적 양상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에서는 왕흥사지 이후 용정리사지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용정리사지 목탑 건립 전후한 시점(6세기 4/4분기)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앙에 사리공이 있는 전 구아리사지 심초석은 관련 목탑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축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형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편 백제 사찰과 관련한 연구에서 사비천도 이전 시점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제기되는 몇몇 사찰(목탑)들이 있다. 부여 군수리사지와 용정리사지, 정림사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목탑지 조성방식만으로 판단할 때, 사비기 이전 시점부터 모든 형식의 목탑이 일괄적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백제 목탑지 중 가장 빠른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유적은 지상성토 방식을 사용하여 기단토를 조성한 부여 군수리사지이다.²⁾ 이 유적에서 원형돌기형과 삼각돌기형 등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어 부여 정암리가마터에서 출토된 것과 동범 관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중반 창건설(조원창 2008)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탑지 심초석 상부에서 출토된 불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6세기 후반(金春實 2006) 혹은 7세기(黃壽永 1975) 등으로 더 늦게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강당 좌우에 부속건물과 회랑이 배치된 가람배치로 보아 능산리사지보다 이른 시점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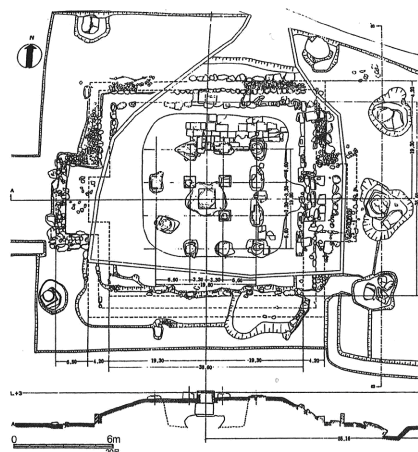
2)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인장과 중 '巳'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목탑지에서 출토된 인장과 중 '丁巳'명이 537년과 597년에 해당되기에 관련 건립연대 추정에 참고할 수 있다.

(김낙중 2012)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수리사지 목탑 기초부는 지상성토 방식이지만 심초석은 사도를 이용한 지하에 안치되어 있어, 당시 백제에서 목탑 기반의 안정성을 위해 축기부 조성 방식을 혼용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시기가 빠른 공주의 대통사지 목탑지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기단토 조성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 사찰 가운데 목탑에 굴광관축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는 군수리사지와 부소산폐사지 등 소수에 불과하기에 사비기 초창기부터 모든 목탑에 지상성토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수리사지는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단토가 굴광관축이 아닌 지상성토 방식이기에 더욱 그렇다.

백제에서 사찰 조영기술이 전래된 신라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황룡사지와 아스카데라의 목탑지는 굴광관축된 기초로 조성되었다.³⁾ 그러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사이에 건립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굴광관축 방식으로 건립된 시텐노지(四天王寺), 호류지(法隆寺) 등 목탑지 외에도 카와라데라(川原寺), 츄구지(中宮寺) 등에서 지상관축 방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축조경향은 일본이 백제 또는 신라와 다르게 아스카데라 축조 이후 지상성토와 굴광관축 방식을 일찍부터 혼용하여 각 사찰마다 다르게 적용하였음을 알려준다. 군수리사지 목탑지 지상성토 방식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기술적 유입경로 추정에 한계가 있지만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고구려와의 기술적 교류 관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⁴⁾

부여 용정리사지는 축기부 구축방식이 굴광관축형인 관계로 심초석의 위치는 미륵사지와 동일하게 지상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용정리사지에 심초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돌출된 기단 상부에 안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단의 폭도 미륵



[그림 8] 카와라데라 목탑지

3)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는 굴광관축에 심초석이 지상에 위치하여 익산 계석사지와 비교할 수 있고, 아스카데라 목탑지는 굴광관축에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하여 부여 왕흥사지와 비견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보면, 목탑지는 축기부와 심초석 건축술 변화에 따라 시기적인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4) 고구려 목탑지 기단토 조성방식 중 5세기 후반에 조영된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목탑지가 지상성토형 혹은 지상성토형으로 추정되고 있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9a).

사지 목탑과 거의 동일한 점 등 여러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용정리사지는 왕흥사지와 미륵사지 조영시기 사이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 용정리사지는 고구려계 수막새가 출토되어 주목을 받은 유적인데, 공반된 연화문수막새를 보더라도 7세기대 하트형 연관을 가진 연화문수막새는 보이지 않고 첨형과 원형돌기형 연화문수막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이후인 6세기 말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토품 중 왕흥사지와 정림사에서 동범와가 다수 확인(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되고 있어 그 축조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유적들 외에 부여 정림사지도 현 석탑 이전에 초창기 목탑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金正基 1984).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대지조성층과 석탑 굴광기초부 외에는 목탑을 위한 기초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탑이 석탑보다 먼저 세워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는 정림사지에 목탑이 선행할 가능성으로 지상성토한 기단토 축조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축조방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기가 앞서는 군수리사지 목탑지 형식 아니면 가장 늦은 부소산폐사지 목탑지 형식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림사지 목탑지에서는 지하에 심초석을 안치하기 위한 사도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상성토형이라고 보기에다 사비기 늦은 시점에 짧은 기간동안 목탑과 석탑을 번갈아 가며 건립했다고 보기에다 역시 무리가 따른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정림사지에 목탑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이지만, 소조상 봉안 장소 문제 등 목탑지 축조에 대한 여러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다각도의 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백제 목탑의 상부구조는 현재 잔존한 유적이 없으므로 원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지하에 숨겨진 축기부 터파기 흔적과 심초석 등을 통해 목탑의 구조적 변화양상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록에 명시된 목탑 건립연대 등과 비교하여 목탑의 건축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제 초기 목탑은 부여 군수리사지와 같이 지상성토형 축기부, 사

리공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식 심초석과 사도의 설치, 전축기단이 설치된 독특한 형태로 축조되기 시작하지만, 이내 굴광판축형 축기부와 사도가 없는 지상식 심초석 및 사리공 설치, 석축기단의 형태로 목탑의 건축적 변화가 점차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고구려의 목탑기술이 백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후 백제는 일본의 아스카데라와 신라의 황룡사지에도 목탑 축조기술이 전수될 정도로 상당한 기술적 성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탑의 기술적 수용과 전파는 당시 동북아시아에 종교적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백제에서는 부여 왕흥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가 건립된 시점 사이에 건축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 최신 건축기술의 전파자로서 그 위상이 세워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투고일 2026. 1. 5 | 심사완료일 2026. 5. 20 | 게재확정일 2026. 5. 27

『三國史記』

『日本書紀』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發掘調查報告書』.

_____, 2012, 『彌勒寺址 石塔-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9a,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 (I)-목탑지편』.

_____, 2009b, 『王興寺址Ⅲ-木塔址 金堂址 發掘調查報告書』.

_____, 2010, 『扶餘軍守里寺址 I-木塔址·金堂址 發掘調查報告書』.

_____, 2012, 『백제 사비기 기와연구Ⅳ』.

_____, 2023, 『益山 彌勒寺址-제18차 발굴조사』.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

국립부여박물관, 2023, 『扶餘 金剛寺址』.

김낙중, 2012, 「百濟 '定林寺'의 創建年代」, 『문화재』45, 국립문화재연구소.

金有城, 2023, 「신라 皇龍寺 창건가람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正基, 1984, 「彌勒塔과 定林寺塔-建立時期的 先後에 관하여」, 『考古美術』164, 韓國美術史學會.

김정수, 2004, 「신라시대 목탑의 전래에 관한 연구-찰주와 심조석을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20권7호, 大韓建築學會.

金春實, 2006, 「百濟 6세기 후반 蠟石製 佛像 研究」, 『美術史學研究』第251號, 한국미술사학회.

김혜정, 2010, 「백제 사비기 사찰 기단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58, 『飛鳥寺發掘調查報告』.

류형균, 2012, 「고대와 고려 목탑지의 비교 연구」, 『韓國考古學報』第85輯, 한국고고학회.

문화재연구소, 1984, 『皇龍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배병선, 2016, 「사비시기 백제 가람의 불탑과 사리장엄」,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재운, 2004, 「百濟 瓦建物址의 築造技法과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웅진·사비기의 금강유역을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23, 「풍납토성 기와건물지의 성격과 위상」, 『湖南考古學報』第77輯, 湖南考古學會.

정자영·탁경백, 2007, 「한국 고대 목탑의 기단 및 심초부 축조기법에 관한 고찰-백제 사지를 중심으로-」, 『문화재』40, 국립문화재연구소.

朝鮮古蹟研究會, 1937, 『昭和11年度 朝鮮古蹟調查報告』.

趙原昌, 2002, 「百濟 建築技術의 對日傳播」,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원장, 2008, 「백제 군수리사원의 축조기법과 조영주체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51, 한국고대사학회.

_____, 2018, 「百濟 泗泚期 木塔 築造技術의 對外傳播」, 『先史와 古代』第55號, 韓國古代學會.

崔正凡, 2022, 「唐式 帶裝飾具의 韓半島 轉入, 또 하나의 可能性」, 『中央考古研究』第37號, 中央文化財研究院.

卓京柏, 2011, 「백제 사비기 불탑의 조형기술 연구」, 明知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黃壽永, 1975, 「百濟의 佛像彫刻」, 『百濟文化』第7·8合輯,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Construction Techniques and Developmental Patterns of Baekje Wooden Pagoda

So, Jae-Yun(Director of Research, Curatorial Affairs Division,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the study of ancient temple architecture, wooden pagodas are an important subject for researchers. Among Korean wooden pagodas, Baekje wooden pagodas are undoubtedly the most valuable resources for understanding the architectural changes as they were constructed at an early stage. However, owing to the nature of wooden architecture, most ancient wooden pagodas have been lost over time, consequently leaving only their sites. This often leads to errors in establishing chronology or to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ir cultural history. Therefore, to verify and reanalyze previous findings, this study focused on the basement and central foundation stone of wooden pagodas, which best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tructural changes. Based on archae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their developmental patterns are inferred.

The basement of Baekje wooden pagoda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ased on construction methods: above-ground earth-cut type, above-ground embankment, and pit foundation with plank construction. Most examples, including the Buyeo Neungsan-ri temple site, fall into the pit foundation with plank construction type. The wooden pagoda site types at the Temple Site in Gunsu-ri, Buyeo and Busosan Ruins Site are classified as above-ground earth-cut types and above-ground embankment, respectively. Based on the site at Gunsu-ri, the above-ground embankment type can be considered a relatively early construction.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above-

ground earth-cut type, such as the site at Busosan Ruins, shows only a slight difference from the above-ground embankment type, thus raising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classifying it separately.

The central foundation stone gradually transitions from being underground to above-ground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tructure, and the installation of a sloped passage within the wooden pagoda is also determined by this factor.

Furthermore, shifts in the position of the central foundation stone also influence the method used to enshrine the sarira reliquary. Initially, relics were enshrined around the central foundation stone or placed in separate reliquary caskets. However, by the time Wangheungsa Temple was constructed, the practice had shifted toward the preparation of distinct sarira hole. By the time the Asukadera wooden pagoda was constructed, a trend had emerged in which the sarira hole was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e central foundation stone, directly beneath the core pillar. The primary reason for this change served as a technical measure to protect the sarira reliquary, that is,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wooden pagoda, as the central foundation stone came to be positioned above ground due to developments in wooden pagoda construction techniques.

Thus, analyzing the typology of wooden pagoda construction techniques reveals that sites such as Yongjeong-ri Temple Site, where no central foundation stones have been identified, or Geumgangsasa Temple Site and Busosan Ruins, where only central foundation stone pits have been confirmed, require a reexamination of their previously proposed construction dates. In addition, based on the typological analysis, the former wooden pagoda site at Gua-ri, where only the central foundation stones remain, is estimated to have been constructed no later than the 7th century.

Key words : Baekje, Wooden Pagoda Sites, Basement, Central Foundation Stone, Sarira Hole, Construction Techniques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와 항시의 발전

Maritim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Port citie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4th~6th Centuries CE

권오영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최영은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박소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포상팔국의 전쟁과 남해안의 교류망

III. 남해안 교류를 담당한 주체의 구조와 성격

IV. 남해안에서 전개된 원거리 교섭의 실체

V. 맺음말

국문요약

삼국시대에 국가와 지역 사이에 전개된 교류에 대한 연구는 고대사와 고고학 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근거리, 원거리 교류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남과 전남지역을 통합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학계의 관행, 그리고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가야사 내부의 사건으로 축소시킨 선입견 등을 들 수 있다.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린 전쟁은 가야권 내부의 국지전이 아니고 한반도 남해안의 여러 정치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참여한 전쟁이다. 여기에는 경남 연안만이 아니라 전남 연안의 정치체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아시아의 향시 및 향시국가 사이에 전개된 교류, 전쟁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비교사적, 비교고고학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4~6세기에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교섭과 전쟁의 중심에는 소가야가 있다. 소가야의 내부 구조는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을 중핵으로 삼고 그 바깥으로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토기 출토권(교류권)으로 확장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층위의 권역에 향시가 배치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소가야는 경남 연안은 물론이고 전남 연안의 다양한 정치체들과 함께 일본열도의 규슈 및 긴키지역 정치체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였다.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한반도계 문물과 스에키의 출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왜계 고분, 왜계 문물의 존재가 그 증거이다.

주제어 : 소가야, 포상팔국의 난, 향시, 향시국가

I . 머리말

남해안지역의 여러 정치체들이 전개한 근거리, 원거리 교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대륙, 내륙의 그것에 비해 저조한 현상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김재홍 2021: 119~120). 규슈(九州)나 긴키(近畿) 등 일본열도산 문물이 한반도 남부에 유입된 상황과 그 정치적 맥락에 대한 관심에 비해 남해안의 여러 정치체 사이에서 진행된 교섭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첫째, 가야고고학(가야사)과 백제(마한 포함)고고학(백제사)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현행 학계 관행의 문제이다. 가야사 연구자들은 영남 서편의 상황에 대한 고찰을 자제하고,¹⁾ 마한-백제 연구자들은 연구 시각을 영남지역으로 넓히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남해안지역의 교류에 대한 이해는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교류의 경로상에 위치한 각각의 세력을 ‘가야’라는 이름 아래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른바 ‘포상팔국의 난’이 중첩되면서 가야사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버렸다. 그러나 남해안 교류의 역사는 소가야만의 역사가 아니고 가야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게다가 남해안과 한반도 동남부는 분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도 개입되어 있다.

한반도 동남부의 해안을 따라 진행된 정치체 간 교섭의 상황은 시간대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지만, 수로와 탈해가 자주 마주치던 상황을 『三國史記』와²⁾ 『三國遺事』³⁾ 모두 전하고 있다. 탈해로 표현된 세력의 출발지가 어딘지는 모르나 김해의 수로와 만나서 경쟁하고, 결국 탈해가 경주로 들어가는 모습은 경주와 김해 사이에 긴밀한 교통망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진한 지역과 변한 지역이 지닌 물질문화의 공통성은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진한인의 습속으로 묘사된 편두(偏頭)⁴⁾가 변한권역으로 이해되는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 나타나는 현상(김두철 외 2020)도 진한과 변한을 분절적으로 이해하지만 않으면 이해가 된다.

한편, 탈해를 키운 阿珍義先의 거주지인 阿珍浦를 감포 부근에 비정하는 견해가

1) 다만, 고령을 비롯한 가야의 고분문화가 호남 동부지역에 전해지거나, 소가야, 아라가야, 대가야산 물품이 호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양상에 대한 관심은 낮지 않은 편이다.

2)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元年.

3) 『三國遺事』卷1 紀異 第1, 第四 脫解王.

4)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偏. 今辰韓人皆偏頭.”

옳다면 김해에서 감포에 이르는 연안해로도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신라 파사왕대에 濟汁伐國(안강)과 悉直谷國(삼척)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수로가 나서는 양상을 더해 보면 경주와 김해의 긴밀한 관계를 새삼 확인하게 되며 김해-경주-안강-삼척으로 이어지는 남해안과 동해안의 연결 고리가 완성된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김해에서 창원, 함안, 고성, 사천으로 이어지는 연안해로가 나타나게 된다. 최근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발견이 연속되고 있다. 특히 고고학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고성 내지 소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여러 정치체, 신라, 백제(영산강유역 포함), 왜 등 다양한 정치체들과 전개한 교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하승철 2014; 2018; 2022). 바다 세계는 현재의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 구분과는 무관하다. 전남의 순천, 여수, 고흥, 해남, 나주로 이어지는 세계는 경남의 연안에서 진행되던 교류의 연장된 공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의 글에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하는 것보다는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몇가지 사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Ⅱ. 포상팔국 전쟁과 남해안의 교류망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勿稽子傳, 『삼국유사』 물계자전의 기사를 토대로 진행된 이른바 ‘浦上八國의 亂’에 대한 연구는 가야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이며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글에서 이를 다시 열거하고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포상팔국 관련 기사 및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사료 및 선행연구(김재홍 2021)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남해안 일대 지역 정치체 간의 분쟁에 신라가 엮여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주와 김해 사이에 전개되는 교섭의 연장선이다. 이 사건이 전개된 시점에 대해서는 3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부터 4세기, 5세기, 심지어 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선석열 1997; 백승옥 2019).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

[표 1] 포상팔국의 난 관련 사료 모음

①-1. 신라 내해이사금 14년(209), 가을 7월에 포상팔국이 가라(加羅)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자, 가라 왕자가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①-2. 포상의 여덟 나라가 함께 아라국(阿羅國)을 치기로 하니, 아라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삼국사기』 열전 물계자). ② 가라 왕자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③ 왕이 석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6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가라를 구원할 것을 명하였다. 이들이 포상팔국의 장군을 격살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④ 내해이사금 17년(212), 봄 3월에 가야(加耶)가 왕자를 볼모로 보내왔다. ⑤-1. 내해이사금 17년(212), 보라국, 고자국, 사물국 등 8국이 힘을 합쳐 변경을 공격하였다. 왕은 태자 나음과 장군 일벌 등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도록 하니, 8국이 모두 항복하였다(『삼국유사』 물계자). ⑤-2. 이사금이 왕손 나음에게 이웃의 군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 하니, 마침내 8국의 군대를 대패시켰다(『삼국사기』 물계자).
⑥-1. 3년 후 골포, 칠포, 고사포의 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구원하고, 세 나라의 군대를 대패시켰다(『삼국사기』 열전 물계자). ⑥-2. 골포국 등 3국의 왕이 각각 병사를 거느리고 갈화를 공격해왔다. 왕이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자, 3국은 모두 패하였다(『삼국유사』 물계자).

의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의 가야사 像, 신라사 像에 맞추어서 포상팔국 관련 기사를 해석한 데에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사건을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3~5세기의 사정이 누적된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김재홍 2021: 129).

포상팔국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문헌사료를 이용하는 고대사 연구자 대부분은 3세기 대, 혹은 3세기 말~4세기 초로 보고 있지만(전덕재 2010; 정상희 2018; 백승옥 2019; 김양훈 2020), 본고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논자들의 공통적인 입론 근거가 3세기 후반에 구야국, 혹은 금관가야 세력의 약화를 상정하지만,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조사 성과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3세기 후반부터 금관가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3세기 중엽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는 『삼국지』 진변한 사회의 모습이 포상팔국 전쟁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전란이 이미 진행된 후이거나, 혹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일반적인 國의 수장보다 위상이 높아 ‘加優呼’하는 臣智가 존재하는 김해와 함안의 상대적 우위,⁵⁾ 그리고 고성지역 정치체로

5)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蹶支漬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김해의 신지는 拘邪秦支廉, 함안의 신지는 安邪蹶支라고 불렀다.

추정되는 古資彌凍國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세 번째, 4세기 중엽 경 백제 근초고왕이 가야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되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 기사 역시 포상팔국 전쟁의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는다.⁶⁾ 이 기사에 등장하는 많은 정치체 중에서 안라와 가라, 신라를 제외하면 포상팔국 전쟁의 주역들은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경주 시내 고분군의 우열을 비교한다면 김해의 경주에 대한 구원 요청은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 이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소가야의 중심 지역인 고성에서조차 소가야양식 토기의 출현은 5세기 이후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 이전에 고성의 고자국이 주축이 된 포상팔국 전쟁은 상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해안 네트워크의 중심은 4세기 무렵까지는 김해, 5세기 이후로는 여러 정치체의 개별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성이 그 중심이 된다(김재홍 2017). 고성과 그 일원에서 고총 및 왜계 고분의 등장, 나주·영암 등 영산강 중·하류역에서 웅관고분의 대형화와 왜계 문물의 증가 현상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4세기 이전 김해 주도 교역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이유로 본고에서는 포상팔국의 전쟁을 4세기 말이나 5세기 이후에 전개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 후 6세기 전엽까지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 보이는 압도적 우월성은 고자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영도한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포상팔국 전쟁은 1회도 아니고(김재홍 2021), 참여국 내지 주체도 동일하지 않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관련 기사를 종합할 때,⁷⁾ 209년(포상팔국), 212년(보라, 고자, 사물 등 팔국), 그 3년 후인 215년(골포, 칠포, 고사포 등 삼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논자에 따라 두 번의 전쟁, 혹은 세 번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215년의 전역은 울산으로 비정되는 갈화 침공전이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과 결과, 참여 세력 등은 조금씩 변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포상팔국이 공격한 가라는 김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라와 동맹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관건인데, 함안보다는 김해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신가영 2023: 168). 왜냐하면 함안(안라)의 전성기는 김해보다 한발 늦

6) 물론 이 기사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단 4세기 중엽(369) 설을 따랐다.

7) 이하의 연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에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은 5세기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상팔국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선 포상팔국에 고령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가야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신가영 2023: 176)에 동의한다. 사료에 나타난 이들을 가야 연맹체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가야의 여러 구성분자는 포상, 즉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포상팔국은 엄연히 ‘가야연맹체’, ‘소가야연맹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포상팔국에 가야권에 속하는 남해안 정치체만이 아니라 서남해안의 정치체를 포함시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보라의 위치를 나주나(노중국 2005) 삼포천 유역으로 보는 견해(김경림 2020)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부정적인 입장은 나주는 너무 멀며(백진재 2015), 포상팔국은 가야의 구성 분자들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유역권의 정치체가 남해안을 거쳐 함안, 김해, 경주지역 정치체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는 선입견에 기초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사천 월성리유적의 초기철기시대 목관묘에서는 다뉴세문경과 銅鉤가 부장되었는데 한반도 중서부, 특히 완주 갈동유적과의 유사성이 지적되었다(이창희 2022: 50~51). 거제 아주동 1485번지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12)처럼 호남계⁸⁾ 토기와 하지키(土師器)가 다량 출토되는 양상을 볼 때 바다를 통한 경남과 전남 해안 지역 정치체 간 교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쓰시마(對馬島)에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해로를 하루에 40~50km 정도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복원한 연구는 “쓰시마-거제 장목-고성만-사천 선진리-여수만-고흥 길두리-고흥 야막-해남 방산리-해남 용두리-안좌도-함평 돌머리-영광 법성포-채석강-금강 입구”로 이어지는 해로를 상정하고 있다(이은석 2022: 118~119). 이 루트는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 특히 왜계 고분들을 연결한 경로이기도 하다.

이 경로에 접한 정치체 중 일부가 포상팔국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남과 고흥 등 전남 남해안의 중요 유적을 제외하고 사천에서 김해 사이만 보더라도 “사천 방지리-늑도-고성 송학동-내산리-마산 현동-창원 도계동-석동-김해 관동리와 망산도-봉황대와 대성동” 등으로 이어지는 유적들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유적 1개소를 하나의 國으로 설정하기보다 복수의 유적, 즉 복수의 港市를 하나의 항시국가로

8) 마한계라는 용어 대신 호남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경기, 충청지역이 아닌 호남지역 산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고성 송학동고분군 축조세력과 내산리고분군 축조세력을 별도의 國으로 보아 포상팔국에 고성지역 정치체 두 개를 설정하기보다(이동희 2021), 두 세력을 각각 하나의 향시에 대응시키고 이를 합친 향시국가로서 고자국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남해안지역의 정치체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것이야말로 신라사회와 가야사회의 차이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김재홍 2021: 146). 내륙의 국경 개념과 달리 바다를 통해 점점이 이어지는 교류의 양상은 동남아시아 향시와 향시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⁹⁾ 포상팔국 전쟁은 전형적인 향시국가 간 분쟁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권오영 2017: 270~273).

Ⅲ. 남해안 교류를 담당한 주체의 구조와 성격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하는 교류의 주체 세력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정치체들이다. 특히 연안 해로의 거점에 위치하면서도 내륙 교통의 결절지인 해안에서 등장, 성장한 정치체들을 사료에서는 ‘浦上’의 나라들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는 이들을 ‘향시’ 혹은 ‘향시국가’라는 틀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권오영 2017, 2019; 이동희 2021; 정선운 2023, 2026; 안홍좌 2023; 김양훈 2026).

그중 고성지역은 古自國 등 정치체의 이름이 전해지고, 각 단계별로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존재 양태를 보여주는 유적의 발견이 두드러져서 상위의 향시, 혹은 향시국가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이동희 2021: 155~156). 고성지역에서 발전한 고대 정치체의 명칭은 古資彌凍國(『三國志』 魏書 東夷傳), 古史浦國(『삼국사기』), 古自國(『삼국유사』), 久嗟나 古嗟(『日本書紀』)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지만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古資彌凍國이 나오는 것을 보면 3세기 단계에 이미 고성지역 정치체의 발전이 현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반영하는 고성지역의 유적으로는 동외동유적(국립진주박물관 2003)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기원후 4세기 무렵까지 지속된 복합유적으

9) 대표적인 향시국가로는 베트남 중부 해안을 무대로 발전하였던 임읍(林邑: Champa), 부남(扶南: Punan), 낭야수(狼牙脩: Langkasuka) 등을 들 수 있다.

로서, 패총·야철지·분묘·주거지·고상건물지·의례유구·환호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성격으로는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 취락으로 보는 견해(소배경 2023)와 祭場의 기능을 강조한 견해(이동희 2023)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른 단계 고자미동국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적임은 분명하다.

한편, 최근 발굴조사가 진행된 만림산유적(삼강문화유산연구원 2026)에서도 초기철기시대의 취락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소가야의 5~6세기대 토성으로 알려진 만림산토성 내부에서 취락과 온돌, 부뚜막 등 생활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자미동국 이른 단계의 양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동외동유적과 만림산유적은 고성읍 일대를 중심으로 한 내만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일대에 고성지역의 이른 시기 정치체, 즉 고자미동국을 구성하던 여러 읍락, 취락 중 가장 중요한 국읍적 위상을 갖춘 세력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자국과 함께 포상팔국의 일부(사료 5-①)로 등장하는 史勿國의 터전인 사천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 유적의 변화 양상을 개괄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다. 주거구역, 묘역, 제의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 유적인 이금동유적과 덕곡리고인돌군이 대표적이다. 초기철기시대에는 현재의 사남면 일대의 방지리 환호 취락, 월성리 묘역과 옛 삼천포 일대의 늑도 취락, 향촌동유적 등이 있어서, 2개의 유적군으로 설정할 수 있다(이성주 2022: 26). 두 개의 유적군은 일단 사물국을 구성하는 2개의 읍락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천만 내만부에 위치한 방지리 환호취락은 기원전 4세기 말~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르는 복합유적으로 주거지, 무덤, 구상유구, 수혈, 다수의 주혈군, 환호, 패총 등이 모여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07). 시간적으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와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분묘 형식이나 수혈 주거지 형태로 보아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월성리유적은 방지리유적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초기철기시대 무덤 가운데 1호묘에서 다뉴세문경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사천 늑도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사천만 일대의 고고학적 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다. 유적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3세기~기원후 1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이창희 2026: 225). 패총·주거지·수혈·분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복합유적으로, 다수의 외래계 문물이 확인되어 고대 해상교역의 거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역 뿐 아니라 취락, 분묘 등을 통해 거주민 집단의 계층성과 구조, 네트워크 등에

주목하고 있다(이주호 2025; 이창희 2026). 취락과 분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사천 늑도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 계층적 구조와 교역망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음을 논한 연구(이창희 2026), A·B 지구의 세형동검을 보유한 상위 유력자의 존재로서 취락의 중심집단을 추정한 연구(이주호 2025) 등이 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 사천지역은 이른 단계의 유적들이 고성지역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삼국지』 단계, 혹은 원삼국기에 해당되는 목관묘와 목곽묘, 그리고 4세기 이후의 토성 등 지역 정치체의 성장을 가늠할 만한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늑도유적이 지난 교역항으로서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늑도를 사물국의 중심으로 보는 견해(장혜금 2015; 장혜금 2017)도 있지만, 이 좁은 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위는 육지의 배후 거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이성주 2022: 36).

『삼국지』 단계부터 현저했던 고성, 사천지역의 발전은 5세기 대 이후 소가야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5세기 대 이후 모습에서 양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천지역은 선진리, 향촌동 등의 왜계 고분을 제외하면 현지 세력의 묘제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고성지역은 송학동고분군을 위시한 고총의 발전이 현저하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자국이 소가야로 표현된 정치체 그 자체이거나, 고성을 소가야의 중심으로 보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한다(김규운 2010). 본고에서도 역시 고성을 소가야의 중심지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근거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양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이 소가야의 범위를 넘어선 광역이란 점이다(그림 1, 여창현 2022: 100~101).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범위도 넓기는 하지만 영남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데에 비하여, 소가야양식 토기는 호남과 충남까지 확산이 확인된다. 심지어 서울 풍납동토성에서도 소가야양식 토기가 여러 점 발견된 바 있다(권오영 2002). 물론 이 경우는 정치체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고 토기의 장거리 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상황을 활용하여 소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선 “소가야양식 토기는 고성,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섬진강 이서 일부, 운봉고원 일부, 마산, 칠원, 진례 등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이 모든 지역을 소가야의 경역이라 부르는 어렵지만 소가야의 문화권이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이한상 2021: 89). 이 견해는 “소가야 토기 출토 공간이 곧 소가야 경역은 아님”을 인정

한편, “남해 연안과 내륙지역의 경남 서남부를 포괄적으로 소가야연맹체, 혹은 서남부가야연맹체로 설정하고 진주, 산청, 의령, 합천, 하동, 사천, 고성, 통영, 창원을 소가야권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그림 1). 이 견해에서는 5세기 2/4분기부터 562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여창현 2022: 101). 소가야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가장 광역의 이해로 인정된다. 그 근거는 역시 소가야양식 토기의 발생과 분포이다. 그런데 소가야연맹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시 소가야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토기 양식만으로 정치적 연맹체의 공간을 설정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서였을까?

This map illustrates the geographical context of the archaeological sites mentioned in the text. It shows the proximity of Gyeongju to other regional centers like Daegu and Pohang, and highlights the distribution of sites across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 마산 대병리
- 마산 천동
- 마산 김성동
- 함평 오곡리
- 용평 관성동
- 신채 마연동
- 고성 송학동
- 고성 읍대리
- 고성 내산리
- 고성 산영리
- 통령 남평리
- 진주 가좌동
- 진주 무촌
- 진주 청춘리
- 진주 가곡
- 진주 우수리
- 진주 내룡리
- 고성 연안리
- 신원 중촌리
- 산청 옥산리
- 산청 망동
- 산청 장촌리
- 함진 창가
- 의령 천곡리
- 함진 안계리
- 하동 고야리
- 하동 우북리
- 하동 선암리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와 항시의 발전

미라고 한다면 토기만이 아니라 소가야를 규정하는 다른 문화적 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분 축조의 큰 원칙, 즉 “先 분구 축조 - 後 매장주체부 마련”이란 현상, 그리고 복수의 매장주체부가 존재하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정인태 2020). 고성 송학동(기월리), 울대리(국립진주박물관 1990), 내산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2005) 고분군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¹⁰⁾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분은 통영 일부지역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통영 남평리 10호분(동서문물연구원 2009), 통영 팔천곡고분군(경상문화재연구원 2022)이다. 통영 남평리 10호분은 5세기 중엽의 분묘로, 봉토 내에 4기의 목곽묘가 조성된 다곽식 분구묘이다(동서문물연구원 2009).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된 분구묘 중 이른시기에 해당한다.¹¹⁾ 통영 팔천곡고분군은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원지형을 정리한 후에 정지층 및 구축토를 성토하고, 그 다음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분구묘이다. 이는 고성 내산리고분군 40호분, 44호분 및 고성 기월리고분군 1호분과 유사한 양상이다(경상문화재연구원 2022: 106).

“先 분구 축조-後 매장주체부 마련”이란 현상을 고려하면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은 앞의 현상에 충실한 고성과 통영 對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소가야 토기 분포권 안에서도 분구 축조 방식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스펙트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소가야토기 분포권과 소가야문화권, 소가야(정치)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성은 고자국에 해당되고, 고자국이 중심이 된 서부 경남의 여러 정치체를 합쳐서 소가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조영제 2018: 4)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 고성의 송학동고분군 피장자가 고자국 후신의 최고 수장이자 나아가 소가야권 최고 수장임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자국과 대비되는 사물국의 터전인 사천지역에서는 5세기 무렵, 중심고분군 내지 고층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상팔국 전쟁 이후 경남 남해안 정치체들의 소멸이 그 원인이라는 견해(이성주 2022: 37)가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포상팔국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5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전

10) 연당리고분군의 경우 오래전에 조사되어 봉토식인지 분구식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과거의 봉토(분구) 조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내산리고분군과 같은 반지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장한 수혈식석곽, 수평구연호와 고배 등이 소가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 통영 남평리의 분구묘는 소가야권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분구묘로,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축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정인태 2020). 남평리 10호분의 돌발적인 출현은 해상교류에 유리한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산강유역의 분구묘 등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정인태 2018: 47~48). 최근 이 단계의 초대형급 분구묘로 송학동 14호분이 조사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반까지 짧은 시간 내에 고층화를 이루는 고성지역의 사례를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사천지역에서는 늑도유적 이후 지역 정치체의 발전을 보여주는 유적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5세기 이전에 속하는 고분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오재진 2022: 81~82). 고층의 부재를 포상팔국 전쟁 패전으로 설명하려면 그 직전에는 포상팔국 전쟁 참여자에 걸맞는, 나름 현저한 발전을 보이는 정치체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6세기 이후 선진리, 향촌 등 왜계 고분의 출현 양상을 보면 사천지역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보인다. 하지만 이 변화의 주체가 6세기까지 온존하던 사천지역 정치체인지, 아니면 고성 집단의 성장에 의해 사천지역이 영향을 받아 겪게 된 변화인지는 분명치 않다. 사천지역에서 보이는 4~5세기대의 자료 공백 문제, 그리고 고성지역과의 상호 역학관계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여기에서 참고할 자료가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항시국가인 부남국과 임읍국의 상황이다. 최근 옥 에오(Oc Eo) 문화 관련 발굴조사 성과를 모은 연구물(베트남 사회과학출판사 지음, 권오영 · 대한문화재연구원 옮김 2025)이 발간되었는데, 항시국가 내부의 상황은 해안가의 항시와 내륙부의 정치 중심지, 혹은 산림자원 생산지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항시인 옥 에오 유적은 안 장(An Jiang) 성에 위치하는데 바 테(Ba The) 산 구역과 평지구역으로 양분되어¹²⁾ 그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바다에 더 가까운 끼엔 장(Kien Jiang) 성의 넨 쭈어(Nen Chua) 유적은 옥 에오 유적과 많은 공통점을 지녔으면서도 종교적 신앙, 망자에 대한 숭배 및 화장과 관련된 신전 등이 집중됨을 볼 때 부남국의 기능은 중요 지역별로 분담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읍도 마찬가지로 정치 중심인 짜 끼에우(Tra Kieu), 종교 중심인 미 썬(My Son), 그리고 항시인 호이 안(Hoi An) 등 빅 3가 각각 제 역할을 하며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가야 내부에서 고자국과 사물국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분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천지역에 왜계 고분이 집중됨을 고려하면 왜와의 해상교역에서 중요한 항시 기능이 사천지역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천지역의 4~5세기 고분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한 가설적 견해이므로 더 이상의 추론은 자제하고자 한다.

고자국은 6세기 대에 가면 3개의 중요 집단, 즉 송학동(기월리), 내산리, 연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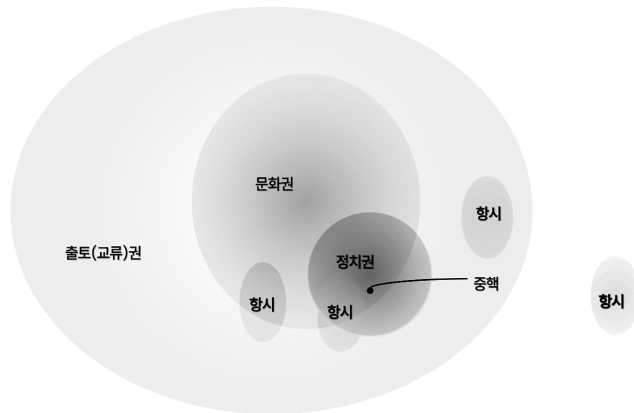
12) 각 구역 내에는 복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박순발 · 이상길 1994) 고분군 축조세력이 주도하였고 그중에서도 송학동(기월리) 세력이 가장 우위에 섰을 것이다. 송학동(기월리) 세력이 소가야의 중핵, 그리고 '先 분구-後 매장주체부 축조'라는 분구묘 축조(조신규 2014), 주구의 존재, 세장한 수혈식석곽을 공유한 내산리, 연당리고분군 축조세력은 소가야 정치체의 구성분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곽식, 세장방형 석곽, 소가야양식 토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통영 팔천곡고분군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통영이지만 오히려 고성의 중심에 더 가까우며¹³⁾ 묘제의 유사도가 매우 높으므로 역시 소가야 정치체의 한 구성분자로 볼 수 있다. 사천의 경우는 중전 소가야연맹체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5세기 무렵의 유적이 거의 전무하고 6세기부터 왜계 고분이 등장하므로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 정치체 내부에서 약간 다른 위상을 지녔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곽으로 소가야 정치체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내륙의 진주, 산청, 의령, 합천 일부, 그리고 해안가의 통영, 거제 일부 등도 고성이 주도하는 소가야 정치체의 외곽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이 공간은 소가야문화권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범위보다 더 넓은 광역의 공간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종종 발견될 경우 이는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문화권도 아닌, 소가야 토기의 원거리 이동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고성 of 송학동고분군을 소가야의 중핵, 고분문화와 토기양식을 공유하는 주변지역을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토기가 주류를 점하는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토기가 간헐적으로 출토되는

소가야 토기 출토(교류)권 등으로 차등화시킬 수 있다(그림 2). 소가야의 항시는 단일하지 않아서 중핵에 인접한 항시, 소가야 정치권에 속하는 항시, 소가야 문화권에 속한 항시, 소가야 토기 출토(교류)권에 속한 항시,



[그림 2] 소가야의 공간에 대한 개념도

13) 유적은 현재 행정구역 상 고성군과 통영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도면은 조선시대까지 고성군의 관할 하에 있었다(경상문화재연구원 2022).

소가야 외곽에 존재하는 항시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소가야다운 물질문화라는 것도 중핵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주변의 다른 정치체, 예를 들어 함안이나 고령의 요소가 혼입될 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소가야 내부의 정치적 동질성은 줄어들 것이다.

Ⅳ. 남해안에서 전개된 원거리 교섭의 실체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원거리 교섭의 양상은 5세기 후반 이후 6세기 전반에 걸쳐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남해안 일대에서 고총, 다양한 계통의 외래계 유물과 묘장제의 존재가 현저한 지역으로는 해남과 고흥, 사천, 그리고 고성을 꼽을 수 있으며(그림 3), 외래계 유물의 계통은 주로 왜(倭)와 백제에서 구해진다.

해남의 경우 지역 토착 수장의 존재가 4세기 무렵 북일면 독수리봉고분에서 확인되고(마한문화연구원 2025), 외래계 유물은 전방후원형 고분이나 왜계 석곽묘 등에 집중된다. 해남지역에서 외래계 고분이 축조되고, 외래계 유물이 등장하는 것은 외도 1호분에 부장된 삼각관혁철관갑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이미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다(김낙중 2015: 64). 외도 1호분을 시작으로 왜계 요소가 반영된 묘제가 북일면 일대에서 6세기 이후까지 지속되며, 방산리 장고봉고분이 그 정점을 이룬다. 한편, 북일면 일대뿐 아니라 옥천천 일대의 만의총 1호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에서는 백제 중앙의 색채가 짙은 동천, 금모 은제곡옥, 시원형의 은제 관식 등과 함께 신라계 서수형 토기, 왜계 동경 등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어, 이 고분을 축조한 세력이 원거리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고흥반도에서도 5세기 전엽 경부터 외래계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고흥 야막고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전남대학교박물관 2015) 등 왜계 석곽이 그 예이다. 이 고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삼각관혁철관갑 등 왜계 갑주가 부장되었으며, 안동고분의 경우 백제 중앙에서 사여한 금동관, 금동신발도 함께 부장되어 있어 피장자의 남해안 교류에서의 역할 및 복합적인 정체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흥반도 남부권에서 외래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은 백제-왜 교섭에 의한 교통망 재편의 결과로 해석된 바 있다(오동선 2023).



[그림 3] 남해안지역 왜계고분의 분포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사천 선진리, 향촌동 II-1호분, 거제 장목고분, 의령 운곡리 1호분, 경산리 1호분 등이 왜계 고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고분들이 분포하는 공간은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소가야 정치권’에 해당된다. 이 중 거제 장목고분을 제외하면 대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고 재지계 토기가 부장된다는 점에서 그 피장자 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준식 2015, 2023). 사천 선진리고분은 해남 장고봉고분, 고성 송학동 1-B호분 1호 석실과 구조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있어 ‘장고봉식’(홍보식 2011), ‘송학동-장고봉식’(김낙중 2012) 등으로 설정되기도 하므로 남해안 원거리 교섭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해안의 연안해로를 통한 원거리 교섭에서 왜를 위시한 일본열도의 정치체도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왜계 고분의 구조와 형태가 규슈지역의 그것과 유사함을 볼 때, 북부 규슈에 소재하던 정치체들에게 소가야 정치권이 우선적인 교섭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가야가 추진하던 국제 교섭의 최종적인 대상은 규슈지역의 정치체가 아니라 긴키의 야마토(大和) 정권이었을 것이다. 오사카 남부에서 스에키(須惠器)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유역 토기류와 함께 소가야 토기의 존재 및 그 영향이 계속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웃한 사천과 달리 고성의 경우 외래계 유물과 묘장제는 지역 최고 위계의 무덤인 송학동고분군에 집중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피장자, 즉 소가야 최고 지배층은 가야의 여러 정치체, 신라와 왜, 백제 중앙과 영산강유역에서 유래한 물품이 집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존재였음이 분명하다(여창현 2018; 이동희 2021).

왜나 영산강유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고성지역에서 출현하는 시

점은 송학동 1-B호분, 내산리 34호분 등 횡혈식석실묘의 출현, 즉 6세기 이후로 보아 왔다(서현주 2021: 119). 그런데 최근 송학동 14호분이 발굴조사되고, 석곽 내에서 삼각관혈철판갑과 왜계 대도, 철촉 등이 출토되면서 그 시점이 5세기 중엽 경으로 상향되었다(삼강문화재연구원 2024). 소가야양식 토기의 출현도 5세기 1/4분기로 적극 상향 조정하는 견해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김규운 2018: 92).

따라서 6세기 이전, 5세기 대에 이미 고성지역에 외래계 문물이 유입되었음은 분명하다. 송학동 14호분에서 처음 출토된 백제식 껌쇠의 존재는 목관의 결구방식과 형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자료이다. 매장시설 현장에서 조립하여 석곽이나 석실 내에 안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조립한 목관 내에 시신을 모시고 이를 운구하는 백제식 목관과 장제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종전에는 소가야 권역에 귀금속제 장신구와 금공품이 이입되는 것은 대가야계가 먼저이고, 520년대 이후에 백제계와 신라계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이한상 2021: 105), 백제의 영향이 좀더 이른 시기부터 포착된 점도 의미가 있다. 결국 소가야의 해상 활동은 6세기대가 아닌 5세기 무렵부터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소가야의 고분 문화가 내륙에 위치한 가야 고분 못지 않게 영산강유역의 고분문화와 상통하는 현상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하승철 2014). 고성, 해남,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고분에서는 분구 墓石의 존재가 자주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영산강유역, 해남, 고성지역 고분이 왜계 고분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김낙중 2021: 57)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송학동 1호분과 14호분에서 보이는 주구와 하니와(埴輪)형 토제품의 수립 역시 가야권역에서는 매우 드문 왜계 요소로서 영산강유역과 소가야가 공통적이다. 고분에 부장되거나 제기로 사용되는 토기 기종 중 개배와 유공 광구소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역시 영산강유역과 소가야, 그리고 왜이다.

영산강유역과 소가야 고분문화의 유사성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우선 포상팔국 전쟁과 같은 항시국가 간의 분쟁이 언제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보다는, 바다를 통한 남해안 정치체 사이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시국가와 포상팔국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해안과 규슈, 간키로 이어지는 해상 교류에서 전남과 경남 연안의 정치체들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 다음은 ‘가야 문화는 하나다’라는 허상의 분쇄일 것이다. 흔히 가야연맹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맹신하여 내륙 지역 가야 여러 정치체와 해안의 가야 정치체의 문

화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부 경남 해안가의 소가야 문화는 경북 내륙 대가야 문화와 유사한 점 못지 않게 호남 동부, 특히 여수-순천-광양지역 정치체의 문화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야와 마한의 구분, 포상팔국이 모두 가야 정치체일 것이라는 추론에서 벗어나 남해안 여러 정치체들의 공통성과 교섭의 내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공통성은 항시 혹은 항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결국 ‘영산강유역-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북부 규슈-왜’로 이어지는 해상교류를 바다와 항시라는 시각에서 조명하면 그 중간에 위치한 고흥과 해남, 사천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규슈와 긴키 지역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영산강유역산 문물은 소가야가 중간에서 매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고흥이나 해남의 정치체도 나름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영산강유역과 소가야의 고분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엄존한다. 왜계 요소가 영산강유역, 해남, 고흥, 고성, 함안, 김해 등에서 제각각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다. 전방후원형이라는 분형은 오직 해남을 포함한 영산강유역권에서만 확인된다. 하지키는 김해지역 출토량이 압도적이면서(조성원 2021: 141~143) 고성 동외동유적에서도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스에키는 고성 송학동, 산청 생초 등 소가야양식 토기 분포권에 다수 존재한다(조성원 2021: 145).

한편 내륙의 진주, 산청 지역은 소가야양식 토기유통권이면서 소가야문화권에 포함되는데 진주 수정봉-옥봉이나 산청 중촌리에서 보이는 고총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항시국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해안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내륙의 농업, 산림지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의 고대 항시국가들은 대개 내륙의 농경지나 산림에 배후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농산물의 공급은 물론이고, 산림에서 채취한 향신료, 상아, 물소 뿔 등 교역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권오영 2019). 소가야가 포함된 원거리 교섭에서 주로 다루던 상품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내륙에서 생산 및 채취하는 물품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송학동고분군 축조 세력과 내륙의 중촌리고분군 축조세력은 상호 보완적 처지였을 것이다(김규운 2018: 95).

소가야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 정치체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 때, 해안가의 항시만이 아니라 내륙의 농업, 산림자원 생산 기지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시 사이에 전개된 교섭만이 아니라 항시와 항시국가 내부의 구조를 참고할 때 연안의

소가야정치체와 내륙의 소가야문화권 사이의 관계를 해명할 실마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삼국시대 원거리 교섭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한과 진·변한, 백제와 가야 등의 정치체들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가 정치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고려한다면 동남아시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항시, 항시국가론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일출과 함께 출발하여 일몰 전에 정박할 수 있는 거리마다 기항지가 마련되고 결국 항시로 발전하는 모습은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볼 수 있다.

복수의 항시가 결합되어 발전한 항시국가는 삼국시대에 다수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포상팔국의 난”이라는 전쟁의 주체들은 가야만이 아니었을 것이며 남해안에 분포하는 다양한 항시와 항시국가들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성을 무대로 성장한 고자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을 무대로 널리 확산된 소가야양식 토기, 일본 긴키에서 스에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가야양식 토기의 높은 비중 등이 그 근거가 된다.

국내 학계에서는 소가야의 공간을 규명하기 위하여 소가야양식 토기를 대상으로 논의의 진행하였지만 여러 가지 개념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이 글에서는 고자국의 핵심,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토기 출토권(교류권)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다소 도식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소가야의 내부구조를 고려하여 핵심에서부터 동심원적인 파장을 그리면서 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결국 소가야가 중심이 된 원거리 교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야사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서 동남아시아 항시 및 항시국가에 대한 비교사적, 비교고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 이 글은 2024년 10월 8일 경남 고성에서 개최된 제1회 소가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라는 글을 토대로 대폭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日本書紀』

강산문화연구원, 2021, 『고성 내산리 고분군 -40·44·46호분-』.

경남발전연구원, 2007, 『사천 방지리 유적 I -초기철기시대-』.

경상문화재연구원, 2022, 『통영 팔천곡 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고흥 야막고분』.

국립진주박물관, 1990, 『고성 올대리 2호분』.

_____, 2003, 『固城 東外洞 遺蹟』.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고성 내산리 고분군 I』.

_____, 2005, 『고성 내산리 고분군 II』.

권오영,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백제연구』36,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_____, 2017,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주류성.

_____, 2019, 『해양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김경립, 2020, 『保羅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47, 부경역사연구소.

김규운, 2010, 「5~6세기 小伽倻式 土器 設定」, 『한국고고학보』76, 한국고고학회.

_____, 2018, 「고고자료로 본 소가야의 권역과 변천」, 『한국고대사연구』92, 한국고대사학회.

김두철 외, 2020, 『가야 사람 풍습: 편두』 2019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낙중, 2012,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 횡혈식석실묘의 수용 양상과 배경」, 『한국고고학보』85, 한국고고학회.

_____,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51, 호남고고학회.

_____, 2021, 「영산강유역권과 고성지역 고분의 축조 방식 비교」,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사회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김양훈, 2020, 「3세기 포상팔국전쟁 이후 남부가야제국 동향」, 『지역과 역사』46, 부산경남역사연구소.

_____, 2026, 『가락국 국가형성과정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홍, 2017, 「고대 南海 島嶼의 유적과 특성」, 『한국학논총』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 2021, 「삼국 초기 海上 英雄과 국가의 성격 -영웅시대의 설정-」, 『한국학논총』5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준식, 2015,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被葬者の 성격과 역할」, 『야외고고학』23, 한국문화유산협회.

_____, 2023, 「가야 속의 왜계 문물의 현상과 과제」, 『동아시아의 열린 공간, 가야 학술대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자료집.

노중국, 2005,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加耶의 海上勢力』,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자료집.

동서문물연구원, 2009, 『통영 남평리유적』.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마한문화연구원, 2025,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군』.

박순발 · 이상길, 1994, 『고성 연당리 고분군』, 경남대학교박물관.

백승욱, 2019, 「문헌자료로 본 泗川 史勿國」, 『로컬리티인문학』22.

백진재, 2015, 「加耶諸國의 對倭交渉과 浦上八國戰爭」, 『지역과 역사』37, 부경역사연구소.

베트남 사회과학출판사 지음(권오영 · 대한문화재연구원 옮김), 2025, 『옥에오 문화 2017-2020』, 진인진.

삼강문화재연구원, 2024, 「고성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14호분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2차)」.

삼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고성 만림산 토성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서현주, 2021, 「고성지역의 고대 영산강유역과 왜계 토기 고찰」,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사

- 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선석열, 1997, 『浦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考察』, 『가라문화』14,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 소배경, 2023, 『남해안의 高地性聚落과 環境』, 『고성 동의동유적』, 삼강문화유산연구원.
- 신기영, 2023, 『「포상팔국」 전쟁과 가야와 신라의 관계 변화』, 『한국고대사연구』111, 한국고대사학회.
- 안홍좌, 2023, 『탁순국의 성격』,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 여창현, 2018,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변천과 특징』, 『가야고분군Ⅲ』가야고분군 연구총서 4권,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_____, 2022, 『통영 남평리유적』, 2022 가야사 기획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 오동선, 2023, 『백제의 서남해안지역 장악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고흥지역 고분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고학회.
- 오재진, 2022, 『삼국시대 사천의 고고학적 양상』,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 이동희, 2021,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91,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3, 『제장(祭場)으로 본 고성 동의동유적』, 『영남고고학』97, 영남고고학회.
- 이성주, 2022, 『사천 사물국과 관계망』,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이은석, 2022, 『삼국시대 연안 항로와 섬』, 『섬(島)의 고고학』, 제31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이주호, 2025, 『사천 늑도유적 취락 연구 -취락경관과 구성집단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101, 영남고고학회.
- 이창희, 2022, 『삼한시기 사천의 고고학적 양상』,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_____, 2026, 『사천 늑도유적과 해상교섭 네트워크의 형성』, 『영남학』9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한상, 2021, 『고성지역 소가야묘 출토 금공품 검토』,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장혜금, 2015,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변한 소국의 해양성과 이주』, 『Homo Migrans』16, 이주사학회.
- 전남대학교박물관, 2015,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 전덕재, 2010, 『勿稽子의 遯隱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정상희, 2018, 『포상팔국 전쟁의 개전(開戰)시기와 전쟁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110, 한국역사연구원.
- 정선운, 2023, 『고고자료를 통해 본 加耶의 港市國家論』,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26, 『「항시국가론」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항시」』, 『중앙고고연구』49, 중앙문화유산연구원.
- 정인태, 2018, 『소가야권 고분 축조기법 검토-대형봉토분, 분구묘를 중심으로-』,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0,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통해 본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대형 봉토분과 분구묘를 중심으로-』, 『문물연구』38,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조성원, 2021,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가야인, 바다에 살다』, 가야 해양문화 공동연구.
- 조신규, 2014, 『삼국시대 고성지역 분구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제, 2018, 『소가야의 고분문화』,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하승철, 2014, 『전남 서남해지역과 가야지역의 교류 양상』,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전남문화재연구소 연구총서1, 해안.
- _____, 2018, 『전남 마한·백제와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58,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2, 『5~6세기 고성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대외관계』, 『동아시아고대학』67, 동아시아고대학회.
- 홍보석,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황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원문화사.

Maritim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Port citie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4th–6th Centuries CE

Kwon, Oh-You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Young-Eun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So-Yeol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interactions that developed between states and regional politie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hile interregional exchange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in both ancient history and archaeological study,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hort- and long-distance networks that operated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ituation can largely be attributed to the academic tendency to examine the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regions separately, as well as to the prevailing assumption that the conflict known as the “Rebellion of the Eight Port Polities (Posang Palguk)” was merely an internal event within the Gaya po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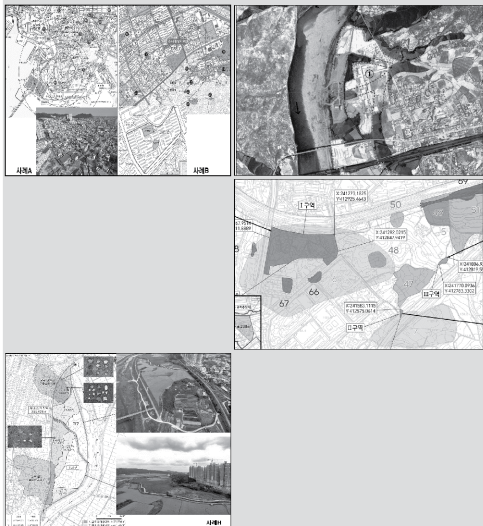
The conflict referred to as the “Rebellion of the Eight Port Polities” was not a localized war confined to the Gaya sphere but rather a large-scale conflict involving multiple polities distributed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over an extended period. In addition to coastal polities in present-day Gyeongsangnam-do, it is highly probable that polities along the Jeollanam-do coast also participated in this conflict. These circumstances exhibit notable similarities to the exchanges and warfare that developed among port cities and port polities in Southeast Asia, highlighting the need for comparativ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pproaches.

Sogaya occupied a central position in the diplomatic interactions and military

conflicts that unfolded along the southern coast between the fourth and sixth centuries CE. The internal structure of Sogaya may be conceptualized as a series of concentric spheres centered on the group responsible for constructing the Songhak-dong tumuli in Goseong. Beyond this core lay the Sogaya political sphere, the Sogaya cultural sphere, and the distribution sphere of Sogaya pottery, representing broader networks of interaction whose intensity gradually diminished with distance. Port cities were likely situated throughout each of these territorial and interactional zones.

Sogaya maintained active relations not only with diverse coastal polities in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but also with polities in the Kyushu and Kinai regions of the Japanese Archipelago. Evidence for these exchanges includes the discovery in Japan of material culture originat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mergence of Sueki ware, as well as th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of Japanese-style tombs and artifact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extensive maritime networks linki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Japanese Archipelago during this period.

Key words : Sogaya, Rebellion of the Eight Port Polities(Posang Palguk), Port city, Port polity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의 개선 방안

Methodological Improvements in Surface
Survey of Buried Cultural Heritage

김도헌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I. 머리말

II. 현행 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

III.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

IV. 지표조사의 개선 방안

V. 맺음말

국문 요약

지표조사는 매장유산을 조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지만, 방법적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매장유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지표조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일종의 행정 절차로 진행되는 지표조사가 매장유산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현행 지표조사 방법을 검토하였다.

현행 지표조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량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지표조사만으로 매장유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단언할 수 없음에도 지표조사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밖에 매장유산과 다소 무관한 민속과 자연유산 등의 조사가 포함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내용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를 계기로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설정하는 게 적절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민속과 자연유산 등의 조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필요한 때에만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매장유산, 지표조사,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참관조사

I . 머리말

최근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되면서 매장유산 영향 진단 제도가 도입되었다. 매장유산 영향 진단은 유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매장유산 유존 지역은 지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매장유산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러한 매장유산 유존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유존 지역 대부분은 지표조사를 통해 설정되었다. 따라서 지표조사로 설정한 매장유산 유존 지역을 기준으로 영향 진단을 진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개념부터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즉, 매장유산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하는 문화유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하는데, 지표조사는 지상에 드러난 흔적을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 규정’으로 약칭)」 [별표 2]). 물론, 지하에 분포하는 매장유산이 파괴되어 유물과 유구 등의 흔적이 지상에 드러난 곳이라면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에 양호하게 보존된 매장유산은 지상에 아무런 흔적이 없으므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표조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방법임이 분명하고 지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한편,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1999년에 「문화재보호법(법률 제5982호)」이 개정되면서 건설 공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에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이 제정되면서 지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보고서 작성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25년 이상 건설 공사에 앞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표조사 방법 등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물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김선주 2021),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적용(구준모 2021), 지표조사 방법과 보고서 작성(강세호 2021), 지도의 이해와 활용(김감영 2021) 등 지표조사 방법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입지와 지형, 정밀 토양도, GIS, 인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설명한 연구(유병록 · 이보경 2011)도 있었다.

그러나 매장유산을 보호하려고 진행하는 지표조사가 매장유산 보호에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

도가 도입되고 매장유산 영향 진단이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표조사의 적절성 검토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검토해 보겠다. 여기서 검토하는 지표조사는 건설 공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시 말해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지표조사를 의미한다. 또한, 육상 지표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방법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법령 등에서 규정한 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통해 실제 진행된 지표조사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겠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표조사 방법의 개선 방안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표조사 방법론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고고학 지표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 사례가 있다(Banning, E. B. 2017: 466~488). 여기서는 지표조사 결과에서 유물과 유적의 존재 여부, 유물의 밀도와 분포, 자료의 성격 등을 해석하려면 단순히 조사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조사자의 탐지 능력, 지표 가시성, 조사 간격, 조사 설계의 적절성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요르단과 키프로스의 사례를 통해 재조사, 조사자의 유효 탐색 폭(sweep width) 측정, 조사 포괄도(coverage) 산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유물이나 유적을 놓쳤을 가능성에 대해 경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지표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확인된 자료”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자료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유물 단위 정밀 보행 조사(artefact-accurate field walking)와 전자기 유도 탐사(EMI) 자료를 결합하여 지표 유물 산포의 해석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Trachet, J. 2017: 101~117). 여기서는 기존 유적 탐색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던 보행 조사가 유적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GNSS(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반의 정밀 위치 기록은 격자(10m×10m) 조사보다 훨씬 세밀한 유물 분포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지표 유물 산포와 지하 지구물리 이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주거지, 도로, 필지, 마을의 시간적 확장 양상을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간 경작된 유적에서도 유물의 수평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유물 산포가 원래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해외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지표조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도 있다. 특히 행정 절차에 따라 빠른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각종 탐지 방법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해외의 연구 성과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겠다.

Ⅱ. 현행 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 지표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표조사의 세부 사항은 「지표조사 규정」에서 제시하고 지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표조사 규정」의 [별표 2]와 [별표 4]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상 지표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사전조사	현장조사	탐문 및 설문조사
✓ 500m 이내 지정문화유산 ✓ 문화유적 원부 등 ✓ 기 조사 자료 ✓ 역사 기록 ✓ 향토사 연구 자료 등	✓ 사업 예정지와 주변 및 조망권 내 국가유산의 현장 정밀 조사 ✓ 탐침 조사, 낙엽 제거 가능 ✓ 지표 원형 변경 불가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 조사

[그림 1]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지표조사 규정」에서)

「지표조사 규정」에서 제시한 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은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 탐문 및 설문 조사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현장 조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지표조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은 ‘지표의 원형 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라는 부분이다. 이를 제외하면, 조사할 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 다시 말해, 조사 지역 전체 범위를 보행으로 확인하는 방식인지, 50% 정도를 확인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리고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하여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즉, 탐문 및 설문 조사 항목에는 민속 등에 관한 사항을 마을 원로 등과 면담하거나 설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민속 등에 관한 조사는 매장유산과 다소 무관한 내용이다. 물론 지명은 매장유산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굳이 모든 지표조사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마을의 공간 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과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밀 조사도 매장유산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아마도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겨진 항목이라고 짐작한다.

조사 개요	조사 지역 환경	조사 내용	조사단 의견
✓ 조사 경위 ✓ 조사 지역 및 범위 ✓ 조사 기간 ✓ 조사단 구성 ✓ 조사 의뢰 기관	✓ 자연 지리적 환경 ✓ 고고 역사적 환경 ✓ 수치지형도, 기타 주제도 ✓ 1950년 이전 지도와 비교 ✓ 반경 호 표시	✓ 문헌 조사 내용 ✓ 국가유산 현황 ✓ 역사, 고고 등 조사 내용 ✓ 지역과 유물 등의 사진 ✓ 조사 범위 등 표시 도면	✓ 조사 기관 의견 ✓ 필요 시 발굴 범위와 면적 ✓ 유구 유물 미확인에도 발굴 의견 제시 ⇨ 지질과 조사 현황 등의 자료 제시

[그림 2]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지표조사 규정』에서)

그리고 「지표조사 규정」에는 보고서에 게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도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사실은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표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매장유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매장유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명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 내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 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 환경,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관련 문헌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이라는 내용 정도이다.

이처럼 자세한 설명이 없는 상황은 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만, 매장유산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유구와 유물 사진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양자가 매장유산의 존재를 설정하는 기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적의 분포 범위를 정확하게 도면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적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나 방법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어쨌든 현행 「지표조사 규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유산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유물과 유구 등의 확인 여부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매장유산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는 무령왕릉과 진시황릉이 있다. 무령왕릉은 송산리 고분군 내에 분포하고 있었지만,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확인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존재를 몰랐으며 진시황릉 역시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야트막한 둔덕으로 인식한 곳이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보편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다양한 매장유산 사례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둘째, 정량적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유적 분포 가능성’, ‘지형 변경 유무’, ‘원지형 잔존 여부’ 등의 여러 항목은, 명료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유적 분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없다. 물론 유적 분포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표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특히 어느 정도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적절하다.

셋째, 지표조사의 방법적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지표조사의 개념을 고려하면,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적절하다. 다만, 지표조사의 방법적 한계, 다시 말해 지상의 흔적을 통해 지하에 분포할 수도 있는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물론, 지표조사 이후에 발굴 등을 진행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음을 지표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유산이 실제로 분포하지 않음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넷째, 자연유산과 민속 등의 조사 범위가 다소 넓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연유산과 민속 등에 관한 항목을 매장유산 지표조사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민속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장은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조사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또한, 민속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조사 내용에서 자연유산과 민속 등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거나, 제외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요구 자료는 많지만, 분석이나 자료 해석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즉, 사진과 도면, 좌표, GIS 파일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하지만, 조사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없다. 이처럼 해석 모델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자료 나열형 보고서가 된다. 또한, 나열한 자료에 기반하여 제시한 결론도 편차가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섯째, 유적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보통 매장유산(또는 유적)의 분포 범위는 다소 애매하여서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발굴을 통해 전체 범위를 확인하여도 유적의 경계 설정은 간단하지 않다. 다시 말해 개개 유구의 분포 범위는 논란이 없지만, 유구 주변의 어디까지를 유적 범위로 인식할지는 아직 분명한 기준이 없다. 이처럼 발굴한 유적의 범위 설정도 쉽지 않은데, 지표조사만으로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조사자마다 설정한 범위의 편차가 상당할 개연성이 있다.

일곱째, 시굴 조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제정된 「지표조사 규정」의 [별표 3]에서 나름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유물 확인이나 수습’, ‘원지형 잔존’, ‘유적 입지에 적합한 지형’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면적과 관계없이 1점의 유물만 확인하여도 유물 확인으로 볼 수 있는지,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만 원지형 잔존인지, 유적 입지에 적합한 지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등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항목이 많다.

또한, 표본 조사와 시굴 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세부 사항(보존 조치 방안 근거)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서 조사 기관에 따라 제시하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나아가 과잉 또는 과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굴 조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보존 조치 방안 근거)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현행 지표조사 제도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개발 행위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표조사이고 발굴로 이어지면 사업 시행자가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성적 기준만으로

[표 1] 유존 지역의 보존 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 기준(『지표조사 규정』에서 수정)

매장유산 유존 지역 보존 조치 방안 근거		
보존 조치 방안 근거		
①유물 확인이나 수습	특정 시대의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된 경우	
②주변 등에서 기존 유적 조사	시·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이 확인된 경우	
③기존 매장유산 유존 지역	기존 지표조사로 국가유산 매장이 확인된 경우	
④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지형	주변 발굴 결과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경우	
⑤원지형 잔존	매장유산 잔존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기타	문헌 등으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매장유산 유존 지역 보존 조치 방안 세부 기준		
유산 구분	보존 조치	세부 기준
비지정 유산 매장유산 (유존 지역)	현상 보존	1.현지 보존 유적(법 제14조) 2.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거쳐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밀 발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유산의 매장 가능성이 확정적이며, 범위와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시굴 조사	1.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한 경우 〈①+⑤〉 2.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①+②~⑥ 중 2가지 이상〉 3.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지만,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⑥ 중 2가지 이상〉
	표본 조사	1.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을 제외한 다른 근거가 확인된 경우 〈①+②·③·④·⑥ 중 1가지〉 2.해당 근거가 하나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 〈①~⑥ 중 1가지〉 3.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지만, 원지형의 훼손이 국가유산의 매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경우 〈②~⑥ 중 2가지 이상+원지형 일부 훼손〉

1	매장유산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기준 없음	→	불확실성이란 매장유산의 특성을 반영 못함
2	정량적 판단 기준 없음	→	결론의 편차 발생, 행정의 균일성 문제
3	지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 부족	→	지상 흔적만으로 매장유산을 파악하는 한계
4	자연유산과 민속 등의 조사 범위가 넓음	→	민속 등의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 없음
5	조사한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없음	→	자료 나열형 보고서, 결론에 편차 발생
6	유적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 없음	→	매장유산 경계의 편차 발생
7	발굴 조사 필요성 판단의 기준 모호	→	과잉 또는 과소 발굴의 문제 발생

[그림 3] 지표조사의 방법과 절차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표조사 방법의 문제점이 실제 지표조사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겠다.

Ⅲ.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

지표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결과 보고서를 선별하여 검토하겠다. 검토 대상은 매장유산 조사 연구 전문 법인에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진행한 지표조사의 보고서로 50개 기관에서 발간한 50개의 보고서이다. 지표조사 보고서는 ‘국가유산청의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의 ‘상세 검색-매장유산 조사현황-지표조사’에서 시도(서울, 경기, 강원 등)를 선택하여 검색한 다음, 검색 결과에 나오는 보고서를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도별 보고서의 건수를 대략 배분하였고 중복되는 기관은 배제하였다. 이렇게 임의로 선별한 50개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유산의 분포 잠재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물론 유구가 확인되면 유적의 존재를 상정하는 데 별다른 논란이 없지만, 유물과 유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여러 지표조사에서 유물과 유구를 확인하지 못했어도 지형 조건과 주변 유적의 분포 등을 기준으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적의 분포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사례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어떤 종류의 유적이 분포할 때 매장유산의 분포 가능성을 인정하는지, 지형 조건이 어떠한 때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결과적으로 조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2개 사례는 모두 재개발 사업에 앞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에 해당한다. 지표에서 유물과 유구 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래 지형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점에 대해 다음 단계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사례 A는 참관 조사, 사례 B는 표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단 의견이 도출되었다. 양자는 조사 당시 지표의 상황과 주변 유적 현황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유물과 유구 등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같다. 또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그림 4] 지표조사 사례A와 사례B

제시한 근거도 원래 지형의 잔존 가능성으로 동일하지만, 추가 조사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시굴과 표본, 표본과 참관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례마다 다른 상황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 정량적 판단 기준이 없다. 실제로 거의 모든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정량적 판단 기준을 찾기 어렵다. 즉,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몇 점의 유물이 확인되어야 매장유산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지, 시굴 조사와 표본 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 여러 사항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기준, 특히 정량적 기준이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조건은 비슷하지만, 사례에 따라 시굴 또는 표본으로 의견이 갈라진다. 특히 하나의 보고서에서 판단 기준이 애매한 사례도 있다(그림 5 참조). 즉, 단일 지표조사에서 2개 지점에 대해 각각 표본 조사와 시굴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각각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동일하다. 이러한 상황은 정성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에 따른 행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행정의 평등과 신뢰 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9조와 제12조)을 고려하

1	가도동 유적유형지	대정광역시 동구 가도동 393필대	6,200	창동기 고리, 조선	유적추경지	○	표본 조사	6,200	지표수습된 다수의 유물로 조사 매장안 화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조사 지역 내
2	가도동 유물산포지	대정광역시 동구 가도동 402필대	11,700	창동기 고리, 조선	유물산포지	○	시굴 조사	11,700	지표수습된 다수의 유물로 조사 매장안 화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조사 지역 내

[그림 5] 지표조사 보고서 결과표 일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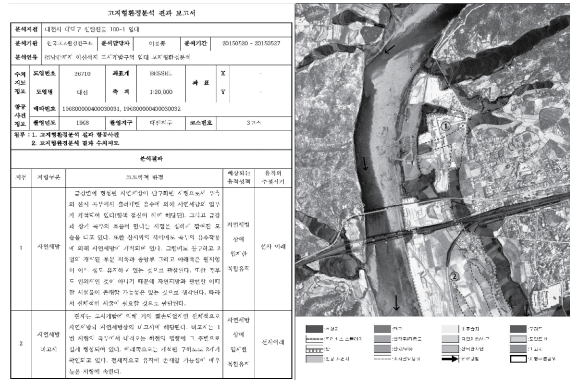
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편차가 적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셋째, 지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사를 잘 진행하지 않는다. 물론 고지형 분석 등의 보완 조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그림 6 참조). 그러나 대부분은 육안 조사만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 조사를 거의 채택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각종 보완 조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앞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지표조사 이후 시굴이나 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때에는 지표조사에서 굳이 보완 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표조사만으로 종결되는 사례에서는,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표조사 보고서에 “지표조사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공사 중에 매장유산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데, 이것은 지표조사만으로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못함을 여러 조사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표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매장유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민속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장유산 지표조사에서 민속 조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표조사에서 민속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명만 조사하거나 민속 관련 문헌 자료만 제시한다(그림 7 참조). 특히, 민속에 관한 탐문 조사와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자연유산 역시 민속과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이 없다. 지표조사 보고서에 기재하는 자료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는지를 설명한 사례는 없다. 이런 이유로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례마다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기관마다 자료 해석에 편차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적절함은 분명하다. 물론 지표



[그림 6] 지표조사에서 진행한 고지형 분석 사례

면적은 14,390m²이다. 따라서 사례C와 사례D의 유물 수량 당 산포지 면적을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유적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없다. 지표조사에서 새로운 매장유산을 확인하면 분포 범위를 도면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없다. 물론 학술적인 관점에서 도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로 진행하는 지표조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례마다 발생하는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해서도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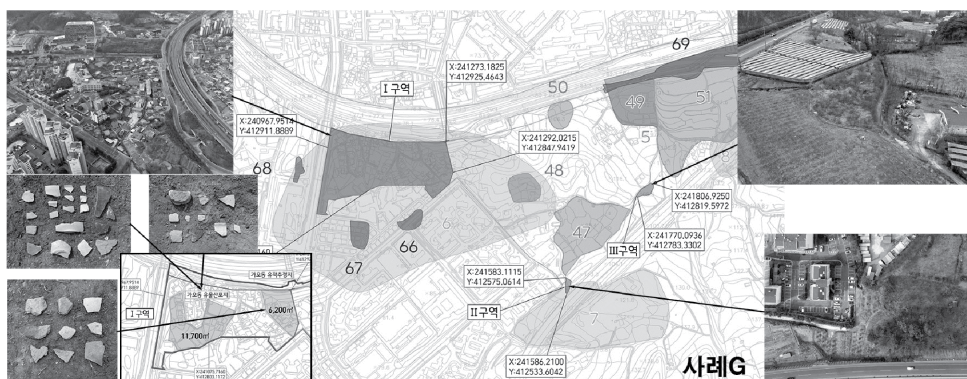
[그림 9] 지표조사로 설정한 산포지 사례

사례E는 지표에서 유물을 확인하여 신규로 설정한 산포지이다. 산포지 설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설명은, ‘경작지가 위치한 OO동 산71-3번지 일원에서는 도기편과 백자편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물산포지로 명명하였다.’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산포지 남쪽 경계를 설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사례F도 비슷한데, ‘원지형이 남아 있고 유물이 확인된 구릉과 논밭 일부를 중심으로 명명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남동쪽의 골짜기 일원은 절반 정도만 산포지의 분포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절반만 설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대부분의 지표조사에서 유물의 분포 여부와 분포 범위, 지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포지의 범위를 설정한다. 다시 말해 명시적인 기준은 없지만, 실

질적으로 통용되는 나름의 기준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사례마다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지표조사 이후에 보존 대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물론 여러 보고서에서 유물과 유구의 분포 여부, 입지, 주변 유적의 분포 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마다 기준 적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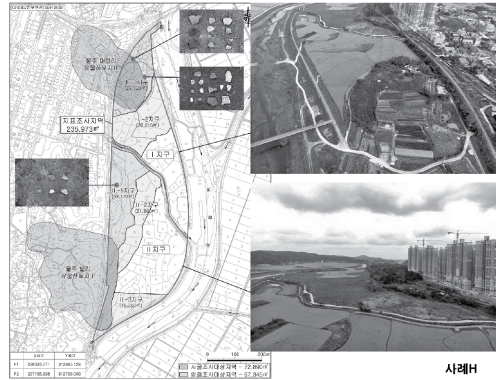


[그림 10] 지표조사 사례G의 조사 현황

사례G는 매장유산이 분포한다고 알려진 곳에서 진행한 지표조사로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II·III구역은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존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I 구역 가운데 유물이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신규 산포지와 유적 추정지를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유물 확인 수량을 기준으로 산포지는 시굴, 유적 추정지는 표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례는 매장유산이 유존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I 구역, 일부만 매장유산 유존 지역과 중복되는 II 구역, 매장유산 유존 지역이 아닌 III구역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조사 의견 도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물의 확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인데, 특히 기존 조사 내용(기 보고된 매장유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시굴과 표본을 구분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사례H는 매장유산 유존 지역과 일부 중복되는 지점에서 진행한 지표조사이다(그림 11 참조). 여기서는 유물의 분포 여부와 지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굴과 참관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유물을 채집한 지점이 3개소에 불과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유물 분포 범위를 설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원래 지형이 남아 있는 지점은 참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



[그림 11] 지표조사 사례H의 조사 현황

래 지형의 잔존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판단 기준과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량적 평가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이 외의 문제로는 지표조사로 종료되는 사례의 경우 매장유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매장유산과 다소 무관한 민속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1	매장유산의 분포 잠재성 평가 기준 부재	→	조사 담당자의 주관적 기준으로 결정
2	정량적 판단 기준 적용 사례 없음	→	행정의 평등과 신뢰 보호 원칙과 충돌
3	육안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사 미진행	→	매장유산 미분포를 확인하는 조사 필요
4	지명 조사 정도만 진행하는 민속 조사	→	매장유산 조사에 불필요한 항목
5	여러 자료의 해석 기준이 없음	→	행정 처리 균일성의 문제 발생
6	유적 경계를 정한 기준을 알 수 없음	→	사례마다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존재
7	보존 대책을 결정하는 기준 다양	→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격차 발생

[그림 12]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Ⅳ. 지표조사의 개선 방안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민속 조사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지명에 관한 선행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서 규정한 설문 조사 등을 실제로 진행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민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진행하고 매장유산 지표조사에서는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정량적 기준의 도입 문제를 살펴보겠다. 현재 지표조사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판단은 있지만,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입지 양호’, ‘가능성 있음’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주관적 판단으로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동일 지점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주관성은 행정 절차로 진행되는 지표조사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면 행정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판단의 표준화와 재현성을 확보하려면 정량적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의 안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구체적인 안은 향후 국가유산청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도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량적 기준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매장유산 지표조사에도 어느 정도의 정량적 기준을 도입하는 게 가능함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길 희망한다.

앞에서 검토한 지표조사 규정과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면, 유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물의 분포 여부, 입지, 주변 유적 분포 현황, 원래 지형 잔존 여부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지역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인 현장 여건이 있다. 다시 말해 절토 등으로 원래 지형이 파괴되었거나, 매립이나 식생으로 인해 지표를 관찰하는 게 어려운 상황 등의 현장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지표조사 평가표 시안

영역	세부 지표	배점	평가 기준
지표 유물 (15)	유물 밀도	10	0점/㎡: 0 / 0.01~0.05점/㎡: 3 / 0.06~0.2점/㎡: 6 / 0.21점 이상: 10
	유물 다양성	5	단일 종류: 2 / 2~3종류: 4 / 4종류 이상: 5
입지 (15)	지형 조건	5	급경사(30도 이상): 0 / 경사(10~20도): 3 / 평탄(10도 이하): 5
	입지 적합성	5	부적합: 0 / 낮음: 2 / 보통: 3 / 높음: 5
	입지 분석 수준	5	단순 서술: 2 / 입지 분석 포함: 5
주변 유적 (15)	주변 유적과 거리	5	1km 초과: 0 / 0.5~1km: 2 / 100~500m: 3 / 100m 이내 또는 중첩: 5
	주변 유적과 관련성	5	관련 없음: 0 / 시대만 유사: 2 / 성격 유사: 4 / 시대와 성격 모두 유사: 5
	공간 분석	5	없음: 0 / 단순 서술: 2 / 입지 분석: 5
보존 가능성 (20)	지형 잔존도	10	20% 이하 잔존: 0 / 50% 이하 잔존: 4 / 50~80% 잔존: 7 / 80% 초과 잔존: 10
	지표 교란	10	80% 이상 교란: 0 / 40~80% 교란: 4 / 20~40% 교란: 7 / 20% 이하 교란: 10
조사 신뢰도 (25)	조사 밀도	10	전체 범위 확인: 10 / 70% 이상 확인: 7 / 30~70% 확인: 4 / 30% 이하 확인: 0
	조사 방법 다양성	3	육안 조사만: 0 보완 기법 활용: 3
	조사 가시성	10	80% 이상 불량: 0 / 50~80% 정도 불량: 3 / 20~50% 불량: 6 / 20% 이하 불량: 10
	현장 조사 기간 적정성	2	부족: 0 / 적절: 2
해석 판단 체계 (10)	자료 해석 기준	5	없음: 0 / 있음: 5
	발굴 등의 판단 기준	5	없음: 0 / 있음: 5

평가 영역은 6개로 구분하였고 영역별 세부 지표는 2~4개로 설정하였다. 먼저 지표 유물은 매장유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준 자료로 널리 사용(「지표조사 규정」 [별표 2])되는데, 2개의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물 밀도는 전체 조사 면적에서 확인한 유물 수량을 의미하는데, 면적에 따른 유물 수량의 편차를 확인하려고 제시한 지표이다. 그리고 유물 다양성은 단일 시대인지 여러 시대에 걸쳐 있는지를 반영하는 속성이다.

그리고 입지 가운데 지형 조건은 자연 지형에 관한 것으로 등고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입지 적합성은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개개 유적의 입지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가마의 입지, 취락의 입지, 무덤의 입지 등 비교적 정형화된 유적별 입지 자료와 비교하여 설정하는데, 정성

적 요소가 다소 반영된 항목이다. 그리고 입지 분석은 단순히 지형만 서술한 경우와 관련 분야 지식에 기반하여 입지를 검토한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입지 적합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입지 분석과 입지 적합성은 상호 연관되는 속성으로 입지 분석에 기반하여 입지 적합성을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주변 유적은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비교를 통해 산출하는 항목이다. 조사 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매장유산의 양상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주변 유적과 관련성은 조사 지역에서 상정하는 유적과 주변 유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조사 지역에 삼국시대 고분이 분포한다고 파악하였는데, 주변에 삼국시대 고분이 있는지, 조선시대 무덤이 있는지, 삼국시대 취락이 있는지 등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공간 분석은 주변 유적 관련성과 연계되는 항목으로, 분석에 기반하여 주변 유적과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보존 가능성 가운데 원래 지형 잔존도는 절토 등으로 파괴된 부분, 다시 말해 원래 지형이 이미 파괴되어 기반토가 노출된 부분이 조사 지역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지표 교란은 원래 지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지만, 경작 등으로 교란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만약 원래 지형이 잔존하지 않는 곳이라면 지표 교란은 80% 이상에 해당한다.

조사 신뢰도 항목 가운데 조사 밀도는 전체 조사 면적 가운데 실제 보행하면서 확인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조사 가시성은 풀이나 낙엽이 덮여 있거나,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서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또한, 조사 방법 다양성은 육안 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현장 조사 기간 적정성은 대규모 조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현장 조사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석 판단 체계는 자료와 보존 대책인 발굴 조사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해석의 틀이나 기준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항목이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신뢰 가능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평가 항목의 적절성은 평가 사례가 축적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실제 평가를 진행하면 보완할 부분이 발생한다고 예상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기준과 선행 연구(유병록·이보경 2011; Banning, E. B. 2017; Trachet, J. 2017)에서 제시한 기준(입지, 지형, 탐지 능력, 지표

가시성, 조사 설계의 적절성, GIS 등) 가운데 적용 가능한 항목(입지, 지형, 지표 가시성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 검토하는 정량적 평가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어쨌든 앞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평가한 내용에서 도출된 점수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총점이 높으면 매장유산의 분포 가능성이 크므로 시굴 조사, 총점이 낮으면 가능성이 작으므로 표본 조사나 참관 조사, 희박한 때에는 추가 조사 없이 공사 시행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어쨌든 이 기준은 임시적인 것인데,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보완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표 3] 평가 기준

점수	유적 분포 가능성	보존 조치
81점 이상	높음	시굴
66~80점	보통	표본
51~65점	낮음	참관
50점 이하	희박	공사 시행

그리고 앞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 지표조사 보고서 10개를 평가한 것이 [표 4]이다.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점이 낮아서 60점을 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는, 보존과 신뢰도, 해석 등의 항목의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점수가 낮게 산출되었는데, 향후 기술 방식이 보완되면 평가 점수는 10~15점 정도 상향될 개연성이 있다.

한편, 평가 점수는 낮지만, 대체로 시굴 의견이 제시된 사례가 표본 의견이 제시된 사례보다 점수가 높은 경향은 확인된다. 다만, 보고서 번호 9번 사례의 조사단 의견

[표 4] 기존 지표조사 보고서의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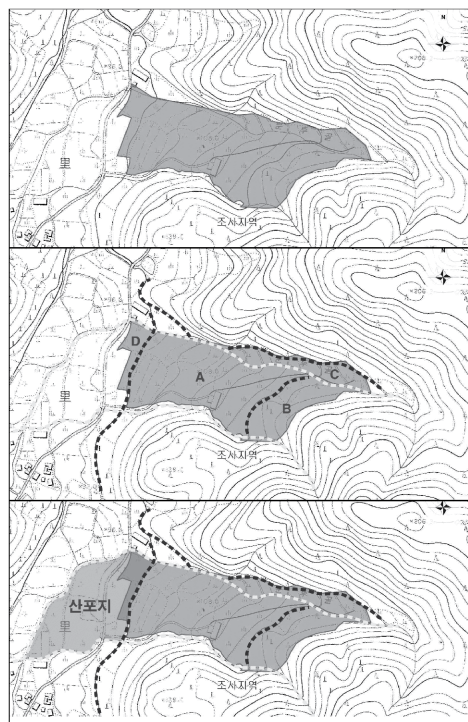
보고서 번호	유물 (15)	입지 (15)	주변 (15)	보존 (20)	신뢰도 (25)	해석 (10)	총점	보고서의 조사단 의견
2	8	11	11	8	9	0	47	시굴/표본/공사
3	7	10	10	9	9	0	45	시굴/표본/공사
4	0	8	6	10	10	0	34	표본/공사
5	11	13	14	7	9	0	54	시굴/표본/공사
6	10	12	12	9	9	0	52	시굴/표본/공사
8	9	12	11	8	8	0	48	표본
9	6	10	11	6	6	0	39	시굴
10	10	12	13	10	10	2	57	시굴/공사
11	8	11	10	10	9	0	48	시굴/공사

은 시굴이지만, 평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고서 9번 사례가 조사 면적이 좁고 건축물이 있으면서 바닥은 시멘트로 포장된 상황이어서 원래 지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앞에서 제시한 지표조사 평가 시안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표를 개선하여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고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검토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아직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 보통 지표조사에서는 사업 시행 범위, 다시 말해 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처리 때문이라고 짐작하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다시 말해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와 공사 부지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으므로 매장유산의 분포 범위는 지형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지역과 그 주변의 일정 범위를 포함하여 지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골짜기나 하천, 지형 변곡점 등의 지형 조건을 기준으로 조사 지역과 주변을 구획한 다음에 조사 지역 내의 구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역을 설정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 [그림 13]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지표조사를 구역별로 진행함과 동시에 앞서 제시한 평가표로 구역별 평가를 진행한 다음, 매장유산의 분포 가능성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산포지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3]에서 D지



[그림 13] 조사 구역 구분과 산포지 설정 개념도

점에서 매장유산의 분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산포지의 범위는 D지점과 지형적으로 이어지는 범위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 물론 그림에 제시한 경계는 개념만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설정하면 경계를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표조사는 여러 한계가 있는 방법이므로 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는 지표조사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 또는 일부는 시굴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따라서 지표조사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매장유산이 분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으로는 표본이나 시굴 조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조사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최소한 참관 조사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참관 조사는 현재 규정에서 정의하는 방식의 조사를 말한다. 즉, 건설 공사 기간 중 굴착 공사를 진행할 때 그 현장에서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이다. 이처럼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지표조사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참관조사에서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표조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지표조사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량적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정량 지표에 기반한 평가표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를 계기로 지표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 특히 정량 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매장유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역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보다 나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희망한다. 또한, 민속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규정과 실제 상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여기서 제안한 정량 지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 자료의 검토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규정을 새로 고시만 한다면 빨리 시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표조사 보고서의 형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견해를 밝혀두겠다. 현재 지표조사 보고서의 분량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환경에 관한 설명이 많은 경향이 있다. 반면, 현장 조사 내용에 관한 설명은 매우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다소 불필요한 환경에 관한 내용, 특히 주변 유적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조사 내용은 더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한 내용은, 사실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고고학에 종사하는 인력은 법과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소 무심한 경향이 있어서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관련 제도와 법령은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본고를 작성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투고일 2026. 4. 30 | 심사완료일 2026. 5. 20 | 게재확정일 2026. 5. 27

-법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2.14.][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시행 2025.10.1.][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시행 2025.10.31.][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 2025.10.31. 타법개정]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 8. 5.] [국가유산청고시 제 2025-107호, 2025. 8. 5., 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26.1.2.][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3.26.][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타법개정]
 「문화재보호법」[시행 1997.7.1.][법률 제5982호, 1999.5.24. 타법개정]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2005.10.19. 제정)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5.17.][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2024.5.17.타법개정]
 「행정기본법」[시행 2026.3.19.][법률 제20824호, 2025.3.18. 일부개정]

- 가경고고학연구소, 2024, 「보령 웅천 대창리 산90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복토용토사 및 자재야적장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2023, 「대전 가오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지표조사(추가부지) 보고서」.
- 가야문화연구원, 2024, 「함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가야칠서지구) 문화유산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가원고고문화연구원, 2024, 「국도31호선 인제 상남-기린 도로건설공사 예정부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 강세호, 2021, 「지표조사의 실행방법과 유의사항, 보고서 작성」, 『유적확인조사 실무』 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자료집, 한국문화유산협회.
-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 「(가)창원 금형 전문 뿌리 산업단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경상문화재연구원, 2020, 「가회~신등2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변경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고고문화유산연구원, 2025,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부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 고려문화재연구원, 2023,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24-1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국비지원 지표조사 보고서」.
- 고운문화유산연구원, 2025, 「부여 만지리(산34-5번지 일원) 산림경영계획부지 내 국가유산 영향진단 보고서 -국비지원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평가」.
- 구준모, 2021, 「지표조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적용」, 『유적확인조사 실무』 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자료집, 한국문화유산협회.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고성 ○○구축사업(15-B115)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국원문화유산연구원, 2025, 「충주 문송리(산30-6번지 일원) 토석채취장 부지 국가유산 영향진단조사 보고서 -유존지역 평가」.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24, 「KT&G 대전공장 기숙사 신축부지 국가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 김갑영, 2021, 「지도의 이해와 활용」, 『유적확인조사 실무』 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자료집, 한국문화유산협회.
- 김선주, 2021, 「지표조사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유적확인조사 실무』 2021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자료집, 한국문화유산협회.
- 나라문화연구원, 2020, 「평주호 호수생태원 확장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경문화재연구원, 2020, 「군위 가호리 109번지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대구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도원문화재연구원, 2023, 「여주 장안리(588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방문화재연구원, 2015,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6, 「울주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북아지식보존연구소, 2011, 「영광 2011 가을철수 밭기반 정비사업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동서문물연구원, 2011, 「함안 예곡리 (주)경인테크 공장신축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5,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8,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양문물연구원, 2017, 「갑판1구역 뉴스테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미래문화재연구원, 2022, 「대전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백계문화재연구원, 2013, 「세종시 부강근린공원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부경문물연구원, 2022, 「LG생활건강 음성 금왕물류센터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산돌문화유산연구원, 2023, 「인천 왕길구역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삼한문화재연구원, 2022,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서경문화재연구원, 2019,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가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4, 「울진 수산리 135-18번지 일원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4,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서원문화재연구원, 2021, 「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남천(군위지구)의 2개소 하천재해예방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수도문물연구원, 2021,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시공문화재연구원, 2023, 「부산 온천동 공작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지표조사 보고서」.

역사문화유산연구원, 2025, 「양평 2025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부지 내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보고서 - 유존지역 평가」.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21, 「광주 광산구 소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23, 「○○대대 등 개편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7, 「울주 온양읍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유병록 · 이보경, 2011, 「충적지유적의 입지분석과 활용: 영남지방의 조사사례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1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일영문화유산연구원, 2023, 「서귀포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2016 가을철수 밭기반 정비사업(야월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익산 황등면 황등리 토석채취장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4, 「임실 성수-진안 백운 도로시설개량공사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4, 「제주 가시리(3652-2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0,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철탑부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가칭) 대전 도안 2-6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청구고고연구원, 2023, 「남양주 진접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충청문화유산연구원, 2025, 「대전 도마동 90-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국가유산 영향진단 보고서」.

Banning, E. B., Hawkins, A. L., Stewart, S. T., Hitchings, P., & Edwards, S. 2017, 「Quality Assurance in Archaeological Surve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4, pp.466-488.

Trachet, J., Delefortrie, S., Van Meirvenne, M., Hillewaert, B., & De Clercq, W. 2017, 「Reassessing Surface Artefact Scatters: The Integration of Artefact-Accurate Fieldwalking with Geophysical Data at Medieval Harbour Sites Near Bruges (Belgium)」, *Archaeological Prospection* 24, pp.101-117.

Methodological Improvements in Surface Survey of Buried Cultural Heritage

Kim, Do-Heon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Human Resources, Dongyang University)

Surface survey is the most widely employed method for investigating buried cultural heritage; however, it is inherently constrained by fundamental methodological limitations. Despite these constraints, surface surveys are routinely conducted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aim of protecting buried heritage. Yet, there has been little critical examination of whether such surveys—often implemented as an administrative procedure—are in fact adequate for safeguarding buried cultural resourc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practices of surface survey.

Although a number of issues are identified in the existing system, the most critical is the absence of quantita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despite the fact that surface surveys alone cannot definitively confirm the absence of such remains, there are cases in which construction proceeds immediately after survey completion, which constitutes a significant problem.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investigations into folklore and natural heritage—elements that are only marginally related to buried cultural heritage—is also considered inappropriate.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criteria to assess the presenc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following surface surveys and for conducting such assessments on a quantitative basis. While the proposed framework is

not presented as definitive, it is intended to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quantitative evaluation criteria. Moreover, when the possibility of buried heritage cannot be confirmed through surface survey, it is suggested that a monitoring investigation be conducted during construction in order to verify the actual distribution of buried remains. Finally, it is argued that investigations of folklore and natural heritage should be governed by clearly defined criteria, to be implemented only when neces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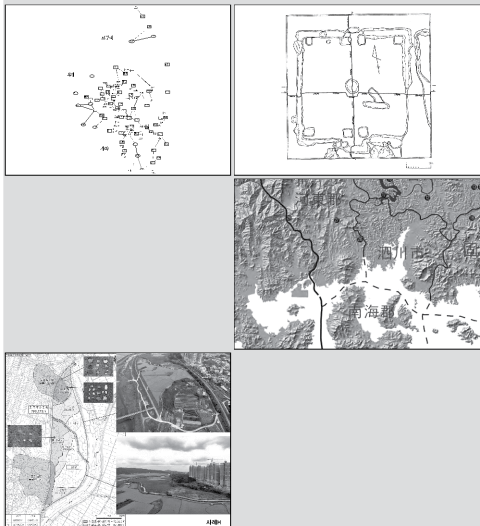
Key words : buried cultural heritage, surface survey, quantitative evaluation, qualitative evaluation, monitoring investigation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中央考古研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中央考古研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편집 방향 설정
2. 투고된 논문의 심사회부 여부 및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 동향과 자료 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 연구자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 논문 심사 평가서, 논문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 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 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유산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만일 논문 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홍길동 2022, 2023), (이몽룡 2023; 성춘향 2023) 등
- ② 2인 연구 논문 : (이몽룡·성춘향 2008), (이몽룡·성춘향 2008b), (이몽룡·성춘향

2008: 3), (이몽룡 · 성춘향 2008: 5~7) 등

-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
은 …….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1998: 215).
-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
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Ⅱ』, 古蹟調查報告 第三十三冊.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研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헌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cm, 세로
20.5cm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도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
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한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왼쪽 · 오른쪽
30mm, 아래쪽 13mm, 꼬리말 17.5mm로 한다.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 (1) 題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6) 目·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6%, 속성 보통
- (8) 표·도면·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100%, 자간 -20%, 속성 보통
-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yobo196.medone.co.kr>)에 회원가입 후 메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논문 한글파일과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헌, 각주,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